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지은이 / A. 레이시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지은이 / 레이지(AI Lacy)  
옮긴이 / 정동수 외 다수

1판 2쇄 / 2010년 7월 15일  
2판 1쇄 / 2014년 8월 25일  
3판 1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18-0 03230  
정가 : 18,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Windows of Heaven  
and  
The Worm That Never Dies*

—A. LACY—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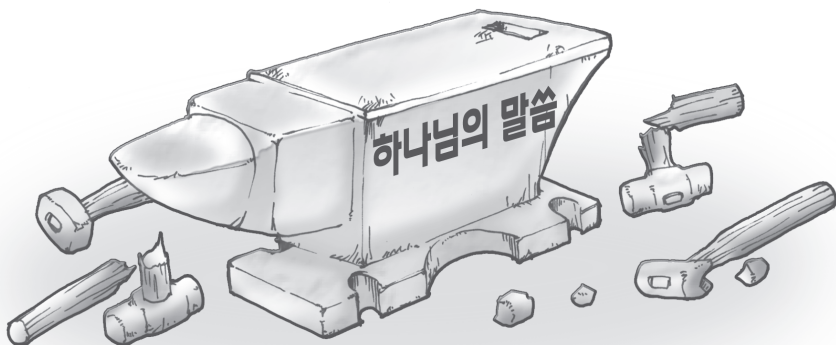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네요.”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 목 차



목 차	5
저자 서문	6
역자 서문	12
추천의 글	14

## 제1부 천국 바로 알기

1장 천국의 존재	19
2장 천국의 위치	45
3장 천국의 도시	65
4장 천국의 거주자들	117
5장 천국의 눈물	135
6장 천국의 행복	147
7장 천국의 종	181
8장 천국의 창문	197

## 제2부 지옥 바로 알기

1장 지옥의 존재	217
2장 지옥의 본질	251
3장 지옥의 개념	257
4장 지옥의 존속 기간	311
5장 지옥의 등급	325
6장 지옥의 필요성	365
7장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379
8장 결코 죽지 않는 벌레	387
부록 1 하늘, 천국, 하늘의 왕국	407
부록 2 구원의 원리	423

# 저자 서문



*Windows of Heaven*

*The Worm That Never Dies*

## <천국 바로 알기>

최근에 미국 정부는 공립 학교 학생들을 위해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What's up there?*)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우주 공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공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은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슬픔이 너무 심해서 그는 건강을 잃고 몸을 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사후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그의 가족들은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왜 갑자기 성경을 읽느냐고 묻자 그는 자기 아들이 어디에 갔는지 알려고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주 항공 공학자들은 큰 로켓을 만들어 하늘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 즉 천국에 관하여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앨 레이시(Arlen Lacy)  
(1933-2016)

말씀인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늘(천국)의 본질에 대해 성경적으로 말해 주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천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땅에서의 생각밖에 없으며 이것은 천상의 것을 이해하는 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기만 하면 땅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그분의 하늘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 것들을 자신의 말씀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천국과 영원에 관한 것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이것을 잘 말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살이 살피시느니라(고전2:10).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일을 배우려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책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늘 그러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독자께서 아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천국과 영원에 대해 계시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독자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독자는 여전히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린도전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4).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독자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독자가 알지 못한다면 독자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펴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지 보여 주지 못한다면 역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3:3)

독자께서 아직까지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보여 줄 아름다운 것들이 독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독자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 태어나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은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 있고 단지 혼과 몸만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옥과 거기서의 형벌을 피하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요3:6)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돌이키고(눅13:3)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하며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즉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천국)에 창문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십칠일 바로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windows of heaven)이 열리며(창7:11)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창8:2)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우리는 종종 백화점에 가서 가게 창문을 통해 물건을 살펴보곤 합니다. 즉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웃기웃하면서 창문을 통해 안쪽의 물건을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안쪽을 볼 수 있고 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쪽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늘의 창문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장과 8장에는 하늘의 창문 안에서 바깥쪽을 내다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자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독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독자는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 <지옥 바로 알기>

시간이 흘러가고 사람이 영원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감에 따라 저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무거운 안개 때문에 점점 더 염려하게 됩니다.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귀중한 영혼들이 종교 지성주의나 고등 비평 같은 인본주의 철학의 벽을 더듬으며 진리를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인류 역사를 통해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면 떠날수록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눈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만든 신학과 신조 등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떠나서 변개된 역본들을 사용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을 추구하며 성경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마15:14)

저는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 이단들과 카톨릭교도들과 은사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과 무슬림 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특히 근본적인 침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본주의 진영 안에서도 지옥에 대해 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집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목사님같이 설교하는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이 그리 흥미 있는 주제가 못된다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생각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 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딤후4:2-4).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면 반드시 지옥에 대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주제별 설교만을 원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영적 기근이 있을 때에는 구식의 강해 설교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과연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해 선포하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기하, 욥기, 시편, 잠언,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요나, 하박국 등을 강해 설교하면서 지옥에 대해 선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선포한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목사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강해로 설교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 그 실상을 바르게 알려 주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이 지옥에 대한 최종적인 책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들이 이 글을 읽고 이 주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지옥에 대해 열심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지옥 불 속에서 건져 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8장에서 ‘결코 죽지 않는 벌레’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는 일곱 장에 걸쳐서 지옥의 다양한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안의 진리들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고 이로 인해 좋은 열매가 넘쳐 나갈 간절히 원합니다.

콜로라도주 리틀튼에서  
앨 레이시(Al Lacy)<sup>1)</sup>



---

1) 복음 전도자 앨 레이시의 감동적인 생애는 다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  
[https://www.jesusisprecious.org/bible/kjb/pastor\\_al\\_lacy\\_seminar.htm](https://www.jesusisprecious.org/bible/kjb/pastor_al_lacy_seminar.htm)

# 역자 서문



*Windows of Heaven*

*The Worm That Never Dies*

본서의 1부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책은 많은데 정작 앞으로 우리가 영원을 보낼 천국에 관한 책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잘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면 목표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3:1-3).

레이시 박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소설가이시자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성경을 들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적절한 예화와 함께 펼쳐 나가는 그분의 천국 이야기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본서의 2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최종 종착지를 보여 줍니다.

한번은 목사들이 주로 보는 월간지를 살펴보다가 한심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면 죄와 지옥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도 결코 그런 주제를 다루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성공만을 향해 나아가다 보니 교회에서도 사람의 숫자로 목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목회 성장학 같은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쪼먹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핵심은 물론 사람의 구원이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살펴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심지어 목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이 점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죄와 저주와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지옥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는 책이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능한 성경 교사인 레이시 목사님의 이 책을 접하고는 꼭 번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강하게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하도록 흔쾌히 허락해 준 레이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의 1부는 유상수 박사가 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휴스턴에 사는 이 형제와 가정에 예수님의 기쁨과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sup>2)</sup>

본서의 1부와 2부는 원래 별개의 책이지만 독자들의 구입 비용을 줄여 주고 또 두 개를 한 번에 볼 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권으로 묶어 출간합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중복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빼면 저자가 그 부분에서 설명하려는 요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또 2부만 먼저 볼 사람들도 있으므로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시 박사님의 책이 출간되길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한 여러 형제들 - 특별히 인천에서 이 책의 번역을 위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몇몇 분들 - 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인천에서  
정동수

---

2)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 추천의 글



*Windows of Heaven*

*The Worm That Never Dies*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헌신할 때에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레이시 박사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의 한 분입니다. 레이시 박사님은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 안에서 걸으며 권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마저도 배교하는 자들과 타협을 하는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레이시 박사님은 배교하고 타협하는 무리들을 미워하며 성경의 진리만을 고수하는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믿는 침례 성도로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특별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약 교회를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레이시 박사님은 해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분과 그분의 설교를 사랑하며 매년 1월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고 박사님이 오실 때에 친지들과 친구들을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배어 있습니다. 박사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만을 전하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사님을 모실 것이고 박사님의 전도 사역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이번에 새로 출간한 「천국 바로 알기」 - 원래 제목은 「하늘의 창문」(*Windows of Heaven*)임 - 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것들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시 박사님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책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저는 사도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페티피스(Duane Pettipiece),  
게이트웨이 침례교회 목사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제 1 부

## 천국 바로 알기

*(Windows of Heaven)*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시느니라(고전2:9-10).







## 제1장

# 천국의 존재



*Existence of Heaven*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성경은 가인이 마귀에게서 났으며(요일3:12) 지금 지옥에 있다고 말합니다(유11-13). 물론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고(창4:4) 그 결과 지금 천국<sup>1)</sup>에 있습니다(히11:4).

가인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불신과 의혹의 공을 굴리기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구르기 시작한 공은 여러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독자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소위 이 세상의 지식인이라 불리는 무리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단순한 사람들 다시 말해 절대 무오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 즉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을 항상 경멸하는 눈초리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외칩니다. 또한 그들은 눈을 치켜뜨고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요!”라는 말로 우리의 주장을 일축해 버립니다.

저는 이미 「지옥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책<sup>2)</sup>을 썼으므로 여기서는 지옥의 존재를 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친구가 제게 “나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증명하길 원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프, 조금만 기다려 봐, 그분께서 직접

1) 영어에서는 ‘heaven’이 ‘하늘’도 되고 ‘천국’도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이를 구분해 주어야 의미가 통하므로 문맥에 따라 ‘heaven’을 ‘하늘’ 혹은 ‘천국’이라고 번역했다. 참고로 하늘, 천국, 하늘의 왕국 등에 대해서는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본서의 2부는 이 책을 번역한 것이다.

증명하실 테니까.”

이제부터 저는 천국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수많은 과학자들이 금성, 토성, 목성 등에 사람처럼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들 너머에 성경에서 ‘천국’(Heaven)이라 부르는 ‘행성’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천국’을 행성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독자께서는 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훌훌 털어 버려야 합니다. 다음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철저히 다룰 것이며 지금 저는 단지 “천국이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에서 파는 뜨거운 프렌치프라이(감자튀김)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곳이다.”라는 것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여! 천국은 정말로 실제적인 곳입니다. 마치 지구라는 행성이 있듯이 천국이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창시한 마르크스는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해 가르치며 믿는 바는 사실 마음 둘 곳 없는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들이 이 잔인한 세상의 아픔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아편으로서 소위 ‘천국’이라는 장소를 고안해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레닌은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지와 암흑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삶의 여정을 도와줄 버팀목으로 소위 ‘천국’이라 불리는 장소를 창안해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자본주의의 노예들 운운하는 것을 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보다 더한 노예 제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는 공산주의란 “그렇듯하게 혹은 무난하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구소련의 공산주의자요 우주 비행사였던 티토프(Gherman Titov)는 자신이 지구를 열일곱 번 도는 동안 여기저기를 다 보았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3:3)

저는 지금 이 시간 과연 마르크스와 레닌이 천국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들이 지옥은 확실히 믿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티토프 역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게 될 때 그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사악한 공산주의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을 때 니체라는 또 다른 불신자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죽여 버렸다. 이것보다 더 송고한 업적은 없으며 우리 뒤에 태어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것으로 인해 좀 더 계몽된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살해한 자들이다.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죽어 땅에 묻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은 그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서명자: 니체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누군가가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로 그 글귀를 다음과 같이 고쳐 놓았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서명자: 하나님

과학, 철학, 종교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께서 계시는 천국 등에 대한 생각은 케케묵은 신화 정도로 여겨집니다. 독일의 과학자였던 파울센(Friedrich Paulsen)은 자신의 저서 「독일의 대학들」(*The German Universitie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날로 발전하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해 예전에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바꾸게 한 대혁명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있게 한 근본 존재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파울센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저는 지금 그가 하나님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등 교육을 받은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과학과 현대 세계」(*Science and the Modern World*)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과학, 즉 지구를 단지 2등급의 태양에 붙어 있는 2등급의 행성 정도로 보는 과학이 서로 충돌한 것은 사실 지구의 중심부에 지옥이 있으며 저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는 중세기의 신화들을 무용지물로 만듦으로써 성경적 기독교의 영성에 큰 은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붙이려 합니다. 조만간 화이트헤드 교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중세기적 신화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고전1:20)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웨이플리 교수(Harlow Shapley)는 자신의 저서 「과학적 삶」(*The Scientific Lif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는 가정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소위 성경이라는 신적 계시에는 논리적인 결론을 위한 필수적인 증거들이 결여되어 있다.

독자께서는 이렇게 유명한 불신자들이 내뱉는 이 세상의 용어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사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웨이플리가 자신이 논리적인 결론을 위한 증거들이 부족한 책이라고 말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가서 자기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웨이플리 교수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던 그 책이 흰 왕좌에 놓여 있고 그 책이 자기를 정죄하여 자기 생각 속에 존재하지 않던 불 호수(최종 지옥)에 들어가게 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요12:48; 계21:8).

철학 역시 천국이라 불리는 곳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수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화이트헤드 교수의 말을 인용해 봅시다. 한때 그는 다음과 같이 비밀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대해 말하건대 도대체 기독교에서 천국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신성모독은 그가 철학에 관해 쓴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의 스테이스 박사(W. T. Stace)는 이 같은 쓰레기 철학 사상을 파급시킨 장본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종교와 현대 지성」(*Religion and the Modern Mind*)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는 비록 그 존재가 엄청나게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적이고 선하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존재란 아마도 어떤 자연적 존재이거나 혹은 자연의 질서의 일부분 혹은 전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위대하게 생각되어 온 하나님은 미신에 지나지 않으며 매우 크고 자비로운 어떤 유령이나 혹은 엄청나게 크고 몸이 없는 거대한 목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새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영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소위 고등 교육을 받은 무신론자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현명한 철학을 의지하면서 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기독교인, 하나님이란 없어요. 내가 증명하겠소.”

“그렇습니까?”라고 기독교인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자, 우리의 오감(五感)을 사용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크리스천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냄새로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무신론자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봐요, 하나님이란 없어요. 당신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무신론자는 그곳을 떠러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잠깐만요. 저도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면서 그는 “그래 무슨 말을 하시려 합니까?”하고 통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무신론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제 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뇌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안절부절못하며 무신론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뇌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당신의 뇌를 만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자 기독교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논리에 따라 당신은 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뇌가 없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런 사람이 내뱉는 철학적 증언거품을 들어 보십시오. 스페리 박사(Willard L. Sperry)는 죽기 전에 하버드 대학 신학부의 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신성모독을 담은 자신의 저서 「영원 속에서의 사람의 운명」(*Man's Destiny in Eternity*)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이라는 두 개념은 대개 함께 붙어 다녔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지옥이라는 교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천국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저는 스페리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음을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그가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다라도 그것 자체가 그로 하여금 그곳에 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음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종교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나 철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종교계 지도자 중에도 불신자가 많습니다. 영국 런던의 세인트폴 성당의 수석 사제였던 잉게(William R. Inge)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가 단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한 것은 전 우주에 대한 크리스천 사고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인 천국과 사람이 사는 지구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혀서 고통을 받는 지구 내부의 어떤 장소, 즉 지옥으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실 우주에는 실제로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데가 없다. 별들 너머 저 위에 창조자의 거주지로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을 장소로서 선택된 행성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다.

학식 있는 종교계의 지도자란 사람이 겨우 이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다면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스트리터(Canon B. H. Streeter)는 자신의 저서 「다가올 세상에서의 삶」(*The Life of The World To Com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학교나 혹은 찬송가에 나오는 천국이란 우리 지성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곳이다. 물론 지성인들은 죽어서 그곳에 가기를 원치도 않는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리터는 분명히 자신이 천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스펀전, 집시 스미스, 빌리 선데이, 무디, 레스터 롤로프, 존 라이스, 잭 하일스, 제리 팔웰 그리고 스트리터만큼의 지성을 갖지 못한 명칭이 같은 우리 성경 신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상당히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신학자 볼트만(Rudolf Bult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이미 어떤 존재로 있었다는 개념과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한다는 개념은 내게 전혀 무의미하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이란 것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록 이 같은 종교적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무의미하다고 했을지라도 이 사실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것처럼 인정받는 학자가 그렇게 어리석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등 교육’ 혹은 ‘많은 교육을 받은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어라 이야기하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즉 천국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요6:38).

비록 볼트만의 비위를 거스를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람보다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천국이 장소(place), 즉 처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카고는

장소입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장소이고 덴버도 장소입니다. 화성도 장소이며 금성, 목성도 장소입니다. 물론 천국도 장소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조그만 뇌를 갖고서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자여, 이제 이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신학자 불트만이며, 이제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까? 스트리터여, 당신도 이 사실을 들었습니까? 잉계 사제와 스페리 박사여,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천국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독자여, 제 말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 관해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책, 즉 성경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을 우습게 여기고 이 책을 믿는 우리를 중상모략해도, 또한 성경책이 구식이며 따라서 현대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 있는 단 한 단어도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이 지구가 큰 거북이 등 위에 얹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같이 어리석은 이론을 제기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책은 이 지구가 텅 빈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분[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욘26:7)

우주인들이 외계로 나가 지구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돌아왔을 때 누가 부끄럼을 당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이지요! 거북이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현명한 사람들은 다윗 왕이 “빵은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한다.”(시104:15)라고 말했다 때 크게 비웃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많은 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보게, 글썄 빵이 심장을 강하게 한다는군. 많이 가져오게나. 구식의 먼지 쌓인 책이 빵이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말하더군. 참으로 웃기는 일이야.”

그런데 최근의 의학 연구를 통해 빵의 원료인 밀의 씨눈이 손상된 심장을 고치며 더구나 이것이 예방용 약으로 복용되면 실제로 심장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밝혀냈을 때 도대체 누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밀이 사람의 주식인 빵을 만드는 주원료로서 4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때 그를 매우 비웃었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느니라(전1:7).

자기 지혜를 자랑하면서 이들은 솔로몬이 지혜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바다가 넘쳐서 결국 다 죽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솔로몬은 사람이 지구를 지도로 그리기도 전에 이미 성령님의 영감을 받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정통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위대한 창조자께서는 이미 물이 증발되어 순환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이 세상의 박사들이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기도 전에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옛적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온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시 119:80).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해도 결코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이 틀렸다고 주장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끄럽게도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발언들은 그들의 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쳤습니다.

크리스천 독자여,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며 절대 무오한 규례들 안에서 확고히 서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하사 1611년에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이 귀중한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십시오.<sup>3)</sup> 그러면 당신의 발은 딱딱해서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기초 위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정확하고 올바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천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도다(시115:15-16).

---

3)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펴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질문: 땅이 존재합니까?

대답: 물론이지요.

그런데 땅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하시는 곳, 즉 천국도 만드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질문: 천국이 존재합니까?

대답: 물론이지요.

비록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불신자들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인은 위와 같은 확실한 사실에서 어떤 것도 제거하지 못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말하는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에 한 무리의 고고학자들이 사해 근처에서 잿더미 속에 있는 그 도시들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비방하던 자들은 마치 개가 꼬리를 밑으로 내린 채 도망치듯이 슬그머니 입을 다물고 도망쳤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명의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광범위한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자신들의 발견에 대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들은 성경이 파라오(바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언급된 파라오 중 하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레미아서 44장 30절에 언급된 파라오호브라란 인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간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집트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던 다른 고고학자들이 그에 관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틀렸습니다.

소돔이 확실히 존재했듯이, 고모라가 확실히 존재했듯이, 파라오호브라라는 이집트 왕이 존재했듯이 천국 역시 존재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떤 사교 지도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sup>4)</sup> 추종자들, 제칠일 안식교인들<sup>5)</sup>, 여호와

---

4) 크리스천 사이언스: 1879년 메리 베이커 에디가 미국에 세운 교단. 이 교단에는 거의 3,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속해 있고 이 가운데 1/3가량이 미국 밖의 56개국에서 개신교 전통이 강한 지역들에 자리 잡고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다윈의 진화론, 성서비평학,

의 증인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상한 생각을 하며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무덤 속에 있는 몸속에서 자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이란 사람은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The Worldwide Church of God)의 대사제 노릇을 합니다.<sup>6)</sup>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 하나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1,000달러를 주겠다고 공공연한 약속을 합니다. 그의 추종자인 테드(Garner Ted)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구절에 이것을 담아 놓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그 밖의 세속화 영향이 개신교 정통 신앙의 초자연적 구조를 잠식하던 19세기 말 미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에디 부인의 추종자들은 1866년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탄생시켰다. 당시 에디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병 고침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동안 과거에 큰 사고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이 씻은 듯이 낫는 경험을 했다. 이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에디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삶의 방향을 바꾼 듯하며 이때부터 오랫동안 성서 연구와 집필에 정열을 쏟았고 치유 실습을 심도 있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끌어 낸 결론들을 시험했다. 1879년 에디 부인과 추종자 15명은 ‘초기 그리스도교와 후대에 상실된 치유 요소’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과학자 그리스도의 교회’(크리스천 사이언스 제일교회)를 설립했다. 그 뒤 1882-89년에 이 운동은 안정되고 항구적인 성장을 계속했는데 주로 에디 부인이 1881년에 설립한 ‘매사추세츠 형이상학 대학’ 출신 학생들이 벌인 치유 사역에 힘입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5)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재림파의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1782-1849)는 그리스도가 1843년 3월 21일에서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재림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날에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추종자들은 1844년 10월 22일을 두 번째 재림일로 정했다. 이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 버리자 ‘대실망’이라 불리는 일이 일어났다. 밀러의 예언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활동한 사람으로는 J. 화이트(1821-81)와 그의 아내인 E. H. 화이트(1827-1915)를 들 수 있다. 밀러파라고 불린 이 재림론자들은 밀러가 정확한 날짜를 제시했으나 그날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니엘서 8-9장을 읽은 뒤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일’, 즉 조사(調査)의 성격을 띤 심판을 시작했고, 그 뒤에 심판을 선고하고 판결을 집행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1844년에 실제로 시작된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전부 조사하는 일이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그리스도가 나타나 1,000년간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요일 대신 제7일(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재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 밀러파들은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공식적인 교파를 형성했으며 화이트 여사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었다. 한편 밀러의 추종자인 커밍스(1852년경 활동)는 조건적 불멸성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했다. 죄로 인해 인간은 불멸성을 상실했고,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 재림 시에 신실한 자는 생명으로 돌아가고 불의한 자는 소멸된다고 한다.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러셀(1852-1916)도 재림파의 영향을 받았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6) 암스트롱은 여호와의 증인들과 안식교 등을 배회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취했고 자신을 사도요, 마지막 때의 엘리야라고 부르며 안식일을 지키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주창하였다. 그는 또한 영국을 포함한 앵글로·색슨족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론을 폈다. 그는 안식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고 또 죽은 뒤에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쳤다(윌리엄 백과사전).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몇 구절을 모아서 과연 성경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요6:35, 38).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요3:31)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마6:9)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 옆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며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 계셨으므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셨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하늘로) 되돌아가신 것을 살펴봅시다.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께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요16:5, 10, 16).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하늘(천국)로 올라가는 것을 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

나?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나라(행1:11).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눅 24:51).

마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막16:19).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하늘)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히1:3).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므로 재림하실 때에 천국(하늘)에서 오십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빌3:20)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6-17).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십 일 뒤에 승천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천국에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순교한 스테반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행7:54-55, 59)

이 장면에서 독자께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히1:3).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암스트롱의 수치스러운

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스테반이 천국에 들어오게 되자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 주면 1,000달러를 주겠다고 암스트롱과 테드가 그 당시 스테반 주위에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빌1:20-24).*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죽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암스트롱 추종자들과 다른 이단 교도들의 주장이 옳다면 죽어서 크리스천의 혼은 춥고 어두운 무덤에 놓인 몸 안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익’입니까? 이런 비참한 일보다 저는 차라리 대낮의 햇살과 밤의 달과 별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무덤 속의 어둠보다 저는 차라리 폐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생동감 있게 지내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무덤의 어둠과 고독보다 저는 차라리 이 땅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자마자 천국으로 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죽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믿는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질문: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대답: 천국(하늘)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를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1장 23절에 ‘천국’(하늘)이라는 단어가 없으므로 암스트롱과 테드는 제게 1,000달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며(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죽어서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 간다면 빌립보서

1장 23절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해 주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아무 의식 없이 무덤에서 잠잔다는 이단 사상은 사탄의 헛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 ‘잠자다’(sleep)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크리스천이 죽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밤에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고 쉬운 것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행7:60).

스데반은 이미 천국에서 일어서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 제 영을 받아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만일 스테반의 영이 죽은 뒤에도 몸 안에 남아 몸과 함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자신의 죄들로부터 씻겼습니다(계1:5). 사망의 쏘는 것은 죄입니다(고전15:56).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들 가운데서 죽습니다(요8:21, 24).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죽게 될 때 사망이 쏘는 것으로 인해 무서운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며(고후5:17; 계14:13) 그의 죄들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망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15:55)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의 문으로 들어설 때는 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아픔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물론 몸은 무덤 속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혼은 바로 그 사람 자체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그러므로 구원받은 경우에 그 사람 자체는 천국에 가며(빌1:23)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옥에 갑니다(눅16:22-23).

자,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크리스천의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후 5:1).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에 나오는 ‘장막’, ‘건물’, ‘집’ 등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 몸이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더 읽어 보십시오.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별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후5:2-4).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 보면 땅에 있는 이 몸속에서 우리가 아픔, 병, 노화 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치 현 옷을 벗듯이 우리의 혼으로부터 이 몸을 벗어 버리고 천국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 입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별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자마자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몸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땅에 있는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 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을 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혼이 무덤 속에 있는 몸 안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이단에 속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암스트롱과 테드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전2:14). 성경은 사람의 혼이 몸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랏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을 때에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나민이라 하였더라(창35:16-18).

얼마나 확실합니까? 라헬의 혼이 떠나기까지 라헬은 죽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몸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혼과 함께 사람을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산 채로 매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명백한 살인 행위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이 점을 더 명확히 해 줍니다. 그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벧후 1:15).

그런데 바로 전에 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같이 내가 머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벧후1:13-14).

만일 죽은 뒤 혼이 몸 안에서 잠잔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자기 몸을 벗어 버리겠다고 말했을까요? 암스트롱과 테드는 이것에 대해 대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논의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고후5:6)

물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람이 죽으면 혼이 잠잔다고 가르치는 이단 교리가 맞을까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암스트롱과 그의 추종자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같은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봅시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몸을 떠납니다.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혼이 몸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떠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뒤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천국으로 갑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무덤에서 잠잔다.”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혼이 부활하면서 새 몸이 되기 위해 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부활 뒤에는 영원토록 새 몸 안에 머물러 있다면 도대체 언제 그 사람이 몸으로부터 떠나 있게 됩니까?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혼이 언제나 몸 안에 남아 있다면 베드로는 언제 그 몸을 벗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같이 어리석은 사고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딤후3:7).

더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계 4:1-2).

좋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6장 역시 천국에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시리이까? 하더라(계6:9-10).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암스트롱을 포함한 이단 지도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직 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암스트롱과 테드에게 묻습니다.

“만일 죽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독자께서는 어리석은 이단 교도들이 본성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쓰여 있는 것조차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이런 자들을 쫓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더 말씀드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들에 대해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떠나온 본향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히11:13-16).

같은 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시니라(히11:10).

질문: 기초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만드신 이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 더 좋은 나라, 즉 천국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이 도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 도시는 천국에서, 즉 하늘에서 땅 쪽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그 도시가 천국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천국의 도시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간 곳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히

12:22-24).

자, 천국에 누가 있으며 무엇이 거기 있는지 살펴봅시다. 천국에는 먼저 다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는 자체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
2. 뿌리는 피: 이 피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을 통과하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셨고 문자 그대로 천국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mercy seat, 시온소)에 그것을 뿌리셨다.

또한 위의 성경 말씀은 여섯 종류의 존재가 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1. 재판관 하나님: 이분은 천국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2. 중재자 예수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심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살펴보았다.
3. 셀 수 없는 천사들: 성경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음을 알고 있다.<sup>7)</sup>
4. 총회: 이 모임은 아벨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계5:9). 그리고 이 총회 안에는 다음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
5.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예수님은 처음 나신 분, 즉 으뜸이신 분이시다(롬8:29; 골1:15, 18). 따라서 그분 자신의 신약 교회는 그것 나름대로 천국에서 분류가 된다.
6. 의인들의 영: 의롭다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다(롬5:1). 따라서 구원받으면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롬8:30).

명백히 암스트롱주의자들은 눈이 멀어 뒤에 나오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땅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휴거'라 부르는 사건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

7) 천사에 대해 좀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시는 독자는 레이시 박사님이 지은 「천사와 UFO 바로 알기」(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를 참고하기 바란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3-17).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며 그들의 몸은 지금 무덤에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활짝 깨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과 함께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라 말합니다.

질문: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실까요?

대답: 천국(하늘)에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며 또한 그분께서 천국으로부터 오시므로 이 성도들은 현재 천국에 있습니다. 암스트롱이여, 제발 이 말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기에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천국으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 같은 결론은 암스트롱이나 것처럼 어리석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는 상반됩니다.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 문젯거리로 남아 있는 것을 해결해 드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서 이 땅의 아랫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실화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부자와 구원받은 거지가 죽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눅16:22-26)

위의 성경 말씀을 통해 독자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의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안위를 받긴 하지만 그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간 사람은 단지 에녹(창5:22-24; 히11:5)과 엘리야(왕하2:9-11) 두 사람뿐입니다. 물론 성경은 확실하게 에녹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는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당신이 있는 곳에 갖다 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누군가를 당신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다면 그것은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요일4:9).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땅으로 보내어졌을 때 천국을 떠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가 천국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삶의 햇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곧 백칠십오 년이니라.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창25:7-8)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백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지옥의 불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의 수장(首長)으로 만드셨고 그때부터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렸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천국을 쳐다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행7:55). 구원받지 못한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보았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있던 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께서 복음서들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대해 언급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을 ‘천국’(Heaven)이라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곳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요14:2).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절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를 ‘천국’(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청원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42-43).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강도에게 그가 자신과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 그분께서는 분명히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낙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천국’, 즉 ‘하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하늘)과 ‘낙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낙원이 땅속에 있었으며 지옥과 맞닿고 있는 ‘큰 구렁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4:8-10).

이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자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되올라가시기 전에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상태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돌아오시면서 낙원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들이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의 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환난기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단12:1-3, 13; 사26:12-19).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2-24절의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땅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심으로써 자신이 강도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강도는 같은 날 땅의 아랫부분의 낙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다른 모든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그 강도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는 딜론이라는 마을의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딜론이라는 마을이 있던 계곡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주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딜론은 물로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딜론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나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원에 대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아랫부분 낙원에 있던 모든 혼들을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원은 더 이상 땅속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후12:2-4).

독자께서 사도행전 14장을 공부하시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 사람들에게 버려진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독자께서 참으로 낙원이 땅의 중심부에서 천국으로, 즉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에덴동산 안에 있던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1:23; 22:2).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상형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강도를 만나셨던 곳, 다시 말해 땅 아랫부분에 있던 낙원이 이제는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천국 곧 셋째 하늘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제2장

# 천국의 위치



*Location of Heaven*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이 실제로 있으며 문자 그대로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실제로 세 종류의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느끼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이 하늘 안에서 새들과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행기에 대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으며(렘4:25)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성좌들이 있는 별들의 하늘입니다.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사13:10).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즉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려하리이까*(대하6:18)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히9:24).

이번 장에서 우리가 다룰 천국의 위치라는 주제에 대해 적절히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하늘들의 창조로 돌려야만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늘들의 하늘, 즉 셋째 하늘의 창조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이 있는 별들의 하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천사들이 셋째 하늘에서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성경의 하늘들’ 선도 참조, 225쪽).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네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모퉁잇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4-7)

창세기 1장 1절은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의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중에서 실제로 창조의 사역을 도맡아 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 즉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요1:3).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요1:10)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엡3:9).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골1:16).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히1:1-2).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매우 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둘레가 40,000km, 지름이 13,000km나 됩니다. 무게는 약 6,600,000,000,000,000,000톤이나 됩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입니

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더군요. “오! 훌륭한데! 지구에 물이 그렇게 많은 것은 내 생애의 3분의 2 동안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일 거야!”

지구의 나머지 3분의 1은 육지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지구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구에 충분한 공간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이 마음에 품게 된 커다란 의문 중에 하나는 우주의 나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구의 나이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ی 없다고 믿고 있는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약 50억 년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우주는 약 200억 년이나 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의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생물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 40억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추측과 계산에 대해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원래는 있어야 할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 link)<sup>1)</sup>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지구에 약 5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주후 2000년에 지구상에 8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며 지구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아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는 단지 약 1억 명의 사람들만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한번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부터 단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1억의 인구는 60억에 가까운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 나온 이후로 5억 년이 흐르는 동안 인구가 겨우 1억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독자에게 진화론자들의 ‘잃어버린 연결 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진화론자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롬1:28)

---

1) 잃어버린 연결 고리(missing link):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예상되는 두 생명체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할 중간 생명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만약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되었다면 파충조류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그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중간 생명체를 ‘잃어버린 연결 고리’라고 부르며 이 사실만 보아도 진화론이 허구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오직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진화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속에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진리를 멸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고안해 냅니다. 성경을 제외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만들어 냅니다.

그리하여 여러 해 동안 천문학자, 지질학자, 물리학자들은 소위 조수 이론, 충돌 이론, 핵분열 이론, 성운 이론, 전자기 이론, 신성 이론 그리고 쌍성 가설 등을 고안해 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들의 정직함만은 신뢰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들의 타락한 생각들 중에서 여섯 가지에는 ‘이론’(theory)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가설’(hypothesis)이라는 말이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웹스터가 펴낸 사전에 따르면 이론이라는 단어는 ‘추측, 짐작,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가설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주 정확하게 이런 단어를 풀이해 놓았습니다! 이론을 아무리 많이 모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증명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독자께서는 위에서 말한 여섯 가지가 ‘이론’이라 불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이론이 아닙니다! 창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그 사실을 자신의 책에 손수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히11:3).

타락한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의 진리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벧후3:5).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습니다(고전1:20). 저는 우주의 나이가 6,000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하고도

명백한 목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주셨도다(시 115:16).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18).

자,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도록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무려 150억 년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창조하여 그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단지 약 6,000년 전에 6일 만에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지구가 매우 오래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을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와 우주가 겉보기에 매우 오래된 것같이 만드셔서 진화론자들이 심판의 날에 자기 앞에 섰을 때 타락한 마음의 그들을 꾸짖고 조롱하실 것입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시2:4-5)

이제 잠시 멈추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타락한 마음을 소유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앉아 있는 학생 중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증언들(성경 말씀)이 내 목상거리이므로 내 모든 스승들보다 내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고(시119:99)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생이나 박사 학위를 소유한 교수는 성경을 믿는 순수한 학생을 알잡아 봅니다. 그들은 그 학생이 정신적으로 연약하며 아주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고전1:27).

‘어리석고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

세상의 ‘지혜로운’ 선생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해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침묵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8:2).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 교수,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성경을 믿고 이해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잠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으로 볼 때 시편 8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창조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 보십시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시8:3)

‘어리석게 보이는’ 성경 신자들은 종종 지혜로운 체하는 진화론자들을 구석에 몰아붙이고 잠잠하게 만듭니다(사실 저는 이렇게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장차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기록을 조롱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또 지구가 진화하기 위해 수십억 년이 걸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이 고안한 탄소 연대 측정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여 주실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우주를 길보기에 매우 오래된 것처럼 만드셔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늘들을 연구하여 수십억 광년이 떨어진 곳에 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빛으로 일시에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있게 하실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창조자가 계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과 암석을 연구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들의 ‘시험법’을 적용합니다. 저는 무신론주의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조롱하시는 그날에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까 생각해 봅니다. “200억 년 동안의 진화라?... 그래? 허허허! 내가 너를 속였구나! 이 모든 우주는 단지 6,000년밖에 되지 않았느니라!”

제가 독자에게 지구나 우주의 ‘길보기 나이’에 대해서 말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독자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저와 함께 주님이 진흙 덩어리를



사용하사 아담을 창조하셨던 6,000년 전 그때 당시로 한번 가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창2:7-8)

이제 서 있다가 정원을 통과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아담을 지켜보십시오. 아담을 한 번 쳐다보십시오. 그가 몇 살이나 되어 보입니까? 스무 살? 스물다섯 살? 아니면 서른 살? 아담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성인 남자입니다.

제가 방금 제안했던 세 나이의 중간, 즉 스물다섯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는 실제로 몇 살입니까? 그의 나이는 단지 10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겉보기 나이를 스물다섯 살로 하셨지만 그의 실제 나이는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서는 그 어떠한 생리학자도 아담을 조사해 보고 나서 그가 스무 살 이상 되었다고 여러 권의 과학책을 쌓아 놓고 맹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리학자가 과연 옳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리학자에게 창세기 2장 7절을 보여 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전에 직접적인 창조 역사를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적혀 있는 성경 내용을 그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 생리학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낡고 오래된 책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담이 스무 살 이상 되었다는 것을 내가 구입한 최근의 과학 기구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 기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겉보기에 스물다섯 살처럼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제 나이는 1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적용하는 모든 테스트는 단지 그들 자신을 당혹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상상의 장면을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관심을 아담으로부터 돌려서 정원의 뜰에 있는 암석들을 한 번 쳐다봅시다. 현대 지질학자를 정원 안으로 불러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암석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지질학자는 암석을 잘라서 가루로 만들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는 “이 암석들은 50억 년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갑자기 천국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모든 지구를 내가 어제 창조했느니라. 그리고 아담은 오늘 창조했느니라!”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의 머리아말로 돌덩어리입니다. 독자 여러분,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의 책에 적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장차 이러한 무신론적 과학자들에게 친히 보여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고전1:20)

하늘들의 하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세 가지 하늘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 1. 대기권의 하늘

지구를 덮고 있는 것은 대기권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주머니는 대류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공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대류권은 지구 표면에서부터 높이 30km까지의 구간입니다. 구름들은 표면에서 약 10km까지의 높이 안에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으로부터 30km에서 40km까지의 공간은 성층권이라 불립니다. 그다음 영역으로 고도 40km에서 70km까지는 중간층입니다. 전리층은 70km부터 500km까지의 높이에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외기권은 500km부터 시작하여 측량할 수 없는 곳까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부르면서 종종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 1. 비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며(신11:11)

### 2. 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사55:10-11)

### 3. 서리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욘 38:29)

### 4. 이슬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창27:39).

### 5. 우박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뱀호론으로 내려가는 비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돌들을 그들 위에 내리시므로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수10:11).

### 6. 바람

호, 호, 나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슌2:6).

### 7. 천둥과 번개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흠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수셨도다(삼하 22:14-15).

하나님께서서는 첫째 하늘의 대기권을 ‘공중’(air)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독수리(즉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간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를 가리켜 ‘공중의 날짐승’이라고도 하십니다(잠23:5; 마6:26을 읽어 보십시오). 또한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 불립니다(엡2:2).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채여 올라갈 것입니다(살전4:17).

## 2. 별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이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하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사 이 가운데 더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보다 작은 광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에 빛을 주게 하셨습니다(창

1:16-17).

우리는 둘째 하늘을 쳐다봄으로써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아브라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창15:5).

욥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하늘에 있는 ‘고정되어 있는 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욥9:8-9)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 위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 천체들을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체들은 점쟁이들이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별이나 행성의 이동이나 위치로 미래를 예언하려 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십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신18:10-12).

독자께서는 ‘때를 관찰하는 자’와 ‘마법사’가 동등하게 여겨지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점성술사들은 점쟁이와 요술사들입니다. 별들을 ‘읽고’ 하늘의 12궁도로 한 달 한 달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사악한 것이며 타락한 마술이나 요술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강신술회<sup>2)</sup>, 마녀가 자주 이용하는 수정 구슬점 보기, 홍차 잎사귀로 점치기<sup>3)</sup>, 손금 보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점판 그리고 모든 다른 종류의 마법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기만하고 있습니다. 천궁도로 별점을 치는 것은 마귀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술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 
- 2) 영매(靈媒)에 의해 죽은 자의 영혼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모임
  - 3) 홍차를 따랐을 때 차 잎사귀가 뜨면 누군가가 찾아든다고 하는 속신(俗信)

이스라엘이 마법에 현혹되어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천둥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술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고하십니다.

한 날 한 순간에 자식들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치리라. 너의 많은 마법과 심히 풍성한 마술로 인해 그것들이 완전한 상태로 네게 닥치리니 이는 네가 네 사악함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네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으며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굽게 하였으므로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해악이 네게 닥치되 네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악한 일이 너를 덮치되 네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으리라. 황폐함이 네게 갑자기 닥치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제 네가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네 마술과 많은 마법을 가지고서 보라. 혹시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리하고 혹시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네가 너의 많은 계획으로 인해 피곤하게 되었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네게 닥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같이 되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리니 곁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솟도 없고 앞에 있으므로 *사람이* 앉아서 *몸을 데울만한 불도* 없으리라(사47:9-14).

이 세상에서 마술사 디슨(Jeane Dixon)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광체들은 예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시다! 마술사들과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불 호수’(Lake of fire)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성경 속에 넣으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크기는 사람이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크다는 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 길이와 너비를 잴 수 있는 방법은 모릅니다.

지구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400,000km입니다. 지구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km입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400,000km이며 태양은 지구보다 330,000배나 큼니다.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속에서 태양은 단지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서 하늘에서의 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니 km를 측량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성가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측량 단위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주에서의 거리를 측정할 때 광년(light year)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빛은 1초에 약 300,000km를 달립니다. 따라서 1분 동안에는 약 18,000,000km

를 갑니다. 이것은 단 1초에 둘레의 길이가 40,000km인 지구를 일곱 바퀴나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빠른 빛이 8분 동안 가는 거리만큼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말하므로 9조 5천억 km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직경이 100,000광년이나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큼 거대한 은하계들이 적어도 10억 개는 더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은하계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1,500,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10억 개의 은하계 안에는 각각 최소한 천억 개의 별이 들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이 더 크고 더 성능이 좋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하면 할수록 더욱더 멀리 있는 은하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탐구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적어도 별들의 개수는 1억 5천만 개가 백만 개나 되고 그러한 것이 또 백만 개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즉 150,000,000,000,000,000,000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실로 경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별마다 각각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수효대로 이끌어 내시고 자신의 큰 강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분은 권능이 강하시므로 그중 하나도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느니라(사 40:26).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시 147:4).

150,000,000,000,000,000,000개의 서로 다른 이름을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여기에다 더 있을지도 모를 별들을 생각해서 백만 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별들의 개수를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시147:5).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요? 그 별들에는 아주 멋진 신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탐험하고 즐기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무한개의 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들을 다 탐험하기

위해서는 무한정의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모든 우주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소유가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히1:1-2).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롬8:16-17).

### 3. 하늘들의 하늘

솔로몬은 노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왕상8:27)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시139:7-8).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렘23:24)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수2:11).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친히 선택하신 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집중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57:15).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거처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사 63:15)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채여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후12:2-4).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일곱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중 다섯 가지는 사는 것 혹은 거처와 같은 개념입니다.

## 1. 성막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계21:3).

문맥으로 볼 때 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천국(하늘)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히8:1-2).

## 2. 성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집중시켰을 때 성소에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출25:8).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역시 성소입니다. 그곳은 또한 ‘거룩한 곳’



또는 ‘지성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9: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히10:19)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히8:1-2).

### 3. 집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рода(시23:6).

여기서 다윗이 셋째 하늘을 주의 집으로 말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시65:4).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하나님은 셋째 하늘이 지금 자신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리켜 ‘집’이라 하십니다.

### 4. 처소

[그분께서] 자신의 거처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시 33:14).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함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거처에서부터 바라보시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사 63:15)

사람의 처소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는 천국, 즉 셋째 하늘입니다.

## 5. 성전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귀에 들어갔도다(삼하22:7).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대하7:14).

대언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왕좌가 있는 장소와 스랍들이 하늘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주목하여 읽어 보십시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6:1)

성경은 확실하게 천국, 즉 셋째 하늘을 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섯 가지 단어들, 즉 성막, 성소, 집, 처소 그리고 성전은 모두 명확하게 천국을 거주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쓰인 나머지 두 단어는 천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 6. 영광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복음 성가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곡이 천국을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올바른 성경적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둘째 편지에서 자신이 변화산 정상에 서 있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천국에서부터 우리같이 울려 퍼졌던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벘후1:17-18).

여기서 베드로는 분명히 천국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딤후3:16).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을 ‘영광’이라 부르는 것이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곳이야말로 장차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요17:24).

형제자매들이여! 지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을 보게 될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소리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천국이 ‘영광’이라는 적합한 단어로 불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 7. 회중의 산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좌를 무너뜨리며 천국을 자신이 떠맡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뒤 루시퍼는 천국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사건을 회상하시며 루시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사14:12-14).

천국은 높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사57:15) ‘산’이라는 말이 쓰였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군대를 모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회중의 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을 하리라.”(I will……)고 다섯 번이나 말했을 때 루시퍼는 ‘구름’ 밑에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보다도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사 14:13).

이 장에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주제인 천국의 위치가 바로 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확고히 믿는 미국 내의 교회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리켜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 99퍼센트는 자기들의 머리 위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위쪽’을 가리킨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셈이 됩니다. 만일 호주에 사는 사람이 같은 식으로 방향을 가리킨다면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지구에 살면서 자신의 머리 위쪽 방향을 가리켰을 때 천국, 즉 셋째 하늘을 정확히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북극에서 서 있는 사람뿐입니다!

천국이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구의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천국은 ‘위쪽’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지구를 출발해서 천국에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북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도시 곧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그분*을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사48:1-2).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도 때때로 ‘시온’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만드신 바로 그 도시입니다(히11:10). 지구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북쪽에 있으나 나사렛에서 보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 어느 곳의 남쪽에 있지 않으면서 지구에서는 북쪽에 있습니다. 어떤 복음 성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것을 보려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행1:11; 살전4:16). 그런데 셋째 하늘, 즉 천국은 북쪽에 있습니다.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오(욥9:8-9)

하나님께서 왜 남쪽에 우주의 방들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이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을 천국의 남쪽에 만들어 놓으셨습

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구에 좀 더 큰 관심을 집중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구 사이에 있는 별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라 하더라도 북쪽 하늘에 있는 V자 형태의 커다란 진공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북극성만 그곳에서 스스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북쪽에 있는 천국과 남쪽에 있는 지구 사이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커다란 빈 공간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욘26:7)

지구가 천국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두 남쪽 사람이 됩니다! 쫓쫓쫓, 북쪽 사람들이여, 이 책을 던져 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갈 때 우리는 모두 북쪽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여,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 속에는 천국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주에 있는 높고 고상한 위치로부터 민족들의 운명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왕좌는 북쪽에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뻗뻗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시75:5-7).

하나님의 통치의 왕좌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위의 성경 말씀에서 ‘북쪽’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 즉 천국이 북쪽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의 훨씬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을 근거로 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 제3장

# 천국의 도시



*City of Heaven*

이 땅 위의 도시 중에서 영원히 남아 있을 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도시들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한 도시라고 주장했던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바빌론을 영원히 존재하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은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돔은 영원히 남아 있도록 지어진 도시입니다. 소돔의 성벽과 성문은 견고했기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적들은 모두 저지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소돔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돔의 옛터는 검은 잿더미로 남아 있으며 그곳은 사해 옆에 있는 평야, 즉 바람만 움직이는 벌판에 묻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창15:7). 우르라는 도시를 만든 사람들 역시 그 도시에 성벽을 만들었는데 땅속에 묻혀 있는 성벽의 깊이는 땅 위에 나와 있는 높이만큼이나 깊었습니다. 도시 내에 있는 건물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견고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우르는 깊이 박혀서 엄청나게 견고한 기초로 유명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우르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도시가 될 것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은 아브라함은 우르의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은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11:10).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쇠퇴해 가는 지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히 13:14)

옳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습니다. 훌륭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르조차도 무너져서 먼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은 일곱 개의 언덕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영원한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위대했던 그 로마도 다른 모든 도시들처럼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장차 임할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시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통해 그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분명히 천국에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찾으려 하던 도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던 도시, 실제로 영존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저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증명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는 천국(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새 예루살렘은 천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천국은 아닙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하나님께서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왕좌와 알현실 그리고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제단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공홀의 자리가 있는 지성소도 그곳에 있습니다. 천사들과 스랍들 그리고 그룹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의 성전과 성막도 그곳에 있습니다(사6:1-6; 히8:1-5; 히12:22-24).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궁전에 거하신다는 것과 거기에 순수한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아로 된 궁전들이 몰약과 알로에 그리고 계피같이 달콤한 향기가 나는 향료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는 금도 있고 세공한 금을 써서 정교한 바느질로 만든 옷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시45:6-15를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그 거룩한 도시와 관련되어 있고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천국은 모든 면에서 그 도시와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놀라운 곳입니다. 제가 천국에 관해서 독자에게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천국이 독자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더 웅장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존재하던 많은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멋진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휘황찬란한 도시를 보았을 때 그는 그 멋진 광경으로 인해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계22:8)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의식을 잃어버렸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구절을 읽어 보면 천사가 요한을 꾸짖어서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요한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는 것과 그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도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을 때 그 광경은 사실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분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천사 앞에서 엎드렸던 것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가 천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옛 예루살렘 역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날에 옛 예루살렘은 결코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새 예루살렘은 진실로 거룩한 도시입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을 때 옛 예루살렘은 세상의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뉴욕, 카이로, 베를린, 파리, 호놀룰루, 도쿄 등 모든 도시들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늘들과 땅을 불태우시고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하늘들, 즉 대기권의 하늘과 별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이 땅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벧후3:7, 10).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 하늘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깨끗하게 만드셔야만 합니다(엡6:12).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불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옛 땅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마찬가지로 이 땅도 불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불에 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들과 땅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했던 땅이 깨끗이 정리되고 다시 새로워져서 새 땅이 될까요,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까요?”

저는 지금 이 땅이 정리되고 정결하게 되어 새롭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전1:4).

하나님께서서는 땅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논쟁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흥미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쓰인 ‘없어지다’(pass away)라는 말은 그리스어 ‘파레르코마이’(parerchomai)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존재하던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또한 ‘전멸’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1611년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 우리 손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6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벧후3:5-6)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땅의 표면을 언급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격노로 말미암아 전체가 물에 잠겨 물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땅의 표면에 있던 모든 것이 멸망하였습니다. 땅의 기본 틀이나 형상은 훼손되지 않았고 오직 표면만 파괴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을 읽어 보면 처음에 물 침례를 받았던 바로 그 땅이 장차 불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땅의 표면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불도 이 땅의 표면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벧후3:7, 10).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움직여서 “한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확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신 뒤에 그것들을 다시 창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서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것처럼(고후5:17) 새 땅도 그런 방법으로 만드실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없앤 뒤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단순히 취하셔서 죽었던 저의 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요3:6; 엡2:1). 그런 뒤에 그분께서는 저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랫동안 죄로 물든 이 땅을 불로 깨끗이 하실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물질을 취하셔서 땅의 본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한번 천국의 도시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가]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상천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상천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계21:10-22:5).

제게는 매우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의 평생소원은 초콜릿

밀크셰이크에 푹 빠져서 그것을 실컷 먹는 것입니다. 이제 독자와 제가 새 예루살렘 도시를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한번 실컷 그 내용을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이 장엄한 도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열두 가지입니다.

## 1.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가]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계 21:10-11).

종종 이 땅에 있는 도시들은 매우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그 도시들을 내려다본다면 우리는 불규칙하게 쌓여 있는 듯한 주택이나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도시의 변화가 옆에는 빈민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훌륭한 도시라 불리는 곳들조차도 연기, 스모그, 공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빈민가가 없습니다. 그 도시는 깨끗하고 순수하며 쾌청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광명, 광택,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빛나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명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편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태워 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대하7:1-2)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서 그 집 문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 찼고 뜯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으며(겔10:4)

그[스데반]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행7:55)

내[바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 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행22:6-11)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에 제사장들은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 다마스쿠스(다메섹)의 길에서 그 광채를 보았을 때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요한이 밧모섬에서 그 광채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계1:17).

그 영광의 광채를 견뎌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뿐입니다(빌3:21).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즉시로 죽일 것입니다!

또한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견뎌 낸다 하더라도 그는 그 빛 가운데서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요3:19).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독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광채는 어떠한 분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히1:1-3).

형제자매여,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곧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요17:24).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도시를 걸으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계21:23).

옳은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던지 그분의 영광된 상태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굴과 태양’이라는 오래된 전설과 같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하늘 위에 있는 태양이 땅에 있는 동굴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굴은 태양을 걸눈질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이, 태양 형님, 형님은 내 어둠을 보아야만 합니다.”

태양은 난처해하며 동굴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라? 동굴 친구, 어둠이 뭐지?”

동굴은 말했습니다. “이리 내려와 봐요. 내가 형님한테 어둠을 보여 줄 테니.”

그래서 태양은 땅으로 내려와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양은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굴 친구, 자네가 말한 어둠이 어디에 있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느 곳이든지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계21:23).

우리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다.”는 계시록 21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도시의 빛은 어린양의 광채가 반사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 도시의 빛이 벽옥과 같은 색깔을 낸다고 말합니다. 벽옥은 무지갯빛이 분명히 있으며 그 빛같이 물결치듯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모든 무지갯빛들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이며 수정같이 맑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 2. 새 예루살렘의 기원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그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요한은 말씀합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그가]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계21:10)

이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직접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새 예루살렘의 설계자요 계약자요 건설자요 그리고 제작자입니다(히1:2).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그 도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신 도시, 즉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고대했습니다!”(히11:10).

천국을 별과 별자리 그리고 은하수와 행성들로 장식하신 하나님께서 손수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요14:2)

## 3. 새 예루살렘의 특징

### 1. 성벽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계21:12).

또 그[천사]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계21:17-18).

새 예루살렘의 사방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성벽은 높이가 144큐빗이나 됩니다. 요한이 살던 시절의 큐빗으로 계산하면 그 성벽의 높이는 약 66m가 되며 이것은 약 20층 건물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 거대한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 2. 대문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열두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고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었으며(계21:12-13)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계21:21).

이 대문들의 크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지만 각각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제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뜻은 그 대문들이 완전히 둥글둥글하게 깎여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진주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66m나 된다면 아마도 대문의 둘레는 최소한 10m 정도는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큰 진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주를 품고 있던 조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하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일 년 열두 달 등등). 그 도시의 열두 대문은 그 도시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대문 입구에는 각각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각각의 대문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주로 된 대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계 21:25).

결론은 간단합니다. 만일 그 도시에 밤이 없고 문들이 결코 낮에 닫히지 않는다면 그 문들은 영원히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않는다면 왜 그것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좋은 질문이며 답을 찾아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 문들을 통해 몰래 숨어 들어오려는 적들의 위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은 불 호수 속에 영원히 갇혀 있습니다(고전15:26; 계20:10, 14; 21:8).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대문은 없습니다. 그 대문들은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정말로 심오한 내용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독자에게 심오하고 현명한 신학적 해석을 보여 줄 것입니다. 제 말은 이것이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열두 대문이 그네를 탈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농장의 헛간이나 가축우리 사이에는 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재미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큰 대문의 끝에 매달려 “야호!”라고 외치며 그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도시에 가면 저는 그 대문에 뛰어올라, “야호! 끝내 주는데...”라고 외치며 그네를 탈 것입니다.

### 3. 기초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었으며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계21:14).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계21:19-20).

하나님께서서는 그 기초 하나하나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누가 열두째 사도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마태, 도마, (젊은) 야고보, 시몬 셀롯, 유다(야고보의 형제) 등 이렇게 열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열한 위선자였으며 지옥으로 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들에 그 이름이 새겨질 열두째 사도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맛디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한 명의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를 뽑았기 때문입니다(행1:23-26).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다른 네 명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도 사도였습니다.<sup>1)</sup>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1) ‘사도들 사이에서’라는 구절은 영어로 ‘among the apostles’이며 이는 그들이 사도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단지 사도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후자를 지지하지만 레이스 목사님은 전자를 지지한다.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롬 16:7).

바울 자신도 사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롬1:1)

주 예수 그리스도도 사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히3:1).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로 불린 사람들은 모두 열일곱 명입니다. 가룟 유다를 빼다 하더라도 열여섯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열두 기초에 새겨질 이름은 열두 사도의 이름뿐입니다. 열두째 사도는 누구일까요?

저는 주 예수님을 열두째 사도의 대상에서 쉽게 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두 이름은 ‘어린양의 사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양의 사도들 중 한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제 네 명이 남았습니다. 맛디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바울 중에서 누가 원래 열한 명의 사도들과 함께 그 기초들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을 얻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일 독자가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맛디아는 사도행전 1장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로마서 16장에만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고전15:9)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엡3:8)

주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마 19:30).

그분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23:12).

저의 결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성벽의 기초들에서 보게 될 열두째 사도의 이름은 바울일 것입니다.

이 장엄한 기초들은 각각 따로따로 구별된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 (1) 벽옥

이 보석의 빛깔은 무지갯빛을 모두 뒤섞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벽옥이 지혜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잠9:10)

첫째 기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3:11).

### (2) 사파이어

이 아름다운 보석은 짙은 청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파이어는 천국의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파이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의 지나간 모든 시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열두 기초 위에 지어진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8:24).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8:21)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기초 위에 놓인 그 도시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 (3) 옥수

오늘날 사람들은 이 보석을 마노라고 부릅니다. 이 보석의 색깔은 연한 노란색을 띠는 갈색입니다. 마노의 가장 잘 알려진 형태는 석화목(石化木)<sup>2)</sup>입니다!

이 기초는 우리에게 오래된 나무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 멀리 언덕 위에  
오래된 거친 십자가가 서 있네.  
그것은 고난과 수치의 상징!  
나 그 오래된 십자가를 사랑하리.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소중하고  
좋은 분께서 돌아가셨도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전1:18).

만일 독자께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셋째 기초가 있는 곳, 즉 석화목이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

2) 천연 나무의 세포 내부나 외부의 공동(空洞)에 주로 실리카(이산화 규소(SiO<sub>2</sub>))나 방해석(탄산 칼슘(CaCO<sub>3</sub>)) 같은 광물질이 침투하여 형성된 화석의 일종. 화석림(化石林)에서 석화된 나무는 규화목이며 나무의 조직이 옥수(玉髓: 은미정질 석영)에 의해 치환되어 있다. 이러한 치환은 종종 상당히 정밀하게 이루어져 외부 모양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까지도 정확하게 보존되고 있어 때로는 세포 구조까지도 감정할 수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4) 에메랄드

짙은 녹색을 띠는 에메랄드는 그것의 투명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투명하기 때문에 에메랄드는 거짓이나 허위를 발견하여 들추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떠한 모조품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다 추방당할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 (5) 홍마노

이 부드럽고 거무스름한 보석은 검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양각으로 무늬가 새겨져 있는 보석 세공품들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보석은 성경 시대에 결혼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홍마노는 결혼의 복(福)을 의미합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우리는 다섯째 기초인 홍마노를 통해 천국에서 거대한 혼인 잔치가 거행되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계19:7).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 (6) 홍보석

홍보석은 짙은 붉은색을 띤 단단한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만일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구속했다고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은 여섯째 기초가 있는 그 도시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 (7) 귀감람석

이 보석은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민간 전설에 따르면 귀감람석은 사람을 악한 열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흥미

있는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중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우리는 죄가 있는 곳에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 (8) 녹주석

녹주석은 인상적인 청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보석 상인들은 실제로 이 보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 보석이 나타내는 뜻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젊음 그리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열두 기초로 되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 (9) 황옥

황옥은 노란색, 분홍색, 청색, 녹색, 무색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보석을 우정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동양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 보석을 친구 간의 사랑의 표시로 건네주곤 하였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시에 저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저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실 것이며 제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오면 친히 저를 천국에 있는 도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도시의 아홉째 기초를 통해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아무에게도 없나니(요15:13)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있느니라(잠18:24).

### (10) 녹옥수

이 보석은 푸른 사과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보석의 색깔을 표현할 때마다 ‘푸른 사과빛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녹옥수는 기초들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비유된 유일한 보석입니다.  
갑자기 생명나무 열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군요.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그 도시에 가서 유쾌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파티를 갖게 될 것입니다(사실 거기서는 먹는 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26:29).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겨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눅22:29-30).

### (11) 청옥

이 보석은 오늘날 우리가 청옥(jacinth)으로 알고 있는 보석이 아니라 먼 옛날 ‘풍신자석’(hyacinth)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보석입니다. 풍신자석은 짙은 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한째 기초를 볼 때마다 제가 지은 죄들을 생각합니다. 같보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죄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왜 진홍색을 보면 당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하십니까? 죄는 시커먼 색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주일 학교 선생님들을 지켜보십시오. 주일 학교 선생님들은 늘 검은 종이를 교육용 자료로 이용하며 죄를 검은색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진홍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홍색은 짙은 붉은색을 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때에는 그것을 검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붉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이제 저의 죄가 희다고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열두째 기초의 색깔이 진홍색인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12) 자수정

이 귀중한 보석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자수정은 매우 비싼 보석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보석들 중에서 매우 비싼 보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따라서 자수정은 풍요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풍요함이 아납니까?

영생이 풍요함이 아납니까?

천국이 풍요함이 아납니까?

새 예루살렘이 풍요함이 아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8:9).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열두째 기초를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서 저를 가난뱅이에서 부자로, 빈곤에서 번영으로, 노동과 수고가 가득한 곳에서 궁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사랑의 구원자여!  
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벽의 기초들로부터 하나님 도시의 거리로 관심을 바꿔 봅시다.

## 4. 거리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계21:21).

저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노래들을 지금까지 살펴보

아 왔습니다. 설교자들은 설교단에 올라가서 그 도시의 거리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거리는 금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처음에 암석으로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로 토대를 만들고 단단히 다져진 흙을 덮습니다. 그런 후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시에 있는 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리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매우 맑기 때문에 독자께서는 순금만으로 되어 있는 길을 수 킬로미터나 내려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금을 치켜세웁니다. 또한 우리는 금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는 그런 귀중한 금 위로 걸어 다닙니다!

열두 개의 주도로가 열두 대문으로부터 안쪽으로 나 있는데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개의 주도로는 다 그 도시의 중앙으로 모이는데 그곳은 할렐루야 광장이라는 곳입니다! 오, 영광이여! 형제자매여, 밖을 쳐다보십시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광장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 5. 건물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멋진 관광을 하면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곳에 금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만 금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도시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계21:18).

큰 길들을 이곳저곳 오르내리며 건물들을 보면서 요한은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물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수정같이 맑았습니다(계21:11)! 금으로 된 벽! 금으로 된 지붕! 금으로 된 문! 금으로 된 현관! 금으로 된 바닥! 금으로 된 창틀! 금으로 된 문손잡이! 금으로 된 바닥 매트! 금으로 된 초인종! 형제자매들이여, 지금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건물들이 있을까요?

이 책의 5장에서 우리는 그 도시에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곳에는 거할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역표준역」(RSV)같이 변개된 성경들은 천국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성경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개된 성경의 번역자들은 성경이 천국을 ‘주의 집’(시23:6)으로 표현할 때 그 집이 천국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방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마리아는 난잡한 여자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히 ‘거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들이 부르는 어리석은 노래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한 모퉁이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여! 이 세상에서 살 집은 오두막집이라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천국에 제가 거할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새 예루살렘의 크기

요한이 천사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천사는 금으로 만든 갈대, 즉 측량할 수 있는 갈대 막대기를 만들어 주었고 계속해서 그 도시의 문과 성벽과 도시 자체의 크기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문의 치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벽과 도시의 크기는 기록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으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계21:15-16).

우리는 이미 그 도시의 성벽의 높이가 144큐빗, 즉 66m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는 모두 12,000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은 200m가 조금 넘는 길이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도시는 길이가 2,400km, 너비가 2,400km 그리고 높이가 2,400km 정도 됩니다!<sup>3)</sup>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별과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도시를 지으실 때 그것을 매우 거대하게

3) 스타디온에 대해서도 조금씩 견해가 다르며 어떤 이들은 이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240km라고 한다.

만드셨습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이 유럽 대륙에 만들어졌다면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구 프로이센) 그리고 러시아의 대부분을 덮었을 것입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만들어졌다면 멕시코만, 캐나다의 대부분 그리고 콜로라도와 캔자스주의 경계부터 대서양 연안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런던 또는 뉴욕 같은 이 세상의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에 가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면 몇 시간 안에 그 도시의 경계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부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면 가장 가까운 대문에 닿기 위해 1,200km나 걸어야 합니다!

이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을 고쳐 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의 신학자, 학자, 설교자, 교수 그리고 일반 크리스천들은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있는 그 도시는 정육면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foursquare)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계 21:16).

신뢰할 수 있는 웹스터 사전을 보면 'foursquare'란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foursquare'란 단어가 말 그대로 정사각형(square)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자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 교과서를 보면 정사각형이 '길이가 같은 네 개의 변과 네 개의 직각으로 된 평면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교과서에서 정육면체는 '동일한 여섯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육면체는 직각인 모퉁이가 총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처럼 되어 있다면 성경은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스물네 개의 직각으로(twenty four square) 되어 있어...

따라서 그 도시는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foursquare)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계 21:16).

그 도시의 기초는 정사각형입니다. 그 도시에는 단지 네 개의 직각이 있으며

그 기초는 그 네 개의 직각 모서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구조로 볼 때 더 이상의 정사각형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합니다.

그 도시는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계21:16).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하학적 도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 어떤 변과도 길이가 정확히 같습니다. 피라미드에 있는 유일한 직각은 그 기초에 있는 네 개뿐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와 어린양의 왕좌는 분명히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강은 그 왕좌로부터(계22:1) 네 개의 벽면으로 아래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 5.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매우 이상한 것을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계21:22).

과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전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한 곳이었다. 그가 자신의 통치 제사년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대하3:1-2).

이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모든 일이 끝나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 즉 은과 금과 모든 도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 보고들 가운데 두었더라(대하5:1).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이니이다, 하고 왕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축복하였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다.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집을 건축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도시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해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게 하였으며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이에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나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으니 네가 그 일을 할 마음을 품음으로써 잘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허리에서 나올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좌에 앉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였으며(대하6:1-10)

내가 전에 그 무리와 함께 갔으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가되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면서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 내는도다(시42:4).

오 군대들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참으로 기진하오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오 군대들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참으로 참새가 집을 찾았고 제비가 제 새끼를 돌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시 84:1-4).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저기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잘 짜인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해 거기로 올라가나니... 내가 내 형제들과 벗들을 위해 이제 말하기를,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리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시122:1-4, 8-9).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쫓겨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아홉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상천으로 올라갈 때(행3:1)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행5:12)

날마다 상천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

라(행5:42).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상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을 걸어로 드러내 보이니라.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상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상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행21:26-27, 30).

그 당시 성전이 매우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기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신약 교회(New Testament Church)가 바로 성전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 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엡2:19-22).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우주적인 교회나 몸 혹은 전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sup>4)</sup> 다윗은 과거의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잘 짜인 도시로 건설되었도다(시122:3).

분명히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탄탄하게 지어졌으며 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세워진’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장소에 ‘함께 세워진’ 것은 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에게 그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로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룬’ 성전이요, 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

4) 교회를 말할 때 레이시 박사님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만 인정하는 분도 있지만 역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즉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보편적 혹은 전 우주적 교회도 있다고 믿는다(마16:18; 엡1:23; 히12:23 참조)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약 시대의 지역 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전3:16-17).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 크리스천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며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8-20).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개개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너희 몸’ 같은 표현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 전체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언급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 성전이다.”

바울은 3장에서 ‘성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 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상형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엡2:21-22).

하나님은 자신의 신약 교회들 안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거하십니다. 그 방법은 단지 두세 명(또는 그 이상)의 크리스천이 함께 모여 있는 것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시니 발까지 내려오



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계1:12-13).

몇 구절 뒤에서 요한은 일곱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계1:20).

예수님은 신약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한 방법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개개인이 다 그분의 성전입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특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계시던 때에 이미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눅6:12-16; 고전12:28; 마18:15-17; 행1:21-22; 2:41, 47)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성전’이라 불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에는 그분 자신이 곧 성전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sup>5)</sup>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산을 넘고 광야를 횡단하며 길거리를 오가고 해안을 따라 길을 가며 다락방에 모이고 했을 때 그분은 그들의 성전이셨습니다.

그들이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대제사장의 의복들과 흉패와 복잡한 예식들이 다 거추장스럽고 혼란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계셨을 그대에 사람들이 만든 성전, 즉 예루살렘에 있던 지붕이 금으로 된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생기게 될 것이며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계21:2-3).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장차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 도시를 조사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

5) 이 부분 역시 저자와 소수의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견해이다. 역자를 포함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교회가 수태되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드러나게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계21:22).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이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들이시기 때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양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주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십니다!

## 6. 새 예루살렘과 세상과의 일반적인 관계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계21:24-26).

예수님을 제외하고 새 예루살렘은 새 땅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에서도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속해 있던 민족으로 서로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독자께서는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 도시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일부분만 살펴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선교 사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부족과 민족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 민족 혹은 ‘크리스천’ 국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듣지만 사실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후에야 비로소 크리스천 민족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민족들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며 따라서 모든 민족은 크리스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새 예루살렘이 새 땅에 건설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동등하게 있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도들로 구성된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 7. 최상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늘 거하고 있는 존재들, 즉 여섯 개의 날개를 지닌 스랍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사6:3)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오직 거룩한 것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장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 그 도시의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죄인도 그 도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그 도시의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죄인들을 위하여 그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구원받은 죄인들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딤후3:5) 그리고 어린양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죄인들만 그곳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계1:5)!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그가]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계21:10)

거룩한 도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12).

거룩한 도시에는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17:3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거룩한 도시에는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8:21)

거룩한 도시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침례, 성찬식, 교회 모임, 예배용 양초, 로사리오, 고해 성사, 방언, 마리아 종교 의식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사43:11).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이요,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2).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10: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거룩한 도시에는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딤후3:5)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거룩한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계22:1).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동물들 역시 물을 섭취해야만 하고 식물들도 물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몇 주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먹지 않고서는 며칠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건조하고 공기가 탁한 지역에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것은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상당히 어려웠던 때는 작열하는 태양의 열기로 인한 가뭄과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었던 때입니다.

만일 에덴동산에 생명을 주는 물의 공급이 없었더라면 그곳은 완벽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었는데(창2:8-10)

요즘에는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땅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도시 사업은 물의 공급 문제입니다. 물이 없는 도시는 황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재미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도시의 강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흘러 나가면서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며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까지 차올랐더라. 다시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다시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에 그가 천 큐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으니 이는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그때에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둑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은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다다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다다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다다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겔47:3-9).

강은 곧 생명을 뜻합니다. 강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저는 여러 번 텍사스주의 엘파소와 콜로라도주의 덴버 사이를 비행기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남서부에 있는 뉴멕시코주의 사막 지대를 따라 남쪽으로 뱀처럼 구부러진 리오그란데강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풀이 강가를 따라 나 있었고 그것들은 강둑으로부터 30미터 정도까지 나 있었습니다. 그 푸른 풀들의 색깔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막 지역의 우중충한 갈색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생명을 주는 물의 공급이 없다면 좋은 곳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피라미드 형태로 생긴 그 도시의 정상에 있는 왕좌로부터 물이 나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흘러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독자는 수정같이 맑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물이 넘쳐서 새 땅 위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도시가 새 땅 위에 하늘에 떠서 날아다닌다면 그 도시에 큰 폭포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들보다 더 똑똑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펴낸 많은 주석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강이 말 그대로의 실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의 의미로 볼 때 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이군요! 독자께서는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보고 수정같이 맑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은 실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침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아마도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시인인가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이 비유적인 물은 하나님의 왕좌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생명수 강에 접촉한 사람은 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계21:24-27)!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아직도 한 명 더 남아 있군요. “이 물은 실제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굉장한 행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양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할까요? 실제 왕좌에 계신 실제 구원자가 실제 도시를 다스리며 또 그 도시에 있는 실제 강에는 수정같이 맑은 실제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물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자는 그 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물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강입니다. 그 강은 천국의 도시에 속해 있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물을 그들에게 주십니다(약 1:17)!

그 강의 생명수는 ‘수정같이 맑은 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정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물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시편 기자는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시46:4).

이 시편 기자의 시는 이 땅 위의 어떤 도시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에 묘사된 도시는 아브라함이 찾던 바로 그 도시, 즉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표현이야말로 바로 제가 그 강이 하나님의 왕좌에서부터 나와 네 방향 모두로 흘러간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시46:4).

생명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내들은 하나 이상입니다!

성도들이여,

그 맑고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 흐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아이들이 주의 날개들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쁨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시36:7-9).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계22:1).

## 8. 새 예루살렘의 나무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나무’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한 것은 오직 한 그루의 나무가 외롭게 홀로서 있음을 뜻하지 않고 그 도시에 있는 한 종류의 나무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지목해서 말할 때 ‘사과나무’ 혹은 ‘배나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투명한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시에 굉장히 많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나무들이 도시의 어느 곳에 있는지 주의해서 읽어 보십시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입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줄을 지어서 금으로 된 거리, 즉 2,400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의 한가운데 심겨 있습니다!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또 나무들이군요!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이 그 강의 양쪽 독에 줄을 지어 심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중에서 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름다운 종려나무 가로수가 줄지어져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들을 따라 드라이브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또 로키산맥에서 횡횡 불어대는 바람을 맞으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키 큰 소나무들을 볼 때 그 산맥의 위엄으로 인해 경외감을 느낍니다. 아침 일찍 동이 틀 때 이슬방울이



맺힌 채 팔랑팔랑 흔들리는 미루나무는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김빠지고 흥미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나무들을 가득 심어 놓으셨습니다.

과거의 에덴동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창2:8-10).

에덴동산에는 단지 햇살을 가리는 나무만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곳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창2:16)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예외 사항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그대로 놔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아름다운 과일나무는 아담이 먹고 즐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 나무는 새 예루살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계22:2)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열매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사람이 먹으라고 열매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열매를 먹게 될까요?

귀 있는 자는 상형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다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요일4:3-4).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요1:12-13; 3:5-6).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던 이 세상의 사탄의 영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탄의 영들을 계속해서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새 몸으로 바뀔 터인데 그 열매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입을 새 몸은 배고픔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배고픔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창18:1-8과 창19:1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시78:23-25).

장차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빌3:21). 예수님은 배고픔을 모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눅24:36-43).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한 세상에서의 식사에 대해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아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매(눅14:15)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을 마치시고 곧바로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큰 만찬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누가 복음 14장 16-24절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먹는 음식의 일부는 매달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서도 시간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외쳤던 순간부터, 즉 7년 환난기의 한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측정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시간은 그 순간부터 환난기의 끝까지 측정될 것입니다(계11:2; 13:5). 또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 때에도 시간은 흘러가야 합니다(계20:2-3).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000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는 일곱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 즉 그분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선언하고 있습니다(성경 본문을 문맥에 유의하여 읽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 땅에서도 주야 24시간이 하루이며 7일이 일주일이고 새 달(월삭)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려고 내 앞에 올 것이요(사66:22-23)

영원토록 불 호수 속에 거할 사람들도 고통의 낮이 계속되고 무시무시한 밤이 계속된다는 것을 통해 시간이 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도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결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처럼 밝게 만 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기간은 만 년 전과 다를 바가 없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습니다! 독자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생명, 기쁨 그리고 즐거움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시16:11).

이제 주의를 집중해서 천국의 강 양쪽 독에 일직선으로 나서 거리들의 중앙을 따라 내려가는 나무들이 한 종류의 나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계22:2)

질문: 오늘날 어떤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생명의 나무로 다가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까요?

대답: 그렇습니다!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심어 놓으셨던 여러 나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는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는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창2:9).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창2:16-17; 3:6; 롬5:12)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를 먹은 뒤 타락하고 죄지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까 봐 그와 그의 아내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라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으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3:22-24).

당신은 사람의 타락과 그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결과의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를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창3:6)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도 역시 먹는 행위로 가능합니 다.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매 그대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요6:47-58).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화체설/성변 화<sup>6)</sup> 교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6) 로마 카톨릭교회나 그리스/러시아 정교회에서 수용하는 교리로서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로 말미암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는 것

그리스도의 살을 육체적인 의미로 실제 먹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영적인 의미로 먹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경의 다른 곳에 쓰여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핵심이지 배 속에 넣는 것이 핵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께 다가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또는 그분을 먹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강둑에 줄지어 서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의 거리를 꾸미고 있는 생명나무를 살펴봅시다. 그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 나무들의 잎들은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이미 흘러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들이 서로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계5:9)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계21:24).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족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전쟁, 다툼, 고통, 원한, 피 흘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피 흘리는 일에 민첩합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는 파멸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6,000년 동안 살면서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롬3:15-17).

역사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한 4,300년 정도의 기록 역사 시대에 지구 어느 곳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68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제 생애에만도 무려 세 개의 큰 전쟁(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러시아로부터 목이 졸리는 듯한 전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의 핵무기 경쟁은 계속해서 큰 기삿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평화의 통치자(사9:6)로 오셔서 군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해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며(눅21:25).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마24:6-7)

이 땅에서 민족들 간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 땅은 계속해서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 기간인 1,000년 동안만 민족들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은 사탄 때문인데 온 우주의 대살인자 사탄은 결국 바닥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계20:1-3).

전쟁광 중의 전쟁광인 사탄이 갇히게 되면 이 땅은 결국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 지금까지 속아 왔던 민족들은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그리스도의 천 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 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사2:2-4).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천 년 동안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 년이 끝나게 될 때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피투성이 살인자(요8:44)인 사탄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계20:7-8).

사람의 역사 속에서 민족들을 세뇌시켜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침략을 일으킨 배후에 어떤 인물이 있었을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열한 마귀가 감금되면 모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풀려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사탄이 일으키는 그 최후의 전쟁을 순식간에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 비열한 마귀는 불 호수 속에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들[사탄과 그의 전쟁광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9-10).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 온 그 마귀가 불 호수 속으로 영원토록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토록 불 속에서 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불 호수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면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모든  
아픈 상처를 위로받고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 9.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계22:3)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에덴동산을 거닐었을 때 그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통, 슬픔, 병, 상심, 탄식, 울부짖음, 눈물, 삶을 개척하기 위해 흘려야만 하는 땀과 노동, 이러한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에덴동산에는 모든 축복이 있었지만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생겨났습니다.

### 1. 사탄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창 3:14).

### 2. 여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창3:16)

### 3.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창3:17).

#### 4. 남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땅을 저주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7-19).

사탄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든 땅을 파괴시키며 이 세상 곳곳에 죄를 뿌리고 그로 인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저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저주 속에서 동식물과 곤충과 모든 창조물과 함께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들의 손이 닿는 모든 요소들과 사람들이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수, 호흡하는 공기, 걸어 다니는 바로 이 땅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주는 온 바다와 온 하늘에 퍼졌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생긴 저주는 모든 곳에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병, 슬픔, 고뇌, 고통, 비탄, 범죄, 살인, 사람들 간의 싸움, 동물들 간의 싸움, 사람과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 피 흘림, 폭풍, 해일, 허리케인, 홍수, 지진, 흑사병, 가뭄, 굶주림, 기아, 자살, 죽음, 지옥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비웃는 사람만 저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이 땅과 그 속의 환경에는 저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롬8:22)

이 땅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공동묘지가 되어 여기저기 저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는 많은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수없이 많은 배들은 수천 번의 폭풍으로 인해 침몰되었습니다. 식물들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 죽습니다. 동물들도 병들어 죽습니다. 남자, 여자, 소년, 소녀 할 것 없이 모두 병들어 죽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목구멍에서는 죽을 때 내는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서는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전15:45-47).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죄에 빠져들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이 향유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롬5:18)

아담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담의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낙원인 동산에서 햇별을 쬐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일곱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첫째 아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 (1) 풍성한 삶
- (2) 하나님의 복
- (3)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 (4)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 (5) 하나님의 왕족의 신분
- (6) 하나님과의 교제
- (7) 낙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 (1) 풍성한 삶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10:10).

### (2) 하나님의 복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엡1:3)

### (3)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롬8:14-1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당신의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4)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요일3:1).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3:14-15)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옛날 죄 많은 아담처럼 저는 사탄의 가족이었습니다(요8:44).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 (5) 하나님의 왕족의 신분

아담은 왕이었습니다!(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는 왕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왕좌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왕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5-6).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5:9-10).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제 몸에 흐르는 농부의 피를 왕족의 피로 바꾸셨습니다!

### (6) 하나님과의 교제

아담은 하나님과 아주 멋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런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창2:7-25; 3:23-24를 읽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갈라진 틈을 메우셔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요일1:3).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7).

### (7) 낙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에덴동산은 실제의 낙원입니다(창3:23-24).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낙원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상형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마지막 아담께서는 우리를 위해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앞에는 더 좋은 무엇인가가 놓여 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병, 고통, 슬픔, 비탄, 산고, 눈물, 실망, 어려운

시련, 죽음 등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이제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흰 왕좌 심판이 끝난 후 요한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계21:5).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롬8:18-19).

본문 말씀에서 ‘창조물’이라는 말은 모든 창조물을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창조물은 지금까지 죄의 저주 아래 고난을 겪으며 지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그 저주가 풀려지게 되면 비로소 지옥에서 살아야 할 자들을 제외한 모든 창조물을 얹어매던 저주 역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상형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롬 8:21-24).

오늘날 인류는 신음하며 또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도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죄의 저주의 속박에서 풀리는 그날이 오면 지옥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또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계22:3)

## 10.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결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태우시고 다시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벧후 3:10-13) 새 땅에는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4시간의 낮과 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으로 된 그 도시에서만은

영원히 낮이 계속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이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라(계 21:25).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계22:5).

여기서 요한은 밤이 없다는 사실을 단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도구들도 필요 없음을 보여 줍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계22:5)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빛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계22:5).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계21:23).

우리는 그 도시의 성벽 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빛과 똑같은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주와 함께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열 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두 증언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출34:28-29).

이 빛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위에서 어렵פות이 보았던 바로 그 영광스럽고 밝은 빛입니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마17:1-2).

할렐루야! 우리의 얼굴은 끝없이 대낮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시에 거하시어 어린양의 빛을 반사하게 될 때 빛나게 될 것입니다!

## 11. 새 예루살렘의 경영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계22:3)

그곳에서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때 왕의 왕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충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반란도 없으며 다시는 영원한 왕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섬기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만일 제가 천 개의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 모든 생명을 예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련, 곤고함, 시험, 투쟁 같은 일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사람들이 게으르게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뤄야만 하는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대단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도다!  
어찌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없으며  
어찌 그분만을 위하여 온전히 살 수 없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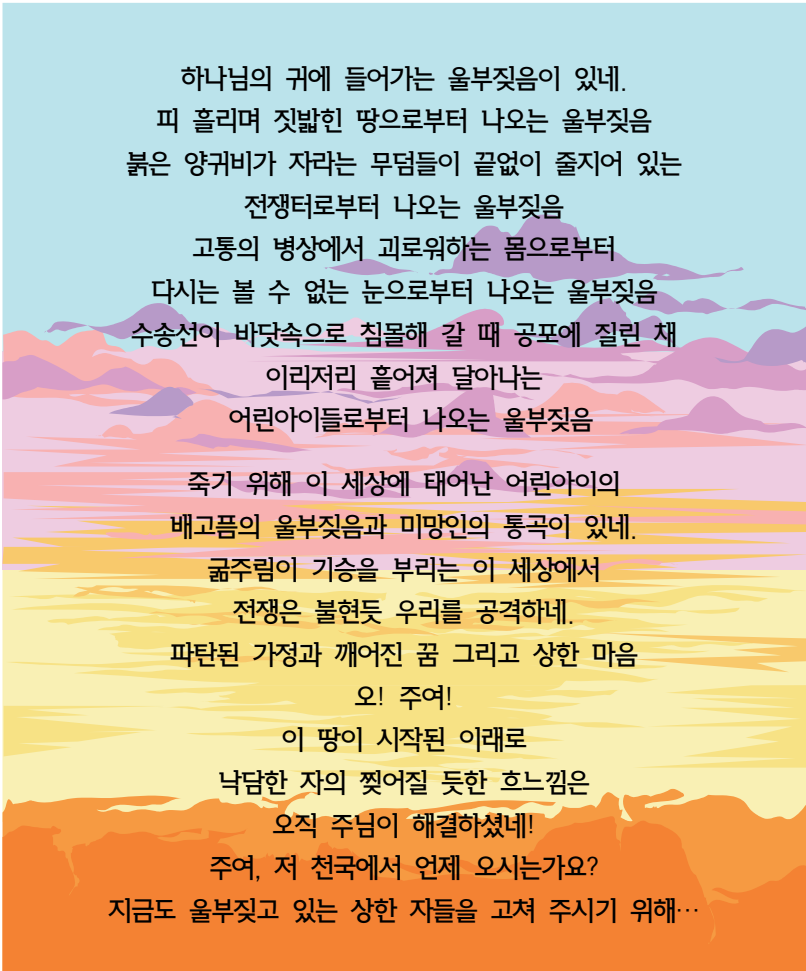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계22:3)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지 할지를 보여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말로 형용 못할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존재하지 않고 죄도 없으며 우리를 훼방하는 사악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계22:3)

우리는 그 아름다운 도시와 새 땅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울부짖음이 있네.  
피 흘리며 짓밟힌 땅으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  
붉은 양귀비가 자라는 무덤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는  
전쟁터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  
고통의 병상에서 괴로워하는 몸으로부터  
다시는 볼 수 없는 눈으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  
수송선이 바닷속으로 침몰해 갈 때 공포에 질린 채  
이리저리 흩어져 달아나는  
어린이들로부터 나오는 울부짖음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의  
배고픔의 울부짖음과 미망인의 통곡이 있네.  
굶주림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전쟁은 불현듯 우리를 공격하네.  
파탄된 가정과 깨어진 꿈 그리고 상한 마음  
오! 주여!  
이 땅이 시작된 이래로  
낙담한 자의 찢어질 듯한 흐느낌은  
오직 주님이 해결하셨네!  
주여, 저 천국에서 언제 오시는가요?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상한 자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



## 제4장

# 천국의 거주자들



*Inhabitants of Heaven*

우리가 계속해서 천국의 창 바깥쪽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이제 그 놀라운 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켜 봅시다. 그곳의 거주자들은 아홉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 1.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마6:9)

### 2. 아들 하나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행7:55)

### 3.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얼굴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시139:7-8).

### 4. 천사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막12:25).

### 5. 스랍들

대언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 주신 천국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상천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사6:1-2)

## 6. 그룹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천국에 있는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시11:4). 천국에는 주님 외에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시99:1).

## 7.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성도’라 불립니다(고후1:1; 빌1:1; 단7:22를 읽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요1:12; 요일3:1).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3:14-15)

## 8. 군대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계19:14).

이 군대들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성도들(가족)입니다(계19:8).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군대들도 또 하나의 부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 9. 말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계19:11).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계19:14).

구원받은 우리는 다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우리가 직접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곧 하나님을 뵈 수 있게 됩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 만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고전8:6).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sup>는</sup>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1).

절대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직 한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4:24).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영이십니다.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눅24:39).

하나님이 유일하게 소유하시는 육체는 못 자국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총만이 몸으로 거하고(골2:9)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빌립은 자기를 포함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삼위일체의 신비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요14:8-9)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것이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그 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계22:3-4).

이탈리아 사람들은 나폴리를 아주 많이 동경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마치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본 이후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천 번을 죽어도 그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자께서는 언젠가 모세가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크게 흥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출33:18-23).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주 어렵듯이 느끼고 있었습니다(출34:30). 그러나 그는 결코 주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주님의 얼굴이 발하는 완전한 영광을 보았다더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세는 죄악된 육체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이나 나타나신 후에 언제나 자신의 영광을 가리셨습니다. 영광을 가리지 않으셨더라면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는 사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둬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께서서는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파멸시킬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요한조차도 밧모섬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습니다!(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읽어 보십시오).

다소의 사울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작은 빛을 경험하고는 곧바로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9, 18절을 읽어 보십시오).

성도들이여,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독자께서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고후 4:6).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도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계22:4). 시간과 시대가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다가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귀한 얼굴을 보면서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살전4:17).

이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흥분이 됩니다. 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와 침으로 얼룩졌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실제로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 23:34)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가득 고인 예수님의 온화한 두 눈을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돌아가실 것을 굳게 결심했던 예수님의 그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영광이여! 와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두 물러서 주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독자께서는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독자가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도 마음이 설레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 스랍들 그리고 그룹들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인 가브리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의 모든 삶을 지켜 주었던 천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시91:11-12; 히1:13-14). 우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또한 모든 성도들도 만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저는 그들을 모두 만날 것입니다! 아벨부터 빌리 선데이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패니 크로스비에 이르기까지! 우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저의 흰말을 타고 영광의 산들을 가로지르며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을 부르시면 천국의 군대들 중 기병대에 속해서 그 말을 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오, 얼마나 행복한 상봉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포옹하고 입 맞추게 될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 중에서 가장 큰 환희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 대문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저는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기쁩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저의 친구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어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찬물을 끼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입 다물고 잠잠하십시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친구들을 실제로 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또한 천국에서 만나 볼 수 없는 사람들도 그리워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불행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서로서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 하하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책을 읽었기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 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33절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완전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낸 모든 시간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게다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은 전혀 이런 뜻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완전히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당시 국가 교회 위원회의 일부인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똑똑한 체하는 사람들은 잘난 체하는 표정 -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sup>1)</sup>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표정 - 을 하고 나타나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독자는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으로 온 우주의 위대한 창조자를 난처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들, 작고 보잘것없는 머리를 가진 인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똑똑한 체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한 여자가 이 땅에서 일곱 명의 남편과 살았을 경우 그들이 부활하면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마22:29).

이단 종파들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거짓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기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기록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배교자였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부패한 그리스어 사본’으로부터 번역된 「신세계역」(*New World Translation*)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본에서 번역한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역본, 즉 마찬가지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물론교도들은 조셉 스미스가 쓴 몰몬경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은 거의 이솝 우화 수준입니다.

---

1)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교주 찰스 러셀(Charles Taze Russell)은 1852년 2월 1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알레기니 지방의 장로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기독교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는데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교리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갖게 되면서 자기가 속해 있던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에서도 이탈하였다. 그 후에 러셀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면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에서 같은 이유로 안식교를 이탈한 바버(N. H. Barbour)와 연합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성경 공부와 잡지와 서적을 출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1884년 이 모임은 ‘시온의 파수대 전도지 협회’(Zion's Watch Tower Tract Society)라는 이름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등록되었으며 뒤에 ‘파수대 및 전도지 협회’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제철일 안식교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29쪽 각주 5번 참조).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추구하는 자들은 매리 에디(Mary Baker Eddy)가 쓴 「성경의 열쇠를 지닌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사용합니다.

마귀의 군중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손에 들고 읽고 또 읽은 다음 당신이 읽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두개인들에게 결혼 문제가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예수님이 과연 본문 말씀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까요?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까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족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새로운 결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늘 해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장가가다’(marry)라는 단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을 갖는 말입니다. ‘시집가다’(given in marriage)라는 단어도 적극적인 뜻을 갖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들이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사시던 때에도 벌어졌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상황이* 어땠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눅17:26-27).

반복해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이미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를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국에서 모든 개개인이 자기의 개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봅시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마22:30-33).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머리가 매우 둔한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이단 종파 지도자들이나 거짓 대언자들의 책을 이제 그만 읽도록 해라.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 죽는 것이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짐승과 똑같이 죽은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이 땅에서 지낼 때보다 더욱더 생동감 넘치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사실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마태복음 22장 34절을 읽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일곱 명의 남편 중에서 누가 과연 천국에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주목해서 그 내용을 읽었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새로운 결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미 있던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세 가지라고 믿습니다.

첫째,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남자와 결혼한 그 여인에 대한 질문은 단지 죽음 후에 있을 삶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둘째, 사두개인들은 단지 모든 것을 비웃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을 피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셋째, 성경은 천국에서의 결혼 관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제를 거룩한 막으로 가리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천국에는 이 땅에서 두 번 이상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른 규정은 이 땅에서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그 부부는 같을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주제입니다(신29:29).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마22:32)

이제 이 말씀 속의 진리를 파헤쳐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여전히 이삭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아직도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직도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야곱은 아직도 이삭의 아들이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맺었던 인간관계를 천국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면 -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사라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똑같은 사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늘 이삭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만일 이삭이 늘 이삭이라면 - 예수님께서서는 이삭이 늘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리브가는 늘 리브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늘 야곱의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야곱이 늘 야곱이라면 -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늘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라헬은 늘 라헬이 아닐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2).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1).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든 말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서른세 살 먹은 남자로 변하여 완전히 예수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의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턱수염과 콧수염이 뒤덮인 사라의 얼굴을 본다면 얼이 빠져서 (여전히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사라는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로 바꾸고 이삭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엄마가 아니다. 나는 아... 음... 아들아, 너는 이미 아버지가 있지, 그렇지?

아브라함이 금으로 된 거리에서 무디를 만나 "무디 형제, 내가 땅에 살 때 내 아내였던 사라를 형제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라고 말한다면 더욱더 난감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라는 턱수염이 난 서른세 살 남자 모습을 한 채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무디는 너무 놀란 나머지 숨이 막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브라함 형제님, 저는 당신이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만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른세 살 된 남자며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분간해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같은 특색을 지녔으며 심지어 손과 발에 못 자국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된 예수님의 몸처럼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늙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이 없으며 죽지도 않고(계1:18) 건물 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으며(요20:19) 순식간에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행1:11; 고전15:52). 그러나 이에서 지나쳐서 극단적인 ‘세포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 즉 천국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십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는 묘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요20:17-18을 읽어 보십시오).

성도들이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미래에도 여전히 당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단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들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결혼 관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나 천국에 가거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변함없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욥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예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삶에 침범하여 욥의 부인과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전에 욥이 소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 7명

딸 - 3명

양 - 7,000마리

낙타 - 3,000마리

소 - 500여리

암나귀 - 500마리

(욥기 1장 2-3절을 읽어 보십시오.)

욥기서 끝부분을 보면 욥의 신실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배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으므로(욥42:10)

하나님께서서는 철저하고도 충분하게 갚아 주셨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 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한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었더라(욥42:12-13).

당신에게 확실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었습니다.

### <욥의 소유>

	처 음	나 중
아들	7명	7명
딸	3명	3명
양	7,000마리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	6,000마리
소	500겨리	1,000겨리
암나귀	500마리	1,000마리

당신은 위의 표에서 무엇인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에 대한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시험이 다 지나고 그 뒤에 태어난 그의 자녀들의 숫자는 이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두 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은 죽으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입니다. 낙타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도 마지막 숨을 거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당나귀는 숨을 거두면 당나귀의 영은 땅속으로 영원히 들어갑니다(전 3:21).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결국 불

호수에서 영원히 불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계21:8).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는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낙원에 있었고(눅23:43) 욥은 자신이 죽은 바로 그날에 그곳에서 자녀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욥에게는 낙원에 여전히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으며 이 땅에서도 역시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원에서 욥의 아들들은 여전히 욥의 아들들이고 그의 딸들도 여전히 그의 딸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신학자들’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천국에서 저와 같은 집에 살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살게 될지 잘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만의 거할 곳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의 거할 곳이 저의 거할 곳 바로 옆에만 있다면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하여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셨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요20:20).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나는 그에게 간다.”(삼하12:23)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이를 낙원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라본다면 어떻게 다윗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영원의 세계에서 다윗이 더 이상 다윗이 아니고 그의 아들도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라면 다윗의 애통하는 외침은 완전히 공허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의 영께서 다윗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을 읽어 보면 지옥 불에 빠져 있는 불쌍한 부자가 깊은 구렁텅이 너머에 있는 낙원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죽어 가고 있던 나사로가 건너편에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곧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불렀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시력을 가졌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아무도 그 부자에게 말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에서 타고 있는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한 번도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니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과 이야기하므로 그대에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마17:1-4).

어느 누구도 베드로를 모세와 엘리야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산 위에서 어느 정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천국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는 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이 들어 주름이 지고 백발이 되어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젊은 몸을 갖고 있는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과 자기가 그들을 알아보게 될 것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살전2:19)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젊고 완전한 몸으로 변해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바울이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노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영광의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보게 될 때 그분들은 더 이상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주름도 없으며 백발도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이 젊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본 것처럼 저는 그분들을 곧바로 알아볼 것이며 그분들도 저를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으로 가게 될 믿음이 없는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눅13:28).

영원의 세계에서 부정하고 타락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왕국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왕국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과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것처럼 어리석은 소리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라비가 죽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1:23).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잠시 후에 죽은 상태에서부터 다시 회복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될 것입니다.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할 때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관계들은 다 없어진 채로 부활한다고 말해 준다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 과연 그것은 날카롭고 깨끗한 칼날로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도려낼까요? 이 땅에서 매우 즐거운 교제를 나누던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이나 친구들을 우리가 영원히 잊게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아들아… 기억하라.”(눅16:25)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하고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히 서로를 기억하는데 고귀하고 영화롭게 된 영혼들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한다 말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자였던 여자였던 천국에서 확실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단지 그들의 얼굴로만 알아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로도 알아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혹은 그보다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얼굴이 깨끗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그들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들립니까? 물론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서로 완전히 같은 목소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각 사람의 목소리를 아주 잘 기억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가질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셨던 그날 아침에 열려 있는 무덤 옆에 서 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고 음성도 다르게 꾸미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평상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늘 들어왔던 바로 그 목소리로!(요10: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몸을 돌려 그분께, 랍보니여, 하고 말하니 이것은, 선생님이며, 라는 말이라(요20:16).

형제자매들이여,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천국에서 내는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내던 목소리와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 제5장

# 천국의 눈물



*Tears of Heaven*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짓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몇 년 전 어떤 나이 드신 침례교 목사님이 천국에는 절대로 눈물이 없다고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훗날 갖게 될 영광스러운 몸에는 눈물샘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의 말에 약간의 반대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였고 그래서 눈물샘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 정상인의 몸처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금으로 치장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될 때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없단 말인가?”

또 다른 생각이 밀려 왔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크리스천이지만 육체적으로 살면서 인생을 쓸모없는 것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뉘우치는 눈물도 흘릴 수 없단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불 호수로 떨어질 때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흰 왕좌 심판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단 말인가?”

저는 그 즉시 성경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분의 견해는 틀렸습니다! 흰 왕좌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천국에서 눈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만일 우리의 변화된 육체에 눈물샘이 없다면 장차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눈물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적혀 있는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정착하기 전에 하시는 맨 마지막 일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실 때 고통을 많이 겪은 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사53:3). 예수님의 눈물이 그분의 부드러운 불을 따라 흘러내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마9:35-36).

온화하신 주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에 모여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무리를 자세히 바라보셨을 때 그분의 가슴속에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불쌍하게 생각하면 곧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무리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마14:14).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막 6:34).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눅19:41)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의 오라비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함께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요11:32-36)

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눅23:34)라고 외치셨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거니실 때 친히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습니다.

그런즉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14-15).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히5:7).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두 볼에 눈물을 흘러내리게 만드는 슬픔들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독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삶의 어려운 시련들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시련이 닥쳐올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최근 들어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독자여, 이제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당신의 대제사장께서는 당신이 흘리는 눈물들을 절대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이까?(시56:8)

우리는 다윗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잠시 후에 더욱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먼저 ‘병’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다윗은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의 문맥을 보면 다윗의 슬픔은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한 슬픔입니다(시편 56편 1절과 13절을

읽어 보십시오). 위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고다(시42:3).

눈물로 흥건히 젖어 희미하게 보이는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귀중한 진리 하나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 동양 사람들 중에서 나이든 사람들은 이상한 관습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고뇌에 처해 있으면 그의 친구들이 그를 방문하게 되고 그때 그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면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봉하고 불행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면 고통에 시달렸던 그 사람은 눈물병을 꺼내어 보면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눈물병을 만드셔서 다윗이 흘렸던 눈물을 훗날의 기념물로 보존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병’이라고 사용한 히브리어가 ‘우테르’(uter)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보존’이라는 점입니다. 이 병은 유대인들이 포도주나 우유를 보존하는 데 사용한 병(부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삼상16:20; 수9:4, 13; 샅4:19를 읽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이여, 당신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흘린 눈물은 천국에서 기억되기 위하여 위로 올라갈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 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히6:10).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눈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충성하십시오. 당신이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당신의 눈물병을 던져 버리고 그 눈물병에 합당한 상을 내리실 때 그때 바로 당신의 충성된 삶은 가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흘리는 실제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국에서 닦아 낼 눈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갖게 될 영광스러운 육체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이러한 눈물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 1. 예수님과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죽게 되면 그들은 곧바로 그분과 함께 있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행7:54-60; 고후5:8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는 첫째 부활(엡3:20-21; 요일3:2; 계20:5) 때까지 영화로운 몸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때까지 천국에서 어떤 중간 상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증명을 원하신다고요?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영을 볼 수 없지만(눅24:39) 지옥에 있던 부자는 낙원에 있던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 자신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눅16:19-31). 모세는 그 당시 죽은 지 1,500년이나 되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세를 변화산 위에서 보았습니다(마17:1-4).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영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제 눈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인 성경 속에서 해마다 그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제 생활과 사역을 통해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게 될 때 - 죽을 때든 휴거될 때든 관계없이 - 제가 엄청난 감동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아무 눈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으로 올라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기뻐서 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에서도 더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분명히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행복한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 성가 가수인 친구 에반스와 저는 얼마 전에 메인주의 뱅거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에반스와 저는 뱅거 공항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호텔과 공항 터미널 사이에는 산책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텔방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에반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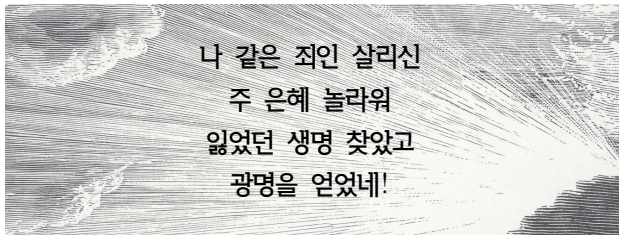
공항 터미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레이지,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건 그만두고 여기 와 보게나. 자네가 보아야 할 것이 여기 있다고!”

저는 공항 터미널로 가는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에반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문들 중 한 곳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색깔이 다채롭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 공연단이 있었습니다. 체크무늬의 웃웃과 치마 모양의 하의, 밝은 적색의 모자, 백파이프, 북 그리고 연주!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사람을 싣고 떠난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밴드와 군중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자기들의 친구와 친지들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거의 20분 동안 이 사람들은 백파이프로 스코틀랜드 음악을 연주해서 터미널 안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보잉 747기가 착륙해서 손님들을 풀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멀리서 비행기가 들어오자 그들은 잠시 연주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승객이 문에 나타나자 스코틀랜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잘 알려진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반스는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에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에 안겨 행복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밴드는 계속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동안 우리는 천국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배가 마지막 승객을 싣고 갈 때 하늘에서 열릴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껴안고 울고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울면서 기쁨을 나누는 동안 아마도 천국의 천사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것입니다.



## 2.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천국에서 제일 먼저 멈추어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입니다. 독자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 소리가 나면(고전15:52; 살전4:16) 크리스천들은 즉시 아름다운 알현실, 즉 왕좌가 있는 방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휘황찬란한 왕좌가 무지개에 둘러싸인 채 놓여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혹을 나타냅니다(창9:13-16).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공혹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흰 왕좌 심판 때에는 어떠한 공혹도 없을 것입니다(계20:11-15).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 때에 우리는 왕관을 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계 4:4). 궁극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왕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계 4:10-11).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이러한 심판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work)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work)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같이 받으리라(고전 3:11-15).

독자께서는 ‘일’(work)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로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그 일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인 왕관에 대한 열쇠는 ‘신실함’이라는 말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마25:21).

주님을 위해 우리가 행한 신실한 일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며 이것들은 불로써 없어지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신실하지 못한 일들은 나무나 건초나 짚이며 이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영혼들을 신실하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요15:16),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에서 봉사하며(히10:25), 경제적으로 성도들을 도우며(마25:14-23; 고전16:1), 기도하고(살전5:17), 성경 공부하며(딤후2:15), 경건한 삶을 살고(딤후2:12), 타락한 크리스천들을 세워 주며(갈6:1), 다른 크리스천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갈6:2) 책망과 꾸짖음과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단언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고후12:10)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병이 있는 곳이며 다윗이 기록했던 ‘책’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이까?(시56:8)

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3장에서 거룩한 도시에 또 다른 종류의 건물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매우 크고 굉장한 도서관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단7:9-10).

천국에 있는 도서관은 분명히 굉장히 클 것입니다! 다니엘이 흰 왕좌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천천’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적어 놓은 책이 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왕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계22:3).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을 뜻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왕좌 심판 때에 심판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참석은 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도서관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해 적어 놓은 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수백만 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만’이라는 단어는 수십억을 뜻합니다.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 왕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들, 즉 버림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삶을 기록한 책이 개인별로 한 권씩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1-15).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수십억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책들로부터 모든 죄가 폭로된 상태로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영원히 불타게 될 불 호수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계14:10-11).

천국에 있는 도서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 수백만 권의 책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기록한 수십억 권의 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책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계20:12, 15). 어린양의 생명의 책도 있습니다(계21:27). 이 두 권의 책에 대해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생명의 책과 어린양의 생명의 책은 분명 다릅니다. 생명의 책에는 이름들이 지워질 수 있지만(출32:32-33; 계3:5; 계22:19 등)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는 지워질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도 천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습니다(시 119:89; 요12:48). 하나님의 기념 책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 책을 기록하셨느니라(말3:16).

이 책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눈물병과 관련해서 다윗이 언급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석 앞에서 선과 악이 모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주님은 이 기념 책으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 흘려야만 했던 눈물과 이 땅에서 행한 선행들을 꺼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 살았던 크리스천들(고전3:1-3)은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거나, 주님의 교회에 신실하지 못했거나,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거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청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거나, 세상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수렁에서 건져 내지 못했거나, 단 한 명의 고통도 덜어 주지 못했거나, 한 번도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모진 불이 그들을 깨끗이 씻을 때(고전3:15)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그들의 불을 적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 3. 흰 왕좌 앞에서

앞에서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흰 왕좌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단7:9-10).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즉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바울의 말씀을 읽어 봄으로써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흰 왕좌 심판 때에 그 자리에 계실 것이며 우리도 또한 그 자리에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왕좌 심판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조목조목 큰 소리로 읽혀지고 있는 것을 들은 후에 불 호수로 던져지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지막 사람이 거품을 부글부글 내며 끓고 있는 유황불로 곤두박질쳐지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내실 것입니다(계20:11-21:4를 읽어 보십시오.) 저는 일이 그렇게 될 것이므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옥으로 가야만 할 영혼들을 위해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모든 눈물을 영원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내용이 예언되었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

셨느니라(사25:8).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자국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통함이나 슬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사66:13)

어린 시절에는 주로 누가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 줍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21:4).







## 제6장

# 천국의 행복



## *Happiness of Heaven*

오 하나님이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주 외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였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이 본 적도 없나이다(사64:4).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또 그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겪어야만 할 마음의 상처, 수고, 시련, 괴로움 그리고 슬픔 등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욘5:7).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불로부터 불티가 떨어져 나와 하늘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고와 근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며 이것 또한 당연합니다. 미국의 헌법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행복(happiness)과 기쁨(joy)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 보아야만 합니다. 행복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기쁨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생겨나는 평화와 만족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직 자신만 주실 수 있는 참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15:11).

이 성경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즉 예수님 앞에서 함께 걷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 15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세상은 우리에게 참기쁨과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참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평안의 기쁨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요동하는 바다 즉 안식할 수 없을 때에 속의 물들이 진흙과 오물을 내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들에게는 화평이 없다, 하시느니라(사57:20-21).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며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때에는 그들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좋지 못한 일들을 견뎌 낼 수 있는 기쁨, 즉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기쁨이 없으므로 그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망쳐 놓기 위해서 우리를 따라오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고 사라지지 않는 화평의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도 병상에 있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 몸이 쇠약해질 수도 있지만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크리스천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마치고 무덤 앞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러한 슬픔을 당했을 때에 행복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고 친절하신 위로자(요

14:16; 16:7)만 베푸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놀란 새같이 행복이 달아날 때에라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변함없이 따듯한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했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고생을 등지기 원하며 계속되는 행복을 열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이러한 열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의 보증 곧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행복을 망쳐 놓을 수 없는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날이 오면 친히 자신의 자녀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영원히 그리고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까? 일일이 나열해 보면 긴 목록이 만들어지겠죠. 불운, 가난, 사별, 질병, 치욕, 절망, 고통, 실망, 고독, 슬픔, 시험, 죽음 등.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계 21:4-5)

할렐루야!

은밀하게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영원토록 새롭게 될 것입니다! 못 자국 난 손이 모든 눈물을 닦아 낼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 읊이 흘렸던 눈물과 같은 불운의 눈물
- 죽어 가는 나사로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가난의 눈물
- 마리아와 마르다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사별의 눈물
- 히스기야 왕이 흘렸던 눈물과 같은 질병과 죽음의 눈물
- 베드로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치욕의 눈물
- 다윗 왕이 가족 문제로 흘렸던 눈물과 같은 절망의 눈물

- 바울이 괴로워했던 자신의 가시로 인해 흘렸던 눈물과 같은 고통의 눈물
- 에서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실망의 눈물
- 하갈이 흘렸던 눈물과 같은 고독의 눈물
- 한나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슬픔의 눈물
-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 위로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볼에 주르륵 흘러 내렸던 눈물과 같은 시험의 눈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이전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단 일 분만이라도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아! 잔혹한 죽음의 통치여! 죽음의 침략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고속 도로들은 공동묘지와 함께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은 죽은 사람들의 묘지로 뒤범벅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속여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지금보다는 인간들을 덜 미워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라는 삭막한 단어를 ‘기념 동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의사는 ‘장례식 책임자’로 바꾸었습니다. 영구차는 ‘장례 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은 사람을 매장한다고 말하지 않고 ‘안장한다’고 합니다. 관이라는 말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무개가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의 입술에 루주를 바르고 얼굴에 분을 칠하고 화장을 해서 장례식 전날 사람들이 와서 열려 있는 관 옆을 지나갈 때 “이분은 죽은 사람 같지 않고 방금 잠든 사람 같아.”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죽음은 공상이 아닌 현실이며 잔인하며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죽음은 창백한 말을 타고 있으며(계6:8)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 으쓱대며 나옵니다. 그의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우리 모두의 인생행로에 드리워져 있으며 불길한 악령이 어렴풋이 우리를 덮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거리를 운전해 갈 때 어두침침한 영구차, 침울한 분위기의 장례 행렬 그리고 음산한 영안실 등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다음에 죽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우리의 죽을 날이 언제인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그 창백한 말을 타고 있는 자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창백한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말의 등에서 떨어져 다시는 올라탈 수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셨던 일 때문에 죽음은 스스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고전15:54-57).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4-15).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15:26).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죽음은 과거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영원히 죽어 버린다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슬픔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싸늘한 손가락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행복에 침침한 그림자를 가져다주는 마음의 아픔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슬픔은 모든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슬픔도 결코 넘지 못할 끄떡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바로 이 땅과 천국을 나누어 놓고 있는 경계선입니다. 천국 위에서는 결코 행복이 우리로부터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 멋진 나라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싸늘한 그림자가 느닷없이 들이닥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슬픔의 잔을 마시셨으므로 곧 그 슬픔의 잔은 텅 빈 상태가 될 것입니다!

## 울부짖음도 없고...

이 말씀은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울도록 만드는 영혼의 신음이나 한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울부짖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음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은 종종 어찌할 수 없는 울부짖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공포와 투쟁, 과실과 압박, 손해와 위험, 비탄과 좌절된 소망, 곤궁과 피로 등과 같은 것들로 인해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의 비참한 울부짖음이 이 세상 곳곳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거듭났고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함성이 비탄의 소리를 영원히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울부짖음이라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 다시는 고통도 없으리니...

오,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처한 무시무시한 고통이여!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꺾어 버렸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담과 이브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창세기 3장 16-19절을 읽어 보십시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전쟁과 범죄와 박해 속에서 서로서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통, 치통, 골절염, 디스크, 무좀, 위통, 코피, 정맥 확장증, 벗겨진 무릎과 팔꿈치, 머리에 난 혹, 화상, 베인 상처, 멍, 부러진 뼈, 탈골된 관절, 부서진 팔다리, 끊어진 인대, 수술, 상처를 꿰매는 바늘, 상처 붙이기 등등.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천국에는 더 이상 치과용 의자, 의사의 사무실, 진료실, 병원, 구급차 또는 들것 등이 필요 없습니다. 목발, 지팡이, 휠체어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냉찜질, 피하 주사, 처방약,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소화제 같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시 병들거나 허약해지거나 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마음의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반, 험담, 불신,

가혹한 말, 퇴짜 맞은 사랑, 오해, 치욕, 버림받음 등에 의해 생겨나는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천국에는 마음이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천국, 새 우주, 또는 새 땅에서 절대로 어떠한 종류의 불행도 만들어 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계21:4)

이 시점에서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미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한 가지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천국에서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지옥(地獄)으로 가면 천국에서 과연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들이 불 호수의 불꽃 속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내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등등.

이러한 의문들은 타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가능한 한 성경을 근거로 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대답 속에도 어느 정도의 비밀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독자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립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로 나뉩니다.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니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하며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눅6:43-45).

다시 한 번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나무들로 비유하십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7:15-17).

나쁜 사람들은 변질된 나무들처럼 파멸당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시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마7:13-14).

독자께서는 바른 길로 가야만 생명으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른 길은 파멸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명확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구름들이 비로 가득하면 땅에 쏟아져 스스로를 비우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곳, 거기에 그것이 있으리라(전11:3).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반드시 쓰러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그냥 있게 됩니다.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현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하더라(계 22:11).

이와 같이 나쁜 나무들(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파멸당하게 되어 있고 좋은 나무들(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시1:3).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렘17:7-8).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으며 잎이 푸르고 그 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생명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 즉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무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나무는 반드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도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바르게 살지 않고 열매 맺는 것, 즉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원래 수명보다 먼저 쓰러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것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때에 그가 자기 포도원지기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이 삼 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니 그것을 베어 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 종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그동안에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 버리소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눅13:6-9).

이것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열매 맺는 나무로 심어 주셨는데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않는 크리스천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잠언 11장 30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밀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요일5:16). 주님께서서는 그 나무를 베어 버리실 것입니다.

저는 독자께서 어떻게 나무가 쓰러질 것인가 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베어 내라.”

지금부터는 베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러지는 나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종교적인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마15:6-9, 13)

위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무가 쓰러지는 방법은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초목, 즉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전통에 기초를 둔 어떤 종교를 따랐던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믿었거나 혹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베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뿌리째 뽑힙니다!

우리는 베인 나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뿌리도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째 뽑힌 나무는 나무줄기, 그루터기, 뿌리가 다 없어졌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치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나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유12-13).

이들은 두 번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한 번만 태어났기 때문에 두 번 죽습니다. 불 호수의 형벌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계20:14; 21:8). 그곳은 또한 몹시 어두운 곳입니다(마22:13). 한편 앞의 성경 말씀에서는 ‘뿌리째 뽑힌’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살던 것으로 묘사한 사악한 사람들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해 아래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도 없으며 고대할 천국도 없는 사람의 무의미한 인생이 끝나 갈 때 외치는 공허한 울부짖음을 독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라.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전2:17-18).

이제 솔로몬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종말을 관찰했으므로 성령님의 영감이 함께했던 솔로몬의 관찰력을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내가 사악한 자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왔다가 거룩한 자의 처소를 떠났으며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도시에서 잊혔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8:10).

잊힌 사람들은 모든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천국에 사는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될지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들을 보여 드렸습니다. 지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괴로운 기억들 때문에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행복이 망쳐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주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 호수에 있는 가족들은 마치 전혀 세상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가족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기억은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뿌리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 호수 속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했던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억으로부터 당신을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비참한 인생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이 모든 일을 그분 스스로 당신을 위해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종교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철학들을 모두 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저는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세계 연락을 해서 알려 주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천국의 행복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주님께서서는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며(창 2:15)

주님께서 이것을 정하셨으므로 사람은 마음과 손이 부지런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게으른 마음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저는 이 말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게으른 손은 마귀의 연장이다.” 사람은 본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할 일이 없게 되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옳지 못한 일들을 찾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게으른 사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찮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저주받은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창3:17-19).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계22:3)

우리는 천국에서 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피곤하거나 지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 시민이라는 자격으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 행복하려면 우리는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천국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곳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종들이 바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이 안식의 장소라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고 게으르게 안식하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길모퉁이를 배회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집의 영원한 아름다움만을 끝없이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비석에 새겨진 다음의 내용과는 다른 곳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절대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그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히, 영원히...

만일 이 비문이 사실이라면 천국은 비참하고 단조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성경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일을 끝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2:2).

하나님께서 지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게을러지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5:17)

이와 똑같은 이유로 성경에서 성도들이 ‘안식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게으른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 땅의 원수들과 한계 등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압박, 긴장, 땀 같은 것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쯤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면 우리에게 굉장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총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시16:11).

천국에서는 우리의 에너지가 세 가지 방면에 쓰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 1. 경배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게 될 가장 첫째 일이며 가장 중대한 일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천국의 창문 밖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천국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왕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계4:10)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계5:14).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계7:11-12).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께서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15:4).

이와 같이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과 모든 천사들이 지존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 ‘경배’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프로스쿠네오’(proskuneo)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입 맞추다’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천국의 방으로부터 맑게 울려 퍼지는 다음과 같은 명령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시2:12).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보여 드린 성경 구절들 속에서 독자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이 경배를 받는 분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종교인들이 나무, 돌 그리고 금속으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면서 그 우상들 앞에 엎드리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동상이나 ‘성인들’의 동상 앞에서 엎드릴 뿐만 아니라 교황 앞에서도 엎드리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춥니다. 글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잘못된 경배는 다 부정하고 타락한 것이며 한마디로 불경스러운 우상 숭배입니다! 진실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 앞에 절하며 경배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계22:9).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경배는 다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안에 육신을 드러낸 마귀에게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 모하메드, 알라, 마리아, 로마 교황, '성인들', 조셉 스미스, 베이커 에디, 교회당, 침례탕, 그리스도의 수난상, 교파,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 또는 이외의 다른 거짓 신들에게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9-11).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십시오! 당신의 부정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분 이외의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그분의 분노가 불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서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 1. 흠모

그분을 흠모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서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매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강력한 천동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sup>이</sup>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데다(계19:1-6).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계 5:11-12).

## 2. 노래

천국에서 우리의 경배는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행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의 경배도 음악의 틀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교회당에서 음악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설교 말씀이 매우 은혜로웠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사랑하십니다.

숲속에 이는 바람을 위하여 교향곡을 만드시고 피꼬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며 종달새의 목에 음률을 주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합창곡을 작곡하셨고 창조의 날 새벽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겔28:13).

하나님께서서는 별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악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루에서 처음으로 불꽃을 반짝일 때부터 그들은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욘38:7)

“뭘라고요? 그 말씀은 단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별들은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유능한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별들은 무지개에서 볼 수 있는 빛깔들을 띠고 있습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진동을 의미합니다. 진동은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가 서로 바뀔 수 있음을 연구하는 광음향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별은 각각의 음색을 내고 있습니다. 별들이 내는 광선은 어떤 주파수대의 소리를 발산합니다. 과학자들은 별들이 내는 주파수를 조사하고 - 성경이 별들이 노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 별들이 완벽한 조화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들로 주께 노래하였고(대하30:21)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감사드리며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하며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시100:2-4).

하프로 주를 찬양하고 비파와 십현금으로 그분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분께 노래하며 큰 소리로 솜씨 있게 연주할지어다(시33:2-3).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작은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관악기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벌즈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시150:3-5).

성경에서 음악 없이 주님께 경배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모두 음악에 맞게 쓰였습니다. 시편을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노래와 음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천국에서의 음악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감상해 봅시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계 5:9-10).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양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노래의 주제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주제, 즉 지금까지 크리스천들이 찬송한 주제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은 늘 같보리에 관련된 노래일 것입니다! 그 노래들은 지금과 같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노래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드시니이다(계15:2-3).

천국은 천사들의 합창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합창으로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 3. 섬김

천국에서 우리가 행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구절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계22:3)라는 짧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둘로스’(doulos)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빌1:1)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골 4:12).

같은 단어가 천국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계19:5).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계22:3)

주님께서는 이 땅과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하면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섬김이 지금 이 땅에서의 섬김의 연속이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사용된 동사가 ‘둘로스’의 동사 형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둘로스’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라트레우오’(latreuo)입니다. 이 단어는

계시록에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는 다음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또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니(계7:15)

독자께서는 본문 말씀에 나타난 섬김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지만 천국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라트레우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나 교회당 안에서 행해지는 섬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섬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될 분야,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분야는 바로 권위입니다.

## 2. 권세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에 관한 두 개의 비유를 주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 므나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의 종들 중에서 두 명에게 각각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와 ‘다섯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눅19:17-19).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착하고 신실한 두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마 25:21, 23).

당신은 행복 없이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쁨 없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 기간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신실하면 할수록 장차 더 큰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행복도 더욱 커집니다.

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같은 양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 즉 설탕 발린 말을 하는 설교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천국에서 당신이 누리게 될 행복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당신은 영원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 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 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히6:10).

### 3. 활동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흠모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권세로 다스리며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재미있는’ 활동들도 마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이 아닌 어떤 것들을 즐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기 원합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어 주고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영원의 세계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건전하고 유익한 것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본성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 본성의 기질 중에서 주된 특성들을 절대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본성을 주시며(고후5:17; 벰후1:4)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특징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쾌활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새로운 원리들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성격과 기질 면에서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요한은 구원받기 전에는 조용하고 다정다감하며 조용한 타입의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전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요한이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과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모두 천둥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막3:17). 그러나 요한의 타고난 성격은 온화하고 동정심이 넘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목소리가 크고 거칠며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참을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타고난 기질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달러스 카우보이스’라는 미식축구 팀에 소속되어 수비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고아원을 운영했을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았다는 것이 사람의 기질 중에서 두드러진 어떤 특징들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 못한다면 죽음도 그러한 특징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면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서로 달랐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서로서로 다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여러 개의 다른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즐기는 것을 그곳에서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위대한 사랑, 위대한 기쁨, 위대한 환희, 위대한 경배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활동들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땅에서의 사랑이(부부애, 부성애, 형제애, 효 등)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활동들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할 때 아예 귀를 막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천국을 식막하고 딱딱하며 엄정한 계율을 지키는 곳으로 마음속에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냉담하며 죽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이란 사람들이 하프를 타며 구름 위에 둘러앉아 있는, 아주 단조롭고 지루하며 따분한 곳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당신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즐기게 될 활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 교제

우리는 모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친교하고 사귀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그것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교제를 갖기

시작하면 특별히 친교의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갖는 교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쁘는가!(시 133:1)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행2:42).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빌1:3-5).

분명히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우정의 확대나 완성이 영원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서로 교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들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끝없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만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우정을 만들고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만나고 싶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기쁨은 나를 구원해 준 분과의 개인적인 친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제 이외에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입니다. 저는 아담과 이브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에덴동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 저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만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의 장면이 어떠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사건에 대해 뭇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기 원합니다. 다윗은 저를 위하여 시편 23편을 펴서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순간적으로 막으셨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부터 어떻게 불 속에 있던 넷째 사람이 그 바빌론의 용광로의

온도를 조절했는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호!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으려고 합니다! 우와!

저는 엘리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갈멜산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당시의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을 무릎 꿇게 했는지 제게 말해 줄 것입니다!

모세는 제 곁에 앉아서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도 있습니다! 저는 고래 대학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이 어려웠는지 요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별빛이 빛나는 밤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을 만나 보고 싶습니다. 그런 후에 저는 처음에 마리아를 부정하며 부도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즉 마리아 옆에 서 있는 건강한 모습의 요셉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날 특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잘못 이해하여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제게 말해 줄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죽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제게 말해 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에 저는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스테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막달라 그리고 갈보리에서 구원받았던 강도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 십자가 군병인 바울과 친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와! 우리 앞에 얼마나 멋진 영광이 펼쳐집니까? 저는 무디, 집시 스미스, 월버 챔만, 조지 트루엣, 스펀전, 빌리 선데이 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빌리 선데이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설교 중에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만일 영원이 단 일 분이라도 짧아진다면 제가 계획했던 모든 교제를 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저는 많은 이들과 수없이 많은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든 천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천사 군대가 저의 개인적인 친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 2. 오락

위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질 중에서 두드러진 특성들을 없애지 않으며 또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도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축구와 레슬링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제게 복싱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사가 된 후 교회에서 소풍을 가서 소프트볼 경기를 하면 늘 저는 투수를 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신에서 스포츠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다. 바울의 편을 주관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경기장과 경주로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고전9:24; 딤후4:7; 히12:1). 그는 싸움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고전9:26; 딤후4:7). 그는 레슬링에 대해서도 글을 썼습니다(엡6:12).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스포츠와 운동 시합을 좋아한다면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가서도 그 운동들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레이시 형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골프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농구장, 레슬링 매트, 하키 펍 등을 천국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글쎄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들은 새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 속에서는 실제로 온 우주와 셋째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스포츠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운동 경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게는 귀중한 사위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포츠광입니다. 심지어 한 명은 정식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이들이 저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쾌활하며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두 딸과 결혼한 것을 보면 이들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제 사위들이 천국에서 아무런 운동 경기도 하지 않고 멍뚱멍뚱 지내는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원한다면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제 아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 아내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에 졌다면 당신은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술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깊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빛, 그림자, 색상, 원경 등을 공부하며 그림과 사진을 만들고 최고로 기쁜 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예술적인 재능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볼거리가 더 많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욱더 예리한 감상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짜놓으신 일출, 무지개, 석양의 광경들 가운데 서 있게 될 터인데 어떻게 그들의 재능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저보고 화가는 붓을 내던지고 조각가는 끌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술의 행복과 맛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흔적조차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적인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재능과 능력과 자연적인 취향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단지 이 땅에서 며칠 동안만 갖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스튜디오와 매우 밝은 화랑들이 저 위쪽에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는 천국의 음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주하며 노래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음악으로 가득한 곳에 갔을 때 자기들의 재능과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단지 지휘봉을 똑똑 두드리기만 하면 천국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노래를 시작합니다! 만일 천국에 노래가 부족하다면 뉴턴(John Newton), 웨슬리(Charles Wesley), 스탠필(Ira Stanphill), 버나드(George Bernard), 크로스비(Fanny Crosby) 등이 수천 개의 새롭고 장엄한 합창곡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없다면 그 재능 있던 손가락들이 천국에서 아무 일도 없이 놓고 있다고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이 가 있는 곳에는 더욱 좋은 악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음악은 천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천국의 가장 높은 왕좌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음악가들은 화음의 본부에서 음악을 연주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음악가들의 멜로디는 상아로 된 궁전으로부터 울려 퍼지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복도에 반향되고

영광의 언덕들을 메아리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매우 강한 군인 정신을 갖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지금 천국에 있는 군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시기에도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의 세계에서 평화는 규칙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진하면서 박자에 맞추어 드럼이나 행진가를 들을 것입니다.

자연스레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크리스천 형제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군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계19:14).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은 마치 시내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심과 같도다(시68:17).

엘리사는 자기 주위의 산들에 천국의 병거와 기병대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7).

요한은 천국 군대의 용맹함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계19:14).

천국에서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군대들과 말들과 병거들은 분명히 금으로 된 거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병식<sup>1)</sup>을 할 것입니다. 누가 열병식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병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계공이었던 모든 크리스천들이 행복의 근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병거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말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말 외의 다른 짐승들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 땅에 있는 저의 거대한 목장을 운영할 계획을 벌써 세웠습니다. 저는 콜로라도주에서 말과 소들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공간, 새로 베어 낸 건초 더미의 향기 그리고 헛간의 냄새 등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

1) 열병식(閱兵式): 군대에서 각종 특별 행사에 행해지는 행사로서 주로 상관이나 내빈들을 대상으로 군대의 위엄과 질서 정연함을 보여 준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길거리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열병식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새 땅에 있는 저의 거대한 목장을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과 소 그리고 10,000마리의 독일산 셰퍼드, 10,000마리의 세인트버나드, 10,000마리의 바셋하운드 그리고 한 마리의 치와와를 기를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데리고 즐겁게 살았다면 우리의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영원한 삶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지내 오는 동안 어른들과 아이들로부터 몇 차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애완동물을 키웠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또다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그럼요.”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버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시103:13)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아버지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 세상 아버지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제 자녀들이 다 자라나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저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저의 큰딸 코니는 최근에 트럭 사고로 돌리라는 애완견을 잃었습니다. 돌리는 부상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 딸 코니가 자기의 개를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일 천국에서 코니에게 돌리를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다면 저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니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량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코니가 영원히 돌리를 기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 문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고 건전한 것들을 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천국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은 천국에서 무얼 하시죠?”

다른 목사님들에 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고 싶은 일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제가 영원토록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설교 내용을 몇 군데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제 설교를 들어야만 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할 내용이 절대로 바닥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주제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설교할 때 아마도 이 땅에서 했던 설교를 여전히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막내딸 켈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될 것입니다. 켈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제가 말해 준 ‘거인 마이크와 꼬마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켈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약하고 감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켈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책의 후반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켈리를 위해서라면 그 이야기의 즐거리가 천국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넣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저의 막내딸 켈리는 ‘거인 마이크와 꼬마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교해 달라고 저에게 조를 것이 확실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그것과 대응을 이루는 것이 없는 직업이나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 곧 너무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만의 완벽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치과 의사들은 이를 치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안과 의사들은 절대로 문제 있는 눈을 검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물쇠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직업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의사들 특히 이 땅에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크리스천 의사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잎들을 적용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읽었던 한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의사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의사의 이름을 그냥 스미스(John Smith)라고 부르겠습니다.

의사 스미스는 거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 의사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성공을 전혀 모른 채 산간벽지에서 자기 생애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그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의 오래된 건물 이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층은 약국이었습니다. 건물의 바깥쪽에는 곧 무너질 것 같은 계단이 일층부터 사무실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의 아랫부분에는 건물의 모퉁이에 달려 있는 나무로 된 간판이 하나 있었으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요한 스미스, 사무실은 위에 있음

의사 스미스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낼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치료와 간호를 해 주었습니다. 종종 그가 받은 사례비는 통조림 깡통, 집에서 구운 빵, 살아 있는 병아리, 쇠고기나 돼지고기 한 덩어리 등이었습니다. 그 친절한 의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빚을 비추었고 그 결과 많은 영혼이 그가 보여 준 증거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해가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귀한 의사는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더욱더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분만시키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수십 년 전에 분만시켰던 사람들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아흔 살이 되었을 때 그의 건강은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건강을 잃어 갔고 마침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장례식에 모여들었습니다. 관이 땅에 내려질 때 누군가가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묘비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조객들은 서로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묘비의 비용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의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묘비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그 작은 공동묘지 옆으로 지나가면서 늙은 의사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나무 꽃말을 보았습니다. 그 꽃말에는 비바람에 씻겨서 낡게 된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적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사 요한 스미스, 사무실은 위에 있음

### 3. 배움

우리의 창조자께서는 사람들 속에 배우려고 하는 욕망과 지식을 증대시키려는

마음, 또 모르는 것을 조사하려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단12:4).

최근 20년 동안 의학, 컴퓨터, 전자 공학, 항공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진보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신비를 벗겨 내면 낼수록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3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들, 즉 자신의 말씀 안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상 끝 날에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지식도 포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세계로 옮겨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대들이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친히 쓰신 말씀의 깊이를 계속해서 측량해 주시며 그 광대한 지식의 부요함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울과 함께 아마도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깊도대!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아내지 못하리로다!(롬11:33)

하나님께서 전 우주에 숨겨 놓으신 모든 지식의 보물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 가게 되면서 우리는 또한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인들 중에 한 가지는 배움이 계속된다는 것과 영원히 계속될 학문의 발전입니다!

수학을 사랑하는 크리스천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숫자와 그림들 때문에 영원히 바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별들은 천사들과 같이 무수히 많습니다(히12:22; 시147:4; 창15:5).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할 것입니다. 숫자가 무한대! 거리도 무한대! 계산도 무한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탐험가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마음껏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현미경과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은 시력을 갖고 빛처럼 빠른 속도로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눈에 대륙 하나가 보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보입니다. 곧바로 은하계가 보입니다. 태양계 전체를 하루 만에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큰 산맥이 작게 보입니다. 잠수 장비 없이 깊은 바닷속 산호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여행을 통해 우주를 두루두루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역사학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 지구의 몇 세기 역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의 세계에 대한 역사, 천사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던 시대 이전의 역사 등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천문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천문학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구상의 천문대에서 사용하는 감도가 떨어지는 렌즈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목성, 토성, 화성, 명왕성, 수성, 오리온자리, 묘성 등을 순식간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날아가서 가장 빠른 혜성들을 따라잡아 그 옆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화학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영원히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학에 푹 빠져서 그 깊이를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실험실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신비의 물질을 끝없는 우주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풀지 못해 찢찢매던 수백만 개의 수수께끼들을 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법률가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과 관련된 직업에서 기쁨을 누리던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우주 속에서 법을 연구하면서 천국의 기쁨에 집중할 것입니다. 벌새의 비행 법부터 이 세상의 법까지 총망라하여 그들이 연구하는 하나님의 법은 지루하고 고된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굉장히 좋은 법일 것입니다. 그 법은 사람, 그룹, 스랍 그리고 천사가 놀라움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끈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영원의 무한한 광대함을 둘둘 감기에 충분합니다. 법을 공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끈은 온 우주를 주관하는 대주재(大主宰)의 전능한 손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원예학에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영광의 화원에서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가꾸면서 얼마나 황홀한 행복감에 잠기겠습니까?

건축가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대건축가의 비할 데 없는 능력을 연구하며 끝없는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은 상아의 궁전 의상실에서 최신 유행하는 옷들을 바라보고 디자인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과 글을 쓸 공간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앞에 펼쳐질 수없이 많은 직업과 활동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연구하고 그분만을 배워 가는 동안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한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로 마주 보고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론의 장미 예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연구할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하나님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탐험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조사할 것입니다.

군대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시켜 준 구원의 대장을 응시하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 안에서 끝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법학자들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의사들은 위대한 치료자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목사들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에 대해 알아 가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원히 다른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찬양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외친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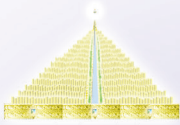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5-6).



# 만물의 회복

Ω

오메가  
시대들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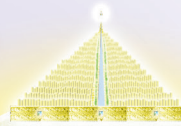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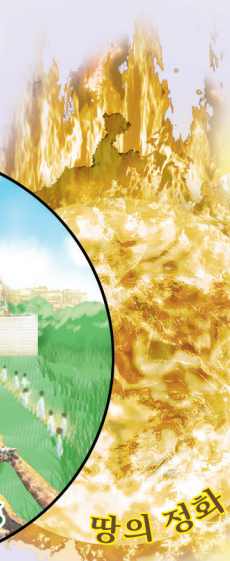
새 예루살렘



아돔의 사다리

창28:10-15; 요1:51

천년왕국의 땅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음(계21:24)

새 땅

땅의 정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이어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속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 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 제7장

# 천국의 종



*Bells of Heaven*

오래전에 쿠싱(W. O. Cushing)이라는 작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찬송가 314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먼 데 죄인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도로 찾았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회개한 자 용서받았네.  
죄의 종 된 자를 구해 주시니 성령으로 다시 났도다.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회개한 자 갈 수 있도다.  
오늘 귀한 영혼 다시 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하프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얼마 뒤 루트(G. F. Root)라는 사람이 쿠싱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세계 도처의 교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자극을 주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국에 종이 있다고 실제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성경이 쿠싱 형제의 찬송시를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통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일어났을 때 종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종(방울)을 사용하셨다는 것과 장차 천년 왕국에서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겹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것의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돌려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출28:31-34).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날에는 말방울들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겨질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솔들은 제단 앞의 대접들과 같을 것이며(슌14:8-9, 20)

여기 나오는 방울은 다 영어로 'bell'이며 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종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기쁨의 파도가 넘실거릴 때마다 사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종이 울리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바리새 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으면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어떤 여자에게 드라마 열 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쏘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으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10).

여러 해 동안 목사로 지내 오면서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은 다음이었습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 책의 1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천국의 바깥에 서서 천국의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천국의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천국의 창을 통해 밖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 땅뿐입니다. 누군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천국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천국의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한 죄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회개한 죄인을 새롭게 탄생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재빠르게 금으로 된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국의 종을 울리는 거룩한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영혼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천국에서의 기쁨은 마치 땅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을 때의 기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양들을 키웠습니다. 양처럼 잃어버리기 쉬운 짐승이 없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양치기의 집을 그려 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은 밤입니다.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번개는 그 하얀 불로 된 톱니날로 하늘을 여기저기 베고 있습니다. 천둥소리는 집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양치기의 부인과 아이들이 난롯불 주위에 몰려듭니다. 양치기 부인의 표정에는 근심과 걱정이 역력합니다. 남편은 바깥으로 나가 몇 시간 동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의 공포심은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점점 심해집니다. 천둥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족들은 모두 빗방울이 튀는 창으로 뛰어갑니다. 푸르스름한 빛깔의 번개가 번쩍이는 속에서 그들은 집으로 다가오고 있는 양치기와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는 어린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빛이 배어나오고 있으며 그는 환희에 가득 차서 외칩니다. “나는 요 녀석을 찾고야 말았다! 나는 찾고야 말았어!”

가족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 나올 때 양치기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전등을 갖고 집으로부터 쏘살같이 달려 나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치기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리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내 양을 찾았소! 내 양을 찾았던 말이요!”

양치기는 젖어 있던 어린양을 바짝 말려서 우리 속으로 다른 양들과 함께 안전하게 집어넣습니다. 양치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기쁜 마음으로 양치기의 집에 모여들어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불쌍한 새끼 양을 찾게 되었나요?”

“음…” 양치기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린양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양치기 개들을 불렀습니다. 곧바로 나는 들판을 찾아 나섰고 이곳저곳 다리를 건너다녔습니다. 나는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욱더 걸음을 재촉했죠. 언덕을 급히 달려 올라갔고 도랑들을 뛰어넘어 다녔지만 양의 울음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졌거나 늑대나 들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새끼 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폭풍우와 함께 밀려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죠. 내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천둥과 바람이 그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때 나는 가엾게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새끼 양이 갈라진 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끼 양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 새끼 양을 틈에서 꺼내어 주었을 때 그 새끼 양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 새끼양은 절뚝거렸고 쇠약했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내 새끼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집까지 왔습니다.”

양치기의 부인은 상을 펴고 소박한 농가에서 내올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차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언덕들을 환하게 비추는 아침이 될 때까지 양을 찾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곳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기뻐하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드러움과 소박함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0).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주신 말씀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0).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룹들, 스랍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성경책을 뒤져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천국의 종을 올리게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주의 창문으로 내려다보다가 잃어버렸던 한 죄인, 즉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때 천국의 종들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소식은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재빠르게 전달됩니다. 종들이 환희의 소리를 퍼뜨릴 때 천국의 모든 시민들은 새롭게 다시 태어난 영혼의 이름을 듣게 되고 결국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런던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종들은 왕족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왕위를 갖게 되었을 때에만 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종들은 그 성당 내에 있는 종들보다 더욱 특이합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때에만 울립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 어떤 사람은 수백억 원을 상속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일은 하늘의 창문을 통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비록 당신이 거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어떠한 종도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크리스천들이 ‘더 깊은 삶’ 속으로 푹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것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온 세상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전적인 성화’와 ‘자기 부인’을 이루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이웃들은 무저갱, 즉 바닥없는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지하고 순수한 성경 공부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종들은 누군가가 ‘완전히 성화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족보를 암송할 수도 있고 사도 신경을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억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종들은 병어리처럼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몹시 ‘깊이’ 들어가서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목재의 웅이구멍이 영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도 있고 다니엘서에 있는 솟염소의 수염의 중요성과 바울이 간혀 있던 빌립보 감옥의 감방 문에 있는 경첩이 왜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창문을 내다보며 단지 하품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오한’ 것이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당신에게 불타는 열정을 제공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불타고 남은 조각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에서 끄집어내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유23)!

무엇이 진정으로 깊은 삶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증명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4:19)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 구원자였던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의 구원을 낚시하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잡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눅5:4-6).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깊은 삶입니다!

말씀을 한 단계 더 이해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서 베드로의 동업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올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육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눅5:10-11).

당신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완전 성화’를 이루고 옛 성품을 완전히 없애 버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그것은 곧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여,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스스로 거룩한 채 하십시오! ‘자기 부인’으로 무장된 여러분이여, 계속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를 욕하고 비난하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얼굴이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 화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당신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4:19)

만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계속 행하십시오. 당신만의 아성을 혹 붙어서 넘어뜨리십시오. 당신의 ‘성결하게 된’ 이로 제계 분노를 내십시오. 당신이 지금 ‘깊은’ 생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대위임을 주실 때 무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죄인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동안 크리스천들에게 너희의 본보기를 따르고 깊은 행동과 완전 성화와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라고 조언해 주어라(망설임서12:6).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롬1:16)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 저와 당신이 몸과 혼과 영을 다해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골리앗의 검 손잡이가 영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를 배우고 발람의 당나귀 꼬리가 예언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망상서1:1).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요15:16)

열매라고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잠11:30).

성도들이여, 이제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당신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성경 말씀에 꼭 빠지십시오. 시종일관하여 성경을 암기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말씀은 당신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입니다!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준 뒤에 교회들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만 합니다(마28:19-20). 그들을 가르쳐야 또 다른 영혼 구원자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종들은 절대로 누군가가 ‘침례를 받고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내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있는 성도나

천사 중 어느 한 명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종소리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종도 소리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10억 원짜리 오르간과 최고급 의자를 갖추고 스테인드글라스로 된 대성당을 만들 수도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따분하고 지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자기 이름 앞에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붙일 수도 있지만 만일 모든 학위를 갖고도 뜨거운 열심이 없다면, 마음속에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불꽃이 없다면 학위를 따기 위해 받았던 모든 교육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천국의 종을 울리고 천국의 안내자들을 보내어 금으로 된 길을 기뻐 외치며 오르내리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가지뿐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5:10).

저는 앞에서 천사들의 눈앞에 있는 몇몇 인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앞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창문을 통하여 이 땅을 자세히 내려다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기뻐서 필쩍필쩍 뚝뚝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왜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1. 천사들은 창조의 아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욥기 38장 7절에서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땅의 기초들을 세우던 그날에 모든 천사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은 창조 역사를 다시 한 번 보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건은 천사들에게 창조의 아침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8-10).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면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물(고후5:17)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며 그래서 천사들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너무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꾸짖는 교회나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시험으로 인해 미끄러져서 다시 잃어버린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하는지’ 천사들이 기다려 봐야만 한다고 추측합니다. 이들은 새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의 선행으로 믿음을 유지해서 마침내 천국에 가게 될 때에야 비로소 천사들이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고는 스스로 그것을 없애 버리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없애 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천사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요 15:16).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열매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명의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늘의 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종을 울리고 금으로 된 먼지를 일으키며 천국의 모든 곳에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외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천사들은 그 죄인이 무엇을 모면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불을 켜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마25:41). 그들은 죄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결국 저들이 불꽃으로 범벅된 경첩에 달려 있는 숲으로 뒤덮인 문짝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이러한 운명에 빠진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어두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의 심한 고통을 봅니다. 그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벽으로부터 튀겨 나오는 흐느낌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이를 갈고 있는 지옥의 거주민들을 수 세기 동안이나 말없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지옥의 죄수들은 결코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도망갈 수 없다는 서글픈 사실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며 천사들은 이런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매우 기뻐합니다. 그들은 그 죄인이 무엇을 모면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종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머리로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바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구원 문제를 연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 때문에 천국에서 커다란 기쁨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의 저주를 모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이 무엇을 벗어나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몹시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이 저지른 죄와 종교와 인본주의 철학에 얽매어 산다면 당신이 불 호수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말없이 당신을 쳐다볼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0-11).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몹시 기뻐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 사람이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타는 것을 자기들이 지켜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천사들이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 천사들은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천국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장엄함과 그 속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굉장한 기쁨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주로 된 문들과 금으로 된 집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 생명나무 그리고 금으로 된 거리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죽음도 없는 천국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고 세상적이며 타락한 마음으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기쁨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옥으로 가야만 했던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전의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완전히 180도 돌아선 후에 천국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기뻐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것을 몹시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자기들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천사들이 즐거워하며 지켜보는 장면을 당신은 상상해 볼 수 없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늘 아무개를 본향으로 인도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 천사들이 그 장면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면 본향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과거에 사랑하던 사람들과 친구들은 영광의 문으로 신속히 달려 나갑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우는 장면을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도 사역을 해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공항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비행기에서 내려와 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기뻐서 우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때에는 단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천국의 문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천사들이

보게 될 때 그 장면은 과연 어떠할까요?

몇 년 전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어떤 언덕에 있던 마을에 그 지역 철도 회사에 기관사로 근무하는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니였습니다. 베니가 운전하는 기차는 매우 큰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을 위한 통근용 기차였습니다.

젊은 베니에게는 그를 매우 사랑하는 노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자기 아들이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 집을 떠나간 후에 뒤늦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노부부의 집 근처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노부부는 구원받은 날로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베니에게 증언했고 그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눈물로 그들은 베니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베니는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했지만 그리스도나 교회 혹은 성경을 가까이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때때로 베니에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베니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은 베니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의 집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젊은 기관사 베니는 목사님을 내쫓으며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부부는 주님께서 베니의 마음을 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이 노부부의 작고 하얀 시골집은 철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철길이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향을 트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기차는 선로를 바꾸어 언덕을 내려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베니는 근무 날이면 매일 아침 일찍 마을에 있는 기관차 차고에서 기차를 몰고 나와 철로를 운행하며 광부들을 태우고 또 내려 주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베니는 다시 거꾸로 광산으로부터 사람들을 태워서 각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언덕에는 경사가 급한 곳과 급커브가 많았기 때문에 기차가 다니기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노부부는 아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은발의 노부부는 기차 오는 소리를 듣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뒤뜰에서 모퉁이를 돌아 달려오고 있는 큰 기관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니는 늘 부모님이 뒤뜰에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차가 모퉁이를 돌기 직전에 큰 경적 소리를 울리곤

하였습니다. 작은 딸이 눈에 들어오면 황혼의 금빛 속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백발을 하고 서 계시는 부모님을 베니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관차실 창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곤 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손을 흔들어 답례하였습니다.

기차가 언덕을 넘어 마을로 내려갈 때면 키가 작은 베니의 어머니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베니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군요.”

베니의 아버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베니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구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그 기차의 경적 소리는 황혼 무렵에 들려왔습니다. 그 커다란 기관차는 매일 그 모퉁이를 돌아갔습니다. 노부부는 손을 흔들어 베니에게 인사했고 베니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기차가 언덕 꼭대기를 넘어 사라질 때면 키가 작고 백발이 다 된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베니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군요.”

늙고 점잖은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베니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구려.”

어느 날 경적이 울리고 기관차가 코너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니가 기관실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은발을 하고 계신 아버지가 홀로 서 계셨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님이 손을 흔들고 계실 때 베니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아무런 박동도 없이 얼어 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게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기관사의 두려움은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큰 기관차를 차고에 대었을 때 부모님의 이웃 사람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의 얼굴은 몹시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니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고는 느린 속도로 터벅터벅 기관실을 내려왔습니다.

이웃 사람이 말해 주었습니다. “베니, 나도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참 안타깝네만 오늘 자네가 일을 나간 직후에 자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네… 그리고… 그리고… 돌아가셨네.”

사흘 후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실 때 덩치가 큰 베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베니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베니,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당신과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베니는 어깨를 휘젓고는 턱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는 급히 돌아서서 공동묘지를 떠나 버렸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기관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고 큰 기관차는 모퉁이를 돌아왔으며 베니는 백발의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늙고 외로운 아버지는 손을 흔들어 답례했고 기차가 언덕을 넘어 마을로



내려갈 때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베니가 오늘 밤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구려.”

어느 날 경적이 울리고 큰 기관차는 모퉁이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베니가 기관실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집 뒤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날의 충격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베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차고에 기관차를 넣은 후 베니는 예전과 같이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이웃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베니의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베니는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며 천천히 기관실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베니, 또다시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미안하네만 오늘 정오쯤 되어서 늘 하던 대로 자네 아버님이 잘 계신가 알아보려고 들렀는데…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더군요.” 그 사람은 베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베니,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나?”

베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 이웃 사람은 베니가 급히 자기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급히 주차장을 떠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 차는 목사님의 사택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차를 했습니다. 덩치가 커다란 베니는 목사님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물을 흘리면서 베니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괜찮으세요?”

“난 괜찮습니다. 베니, 어서 들어와요.”

베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서 우리 아버지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진지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참 안됐군요. 그러나 아버님은 늘 돌아가실 날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날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먼저…”, 베니는 코를 훌쩍거리며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날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었죠?”

“아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시려고 할 때마다 제가 악담을 하며 거절했던 것 말입니다.”

“다 잊어버려요, 베니.” 목사님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일 말고 무슨 일로 찾아 왔나요?”

“음…” 베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마지막 기차가 마지막 승객들을 태우고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종말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베니, 하지만 당신 말대로 이 시대의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승객들이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베니는 줄곧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 나갔습니다. “저 위 천국에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차가 천국의 차고에 들어갈 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올려다보시며 ‘여보, 베니가 오늘 밤에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군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시며 ‘그래요, 여보, 베니가 오늘 밤에도 무사히 집에 돌아왔구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베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베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종들이 어떻게 울리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또 천사들이 어떻게 크게 외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베니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아름다운 베니의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차가 천국에 있는 차고에 들어가기 위해 멈추어 서자 덩치가 큰 베니가 금으로 된 플랫폼에 발을 내딛게 되는 모습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 플랫폼에는 무엇인가를 열렬히 고대하는 눈으로 시간을 보내던 두 명의 성도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두 볼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베니가 오늘 밤 무사히 집에 돌아왔군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래요, 여보, 베니가 천국 집에 오늘 밤 무사히 돌아왔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먼 데 죄인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앓은 자식 도로 찾았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치네. 회개한 자 용서받았네.  
죄의 종 된 자를 구해 주시니 성령으로 다시 났도다.  
천국 종을 치고 잔치 베푸네 회개한 자 갈 수 있도다.  
오늘 귀한 영혼 다시 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하프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 제8장

# 천국의 창문



*Windows of Heaven*

노아의 삶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달 십칠일 바로 그날에 큰 깊음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windows of heaven)이 열리며(창7:11)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막혔으며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창8:2)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성경은 하늘에 창문(window)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유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창문’이 단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며 실제의 창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책의 앞부분에서 천국이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 장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의 창문이 비유적인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23:6).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요14:2).

창문이 전혀 없는 집에 대해 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만으로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천국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천국이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창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지금 창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창문을 들여다봅니다. 이 책의 3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창문의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안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아빠와 함께 별이 총총 떠 있는 밤하늘 아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하늘의 눈부신 아름다움만을 감상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두 곳이 있는데 잘못된 쪽의 하늘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올바른 쪽의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도 이 소녀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천국의 광경을 볼 때면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사람이 만 가지 다른 언어를 할 수 있다 해도 ‘잘못된’ 쪽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쪽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극찬하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시8:3)

그러나 다윗은 별들 너머, 즉 ‘올바른’ 쪽의 하늘에는 이보다 더 위대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상상력이 넘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시8:1).

하늘의 이쪽이 이렇게도 아름다우므로 저는 하늘의 반대편을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눈물, 상심, 수고, 질병, 고통 그리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당신은 천국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소원이나 갈망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녁에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고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요6:66). 그날 저녁은 정말로 침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겐세마네로 가셨고 그곳에서 울부짖으셨으며 발길을 돌려 갑바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재판관을 받으시고 그 후에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길을 떠나시기 전에 그 지치고 곱먹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들이 다음 세상에서 그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라. 나는 하늘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난다. 내가 가서 너희가 살아갈 장소를 마련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게 될 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쓰디쓴 마음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슬픔이 천국에서는 말끔히 사라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며 우리는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과 영원 속에서 가장 달콤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이제 천국의 바깥에 서서 천국의 창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안을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잠시 후 우리는 천국의 안쪽에 서서 같은 창문을 통해 땅 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번 스테반의 눈을 통해 천국의 창문을 응시해 봅시다.

## 1. 스테반의 눈

사도행전 6장을 읽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로 공회와 대항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12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짓 증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 공회 앞에 서서 스테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행6:13).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당히 서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구식 믿음(유3)을 옹호하며 ‘겁 없이 꾸미지 않고 똑바로 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교단 종파 옹호자들은 그런 설교자를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그들의 교회나 교단을 지명하며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설교자가 그들의 ‘거룩한 곳’에 대해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한다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 설교자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표준역」(RSV), 「신미국표준역」(NASV), 「현대인성경」(TEV), 「두에랭스역」(Douay Version), 「신국제역」(NIV), 「신영어역」(NEV), 「신세계역」(New World Translation), 「확장역」(Amplified Version),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살아 있는 성경’, 즉 「리빙바이블」(Living Bible)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왜곡한 ‘현대 역본들’을 잘못된 성경이라고 호되게 비판하면 그들은 그 설교자가 ‘울법’을 거슬러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공회에 앉아 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행6:14-15).

저는 스테반의 찬란히 빛나는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스테반의 얼굴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얼굴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크리스천들은 노동에 찌든 채 오렌지 농장에서 태어난 듯한 얼굴을 하거나 식초로 침례받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영구차를 타다가 돌아온 듯한 슬프고도 지친 모습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교도 단체의 교주가 한 침례교 선교사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주의 깊게 연구했다는 기사를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주는 침례교 선교사 가족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나라,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와 기쁨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주는 그 선교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얼굴이 빛나도록 만드는 약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일들이 그러하냐?(행7:1)

스테반은 그곳에 있던 군중들에게 신랄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다. 그는 포괄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의

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행7:54-56)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말끔히 치우시고 하늘의 창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그 창문을 통해 천국의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스테반의 눈을 통해 천국의 안쪽을 보기 바랍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저 천국을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천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흑인 소년이 불치의 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근처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그를 문병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행복과 장차 자신이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으.. 난.. 곧 하느..을에 갈 거에..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난 예수님과 으.. 영원히.. 같이 있을 거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을 떠나신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라고 그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가셨다고 생각해 보렴. 그러면 넌 어떻게 할 거니?”

그 죽어 가고 있는 소년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지옥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천국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테반은 천국을 쳐다보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창문을 통해 그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되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히10:12)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거기 응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히1:13)

그렇다면 스테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왜 그분께서 서 계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저는 독자께서 하늘의 창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스테반이 이제 막 죽게 되었을 때(행7:60) 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시116:15).**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으리으리한 정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있는 천국의 창문이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바울의 눈을 통해 천국의 창문 안쪽을 응시해 봅시다.

## 2. 바울의 눈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후12:2-4).

바울이 하늘의 창문을 통해 보았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것을 언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어리벙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들었던 것에 대해 단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귀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천국에 갔다가 내려와서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니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약 14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14장 8-22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때입니다.

바울이 그 순간부터 죽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주목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무모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빌1:21).

그는 계속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죽음을 선택하여 이 낡은 세상을 뒤로한 채 떠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이 세상을 연결하고 있던 유일한 끈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 봅시다.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빌1:23-24).

위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바울은 죽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는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독자여, 제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종할 때 그들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바울의 눈을 통해 천국의 창문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은 바로 당신이 사랑했던 성도들이 간 곳이며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히 빛나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말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이 알려 준 것만으로 만족하기 바랍니다.

이제 한 번 더 회개한 강도의 눈을 통해 천국의 창문 안쪽을 응시해 봅시다.

### 3. 회개한 강도의 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좌우에는 두 명의 범죄자(강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23:39-43).

우리는 이미 이 책의 앞부분에서 구약 시대의 낙원이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다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 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시간 낙원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고후12:2-4).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가 하늘로 간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 도둑의 눈을 통해 천국의 창문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 1. 강도 아저씨, 천국에는 어떠한 고통도 병도 죽음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강도 - 실제로 그는 전과 몇 번의 도둑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강도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 는 영광의 언덕들과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과 아름다운 도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신과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확실하니 믿어도 좋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중에 몇 가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견디기 괴로운 십자가 고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것이었죠. 난 살면서 여러 가지 경우에 힘들어했지만 그런 경험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큰 못이 내 손과 발을 뚫고 들어왔을 때 내 온몸에서 일어나는 경련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심한 몸부림, 고통, 열, 혐오스러움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나는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의 문까지 나를 따라와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끌어내려 하는 죽음의 그 칙칙한 손이 어떤 것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 아저씨의 입가에는 갑자기 미소가 피어납니다. “아... 그러나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는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곳 천국에서 거의 2,000년을 살아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언덕들을 돌아다녔고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거리를 직접 걸어 다녀 보았습니다. 나는 2,000년 동안 이곳에서 직접 체험한 사실을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한 번도 고통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도 한 번도 못 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땅에는 죽음이 결코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이곳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 훌륭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휠체어나 목발이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곳에는 영안실도 없습니다. 땅에서처럼 여기 저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의 거리에서는 장례 행렬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 2. 강도 아저씨, 아저씨는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그는 머리를 뒤로 제치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냐고요? 하하하!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당신들은 세상과 육체와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마귀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낮은 땅에서는 죄의 저주가 당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어서 당신은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곳에서는 당신의 행복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엄청난 복이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우우... 와! 이곳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곳입니다!”

## 3. 강도 아저씨, 물어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저씨는 거의 이천 년 동안이나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 도둑의 두 눈은 마치 새로 탄생한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죠! 그분은 빛이시며 천국의 생명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성경에서 그분에 관해서 읽었던 것과 똑같거나 그 이상인 분이십니다. 당신이 여기 도착하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 속에서 살고 그분의 사랑의 빛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굉장한데…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전, 상아로 만들어진 궁전, 음악, 영광의 언덕, 아름다운 도시, 진주로 만들어진 문, 꽃으로 가득한 정원, 많은 보석으로 장식된 벽, 금으로 포장된 길, 금으로 된 집들,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강, 거리를 수놓은 가로수들, 강가에 줄서 있는 나무들, 하나님의 수공품들의 눈부신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기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최고는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곳 천국에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이럴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세!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천사들이 그분께 엎드리고 왕관을 가지고 나와  
그분께 왕관을 씌우네.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 4. 강도 아저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 강도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제사장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의 처형 때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리아에게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가고 있는 동안에 포도주와 빵을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천주교의 성체 역시 아무 쓸모없습니다. 공황을 베풀어 달라고 로마 군인에게 간청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내게 침례를 베풀게 해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나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와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당시에 절대로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리 문답집을 가지고 있었고 성체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수난상을 붙잡고 있었고 로사리오 묵주를 돌렸으며 방언을 말하고 충성을 끝까지 지켰으며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다른 것을 믿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쓰여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제 당신께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내버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에서 등을 돌리며 죄를 회개하고 저 강도가 했던 것과 같이 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앞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이제 천국의 안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천국의 창문을 통해 지구 쪽을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해낸 성도들의 긴 명단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십니다. 바로 그다음 장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히12:22)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큰 경기장(스타디움)을 보여 주시는데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거기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땅에서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히12:1)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일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육상 경기가 열리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스타디움의 관람객들처럼 그들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중서부에 있는 어떤 대학에 모든 사람들이 ‘거인 마이크’(Big Mike)라고 부르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키가 196cm이고 몸무게가 113kg이나 나갔습니다. 그는 근육질의 남자였으며 자기 팀에서 최고의 수비수였습니다.

마이크는 최고의 운동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마이크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줄리는 그 학교의 캠퍼스에서 평화와 밝은 빛이 늘 넘쳐 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마이크는 동료 운동선수들 중 몇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이크와 줄리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귀여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도 마이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구가 큰 아버지와 비교해서 그 아이를 ‘꼬마 마이크’(Little Mike)라고 불렀습니다.

거인 마이크가 대학교 3학년 시절 꼬마 마이크가 세 살 때였습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는 거인 한 명과 꼬마 한 명이 잔디에서 함께 뛰어노는 광경이었습니다. 꼬마 마이크는 거인 같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더욱 작게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크고 넓적한 어깨 위에 꼬마 마이크를 올려놓으면 꼬마 마이크가 기뻐서 웃는 소리를 주변 사람들은 들곤 했습니다. 캠퍼스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또 다른 것은 스타디움에서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 시즌에 줄리는 홈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꼬마 마이크를 데리고 일찍 경기장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줄리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곳에 도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꼬마 마이크와 손잡고 들어오는 줄리를 볼 수 있었고 줄리와 꼬마 마이크는 홈팀 벤치 바로 뒤에

있는 50야드 선에 미리 지정되어 있던 자리로 안내되었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하여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면 그 스타디움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변해 버리곤 하였습니다. 꼬마 마이크는 아빠가 속해 있는 팀을 환호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선발 선수들의 이름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면 관중들은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해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고대하고 있던 번호 86번이 소개되면 줄리는 “마이크야, 손뼉 쳐라! 아빠다!”라고 꼬마 마이크에게 말했습니다.

꼬마 마이크는 두 손을 불쑥 치켜들고는 아빠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면 줄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꼬마 마이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꼬마 마이크도 적절한 시기에 기뻐하며 아빠를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마이크가 상대방 쿼터백에게 맹공을 퍼붓거나 상대방 선수를 태클하거나 상대방 플레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면 꼬마 마이크는 마치 응원석을 혼자 떠맡고 있는 것처럼 열광적으로 아빠를 응원했습니다.

시즌의 중반쯤 되던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줄리와 꼬마 마이크는 보통 때처럼 50야드 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가 3쿼터 초반이었을 때 경기장에 헬멧 부딪히는 강한 소리와 어깨에 댄 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선수들이 한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풀어져서 일어나서 나오는데 한 선수가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다리는 그의 몸 아래에서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그는 거인 마이크였습니다.

줄리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막고 숨 막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크야, 아빠다! 아빠가 다쳤어…!”

팀 트레이너가 그녀의 남편인 마이크를 물리 치료사에게 데려가는 동안 줄리는 두 팔로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달려갔습니다. 줄리와 꼬마 마이크는 구급차에 타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후 즉시로 거인 마이크는 오른쪽 무릎을 수술받아야만 했습니다.

줄리와 꼬마 마이크가 아빠가 회복실로부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수술을 맡았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만약 마이크가 자신의 지시만 따르면 다음 시즌까지는 무릎이 완쾌되어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줄리에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거인 마이크는 목발을 그만 사용하고 지팡이를 사용했으며 그 뒤 더욱 호전되어 지팡이 없이 짙짙 짙 짙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즌 바로 전에 하는 훈련 때에는 다리를 절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다리는 예전 같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치는 마이크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86번 마이크는 선발 선수로 기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삼진 선수들 틈에 끼여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코치의 마음도 아팠지만 마이크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마다 홈경기가 열렸다가 막을 내리곤 했습니다. 거인 마이크가 경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줄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아빠가 속해 있는 팀에게 응원해야 할 때가 되면 어린 마이크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거인 마이크가 다른 선수들과 함께 축구 경기장 안에 나타났습니다. 응원단은 팡파르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 동안에 86번 선수는 50야드 선에 있는 지정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줄리와 아들 마이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인 마이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줄리는 언제나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스타디움에 도착했었습니다.

1쿼터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마이크는 느닷없이 경찰 한 명이 경기장 옆으로 내려와서 코치를 옆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듣고 난 후 갑자기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경찰은 잠시 더 무슨 얘기를 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치는 벤치에 앉아 있는 86번 선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코치는 마이크를 옆쪽으로 불러낸 뒤 불길한 표정을 하며 머뭇머뭇 할 말을 망설였습니다. “마이크…, 나는… 마이크… 응, 나는…”

“코치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마이크는 심호흡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말이지…” 코치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네 부인 줄리가 자네 아들을 데리고 경기를 보려고 오고 있는 중에… 아…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마이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코치의 눈에서 눈물이 펄펄 쏟아졌습니다. “그래 마이크… 고속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자네 아들이 미끄러지면서 엄마와 잡았던 손을 놓치고… 그만…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다. 마이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네.”

마이크의 몸은 얼음같이 굳어 버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치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이크, 경찰들이 줄리를 병원까지 데려다주었다는 군. 그리고 진정제를 맞고 있는 중이래. 아마 얼마 동안은 잠들어 있을 거야.



자넨 빨리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 경기가 끝나는 즉시 병원에서 만나지.”

마이크는 실의에 가득 찬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는 잠시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한 손을 마이크의 큰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크, 알려 줄 게 하나 있어. 내가 자네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알려 달라는 뜻이야.”

“코치 선생님, 고마워요.” 마이크는 아직도 그 충격적인 소식에 놀라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자, 내 말 이해하겠지? 나는 경기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해.”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대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겠네.”

거인 마이크는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치는 경기에 다시 몰두하면서 보통 때 서 있던 장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후 코치는 뒤로 돌다가 86번 선수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코치는 너무나도 놀란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크, 아직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 왜 그랬어?”

마이크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을?”

“조금 전에 코치께서 말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말이예요.”

“물론이지, 마이크.” 코치는 마이크의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야, 그 무엇이랄도 돕겠네.”

“좋아요. 그럼 나를 지금 시합에 넣어 주세요.”

코치는 못 믿겠다는 듯이 마이크를 쳐다보았습니다. “널..., 너를 시합에 넣어 달라고?”

“그래요.”

“마이크,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아들이 방금 죽었다고.”

“잘 알고 있어요.”

“마이크, 너 미쳤니? 난 그렇겐 못해... 네 다리를 보라고... 난 못해.”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한 말은 빈말이었나요?”

코치는 두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었습니다. “마이크, 물론 그렇게 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코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좋아, 마이크 나는 지금 자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네. 하지만 이번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면 시합에 너를 넣어 주지.”

잠시 후 관중들은 86번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대단한 환성을 질러댔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이 재빠르게 쿼터백에게 패스되었습니다. 쿵쾅! 상대방 쿼터백 선수가 납작하게 자빠져 있었습니다. 거인 마이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두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러닝백을 넘어뜨렸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8야드 뒤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도 상대방의 공격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거인 마이크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시합에서 마이크가 시합에 들어간 후로 수비는 그가 다 해냈습니다. 그는 신들린 선수처럼 시합을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는 마치 완전 무장한 탱크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크가 속한 홈팀의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 상대방 팀은 단 한 점도 내지 못했습니다. 거인 마이크의 멋진 플레이가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엄청난 기쁨으로 가득 찬 승리의 선수들은 탈의실에 모여들었고 거인 마이크의 등을 툭툭 치며 마이크의 대단했던 플레이를 칭찬했습니다.

마이크는 오래 써서 낡은 어깨 보호용 천을 꺼냈고 어깨 보호구를 풀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선수들 중 한 명이 흥분되어 말했습니다. “마이크, 나는 네가 오늘같이 멋진 플레이를 하는 걸 처음 보았어! 네 아픈 다리 말이야! 하하하! 자넨 우리한테 비밀을 털어놓았잖아. 그렇지?” 다른 선수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치가 탈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잘했어!” 그는 찌렁찌렁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잠시 내 말을 들어주기 바란다! 너희들에게 말해 주어야만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탈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코치는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시합 전에 꼬마 마이크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모든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합에 참가하게 해 달라는 마이크의 부탁을 자신이 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선수들은 충격적이고 불쌍한 마음으로 거인 마이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선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마이크... 어떻게 시합을 할 수 있었는지? 나는 네가 경기하던 모습이 이해가 안 돼. 특히 오늘 보여 준 너의 플레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맞아, 마이크, 어떻게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니?” 다른 선수들도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크는 똑바로 일어서서 가슴을 짝 폈습니다. 턱을 꼳꼳이 세우며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 말해 줄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마이크의 말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내가 크리스천이란 걸 잘 알 거야. 지금까지 나는 내가 크리스천이란 걸 숨기지 않았고 너희 중에 몇 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지.”

몇 명이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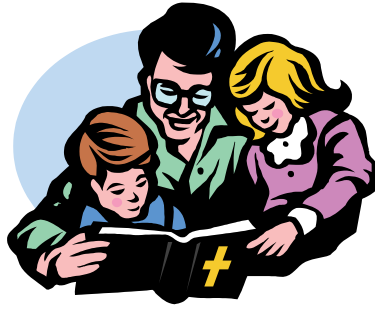
마이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혹은 어떻게 구원받는 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적은 아이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도착하면 천국에 있는 스타디움에 앉아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는 많은 증인들과 만난다고 성경은 말한다. 여보게, 친구들, 그래서 내 아들 마이크는 오늘 이 경기장에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 스타디움에 있는 지정석에 내 아들을 데려다 놓으셨어.”

마이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내 아내 줄리는 언제나 그 녀석을 손으로 잡고 경기장에 들어 왔었지.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오면 그녀는 내가 그곳에 있다고 어린 마이크에게 말해 주어야만 했었어. 그래야만 그 아이는 나를 응원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내가 멋진 플레이를 하면 아내는 상황을 그 아이에게 일일이 이야기해 주어서 나를 위해 박수를 치며 응원할 수 있게 했지.”

마이크는 점점 더 많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게, 친구들, 지금까지 내 아들은 내가 경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네. 오늘 내 아들이 천국에 있는 스타디움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코치에게 시합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 천국에는 장님이 없어. 내 아들 꼬마 마이크도 이젠 볼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오늘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었냐고 너희들이 물었지?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경기했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엮어매는 죄를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길을 달려가며(히12:1)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멋진 경주를 합시다. 하늘의 창문들은 열려 있고 그곳의 성도들은 그 창문을 통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전2:9).

제2부

지옥 바로 알기

*(The Worm That Never Dies)*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10:28; 막9:43-44)





## 제1장

# 지옥의 존재



*Existence of Hell*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때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ㅁ*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눅16:19-31).

이 생생한 역사적 사건은 지옥을 창조하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요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지옥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위로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강한 요소가 존재해 왔으며 사실 이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감언이설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브를 설득했던 거짓말쟁이 옛 뱀 마귀는, 이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유황으로 펄펄 끓는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귀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상들, 즉 사악한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악한 사상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으로 퍼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그중에 몇 가지를 열거하며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실제로 불타는 지옥은 없다.

성경은 54회에 걸쳐 ‘지옥(Hell)’이 존재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경우는 ‘지옥(Hell)’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인 경우이고 이외에도 성경에는 ‘영원한 불’(everlasting fire), ‘영원한 멸망’(everlasting destruction), ‘바깥 어두운

---

1) 원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라는 뜻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넓은 의미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늘진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을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 즉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갔다(삼상28:14, 19).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은 다 죽어서 넓은 의미의 이 지옥(지하 세계)으로 갔다. 물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의인들을 위한 ‘안식하는 부분’(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을 위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 시의 한 강도도 죽은 뒤 이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 부분으로 내려갔다(행2:27, 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하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그 거주민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의 지하 세계에는 ‘좁은 의미의 지옥’, 즉 형벌받는 장소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접하면 일단 지하 세계로 생각하되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십자가 사건 후의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레이스 목사님도 이 책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려 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은 최후의 지옥, 즉 계천나라 불리는 불 호수(계20:14)가 아니다. Hell: The abode of the dead; the place of departed spirits; the infernal regions or lower world regarded as a place of existence after death(옥스퍼드 영어 사전).



곳'(outer darkness), '불 호수'(lake of fire), '바닥없는 구덩이'(bottomless pit) 등과 같이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이며 영원한 불 호수인 지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지옥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그들은 고집 센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왜곡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많지만 저는 유명한 성공회 '신학자'인 고(故) 파이크(James Pike) 주교의 '지옥 부인' 진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이크 주교는 죽은 뒤에야 비로소 실제로 불타는 지옥이 존재함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우어슬러(Will Oursler)의 「프로테스탄트 권력과 다가오는 혁명」(*Protestant Power and the Coming Revolution*)이란 책의 173페이지에 있는 파이크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우어슬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파이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무한히 행복한 천국이 있고 무한히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순이다.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 - 못 가진 자들, 특권 없는 자들 - 이 있음을 알면서 천국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지옥에 가고자 할 것이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보여 주듯이 예수님도 거기서 그들 옆에 계시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은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지옥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합세하거나 혹은 자신의 전체 계획을 변경하실 것이다.

자, 위의 내용은 전형적인 현대주의자의 철학이 아닙니까? 엉터리 이론을 주장하는 파이크 주교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기록'을 기꺼이 받아들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기록'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을 드러내자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지옥이란 하나님의 실수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신의 전체 계획'을 변경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이단들과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지옥의 실존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비웃으며 지옥이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진리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파이크 주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시간 파이크 주교는 자기가 지옥 불 속에서 불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파이크 주교는 웃을 수도 없으며 자신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목말라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심령술 지도자였던 코난 도일(A. Conan Doyle)은 자신의 저서 「새로운 계시」(*The New Revelation*)의 68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옥이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제외되어 왔듯이 나는 지옥은 전적으로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영원한 장소로서의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진술을 통해 도일은 영광의 주님을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이후에 최종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흰 왕좌 심판’ 때에 그와 함께 같은 대열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베산트(Annie Besant, 신지학이라는 사교의 지도자)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신의 저서 「비밀 기독교」(*Esoteric Christianity*)의 42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진술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구원자도 감히 그런 주장을 펼 수 없다.

베산트, 당신은 주의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즉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까지 당신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사교를 창안한 에디(Mary Baker Glover Patterson Frye Eddy, 미국의 여류 종교가)는 자신의 저서인 「성경에 대한 열쇠와 함께하는 과학과 건강」(*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에서 단호하게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죽음의 실재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병의 존재도 부인했습니다. 그 책의 289페이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죽음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죽음에 관한 환상이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사람과 우주에게는 죽음이란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1910년 12월 10일 병든 노파 에디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의사는 그녀가 사망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어 버린 그녀의 시체 안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약품을 가득 채운 뒤 그 시체를 관에 넣어 차갑고 어두운 무덤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이제 에디는 병과 죽음이 실제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대주의 잡지인 「크리스천 센추리」(*The Christian Century*)의 편집자로 오랫동안 일한 모리슨 박사(Dr. C. C. Morrison)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전쟁은 지옥이다. 지옥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영역이므로 거기에서는 악이 선이며 선이 악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전쟁 그 자체이다.

미국 국가 교회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CC)의 부총재였던 데이 박사(Dr. Albert Day)는 「크리스천 센추리」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옥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다. 지옥은 내적인 부패이다. 사람은 결코 지옥 안에 있지 않으며 사람 자체가 지옥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현대주의자들의 헛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많은 지면을 할애받아 글을 쓰기는 하지만 정말로 헛된 것이 가득한 글만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에 관하여 좀 더 알기 위해 우리는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고(故) 포스딕 박사(Dr. Harry Emerson Fosdick)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내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내 생각 속에 히브리 사람들의 스올(Sheol - 지옥)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 구시대적인 성경적 관점이 없음을 확신한다(「성경의 현대적 용례」(*The Modern Use of the Bible*), p. 102).

저는 포스딕 박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포스딕 박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지옥이 없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포스딕 박사의 마음속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

지옥과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현대주의자의 말을 들어 봅시다.

유대교/기독교 신화 안에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옥과 같은 개념이 매우 유동성을 띠고 있음은 역사 연구에서 평범하게 드러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진술들을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준다(와일더(A. N. Wilder), 「현대인을 위한 신약 시대 신앙」(*The New Testament Faith for Today*), p. 102).

여기서 어리석은 와일더는 지옥이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며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와일더는 문자 그대로의 불타는 지옥이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단 한 번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을 가리고 있는 휘장을 뒤로 젖히시고 우리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옥에서 공황을 요구하면서 물을 달라고 애걸하며 자신의 눈을 치켜올리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쌍한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지옥이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보면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 부자는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한 인물이었다.
2. 나사로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한 인물이었다.
3.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의 죽음이었다.
4. 천사들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5. 아브라함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6. 지옥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7. 지옥의 불꽃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8. 부자의 눈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9. 나사로의 손가락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10. 부자의 혀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11. 부자가 원했던 물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12. 부자의 고통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13. 부자와 나사로 사이의 큰 구렁텅이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14. 지옥으로 떨어질 부자의 형제들 역시 진짜였으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였다.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지옥은 성경에서 장소와 상태로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부자가]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공황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그때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다섯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눅16:24, 27-28)

지옥은 진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지옥은 진짜이며 문자 그대로 고통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지옥이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고통받는 장소이므로 그곳은 정말로 어딘가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땅)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스올’(Sheol)은 영어 성경에서 대개 ‘지옥’(Hell)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의 거처’(abode of the dead)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죽은 자들의 혼이 거하는 곳’, 즉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올’은 종종 ‘무덤’(grave), 즉 ‘죽은 자들의 몸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 ‘스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다 ‘스올’에 갇습니다. 즉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스올’ 혹은 ‘지하 세계’에 갇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이 땅에 살던 성도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죽어서 곧장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sup>2)</sup> 구약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은 뒤 ‘스올’, 즉 지하 세계에서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불꽃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격리되어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곳에 거하며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지하 세계’ 선도 참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가 하늘<sup>3)</sup>에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성경의 하늘들’ 선도 참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더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헛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창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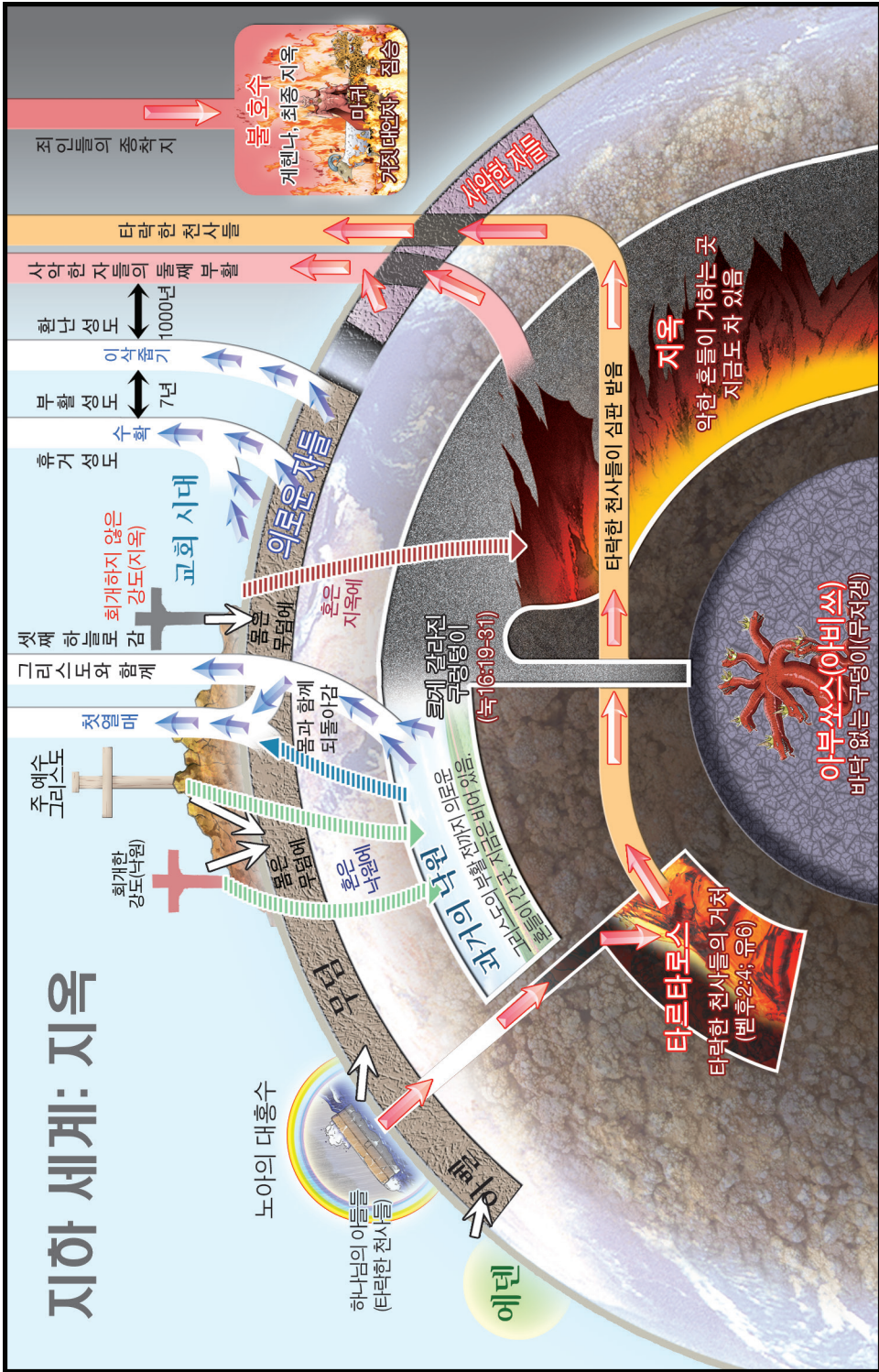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백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지옥의 불꽃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의 수장으로 만드셨고 그때부터 그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렸습니다.

---

2)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죽자마자 중간 대피소 등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간다.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빌1:23),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3) 낙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 ‘하늘’을 창조하셨음을 이해해야 한다. 1) 첫째 하늘: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2) 둘째 하늘: 별과 행성과 태양과 달이 있는 하늘; 3)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늘. 우리가 ‘천국’이라 하는 곳은 영어로 ‘heaven’이며 우리말 성경은 이를 대개 ‘하늘’로 번역했다. 그러므로 ‘하늘’이 나올 때 이것이 셋째 하늘이면 천국으로 이해해야 한다. 본서의 1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지하 세계: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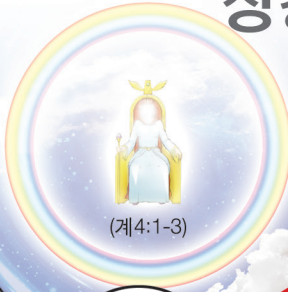
(지하 세계: 지옥)



# 성경의 하늘들

셋째 하늘

**E**  
현재의 낙원  
(고후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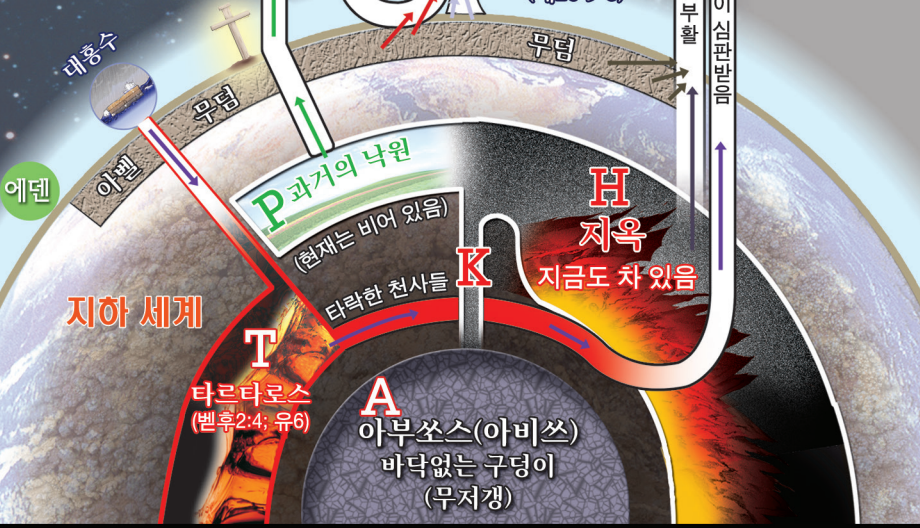
**C**  
그리스도의 심판석

둘째 하늘

**W**  
흰 왕좌  
(계20:11-15)

첫째 하늘

**G**  
불호수  
(계20:14-15)



(성경의 하늘들)

신약 시대의 스테반은 죽기 전에 하늘(천국)을 쳐다보았으며 예수님께서 하늘(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행7:55).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불꽃 속에서 구렁텅이 너머의 거지 나사로를 쳐다보았으며 그때에 그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있던 곳은 셋째 하늘, 즉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부자는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sup>4)</sup>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지구(땅)의 중심부에 있는 ‘스올’이 세 부분, 즉 ‘불꽃’과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와 ‘낙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바닥없는 구덩이, 즉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스올’의 불꽃 속으로 갔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스올’의 낙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두 명의 강도 중 한 명 - 십자가 사건 이전이므로 구약 시대 인물임 - 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눅23:42).

이 같은 청원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하늘)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 이곳에서만 ‘낙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하늘’, 즉 천국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천국)과 ‘낙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낙원이 땅속에 있었으며 지옥과 맞닿아 있는

---

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 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이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온다. ‘testament’는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한다. ‘상속 언약’은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유효하기 때문이다(히9:16-17). 그러므로 새 상속 언약(신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신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 즉 신약이 유효하지 않다.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큰 구렁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신 뒤 곧 바로 천국(셋째 하늘)으로 가지 않고 ‘스올’로 가셨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스올’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데스’(Hades)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6-27).

다윗은 이미 시편 16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 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행2:29-31).

예수님의 몸이 무덤 안에 있었던 사흘 밤과 사흘 낮 동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스올’ 혹은 ‘하데스’로 가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sup>5)</sup> 예수님께서 는 하데스의 낙원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처형되었던 강도를 만나셨습니다(눅 23:43).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답을 매우 명쾌하게 제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5) 예수님께서 지옥(하데스)에 가셨다는 사실은 사도 신경에서도 증명된다. 한글 사도 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그런데 영어 사도 신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구절 가운데에 “지옥에 내려갔다가”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부디 여러분의 한영 찬송가나 한영 성경에 있는 사도 신경을 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아마 우리말로 사도 신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옥(하데스)에 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에 이를 삭제한 것 같다. 역자는 크리스천들이 사도 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을 반대한다. 사도 신경 자체는 천주교의 산물로서 이것을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에 따라 이단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는다. 미국의 모든 침례교회는 사도 신경을 외우지 않지만 결코 이단이 아니며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다. 역자는 단지 초대 기독교 때부터 사도행전 2장 29-31절에 의거하여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사도 신경을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엡4:8-10).

독자께서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의 아랫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가기 위함이었습시다.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즐거운 상태로 ‘사로잡혀’ 있었습시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시면서 낙원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시다. 바로 그때 다음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습시다.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마27:51-53).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아브라함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22-24절의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년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주에서는 딜론이라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만 했습시다. 왜냐하면 딜론이라는 마을이 있던 골짜기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주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습시다. 그리고 옛날의 딜론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딜론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나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원에 대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시며 낙원에 있던 구약 시대의 모든 혼들을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원은 더 이상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후12:2-4).

사도행전 14장을 공부하시면서 독자께서는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져 내버려진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독자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참으로 낙원이 땅의 중심부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습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21:2).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한때 땅에 존재했던 에덴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계22:2).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상형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2:7).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강도를 만나셨던 곳, 즉 땅 아랫부분에 있었던 낙원이 이제는 그곳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낙원(Paradise)으로 채여 올라갔다고 말하며 이 낙원이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낙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하데스의 차가운 부분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하데스’의 불타는 부분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거주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곳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사5:14).

지금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옥 속으로 내려갑니다. 이 불타는 곳은 땅의 중심부, 즉 땅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산 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이는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로다(시55:15).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잠7:27).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5).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질 때에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요동하게 하였으니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레바논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로 갔는데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겔31:16-17).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마 11:23).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cast them down*)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이 땅이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있듯이 지옥 또한 땅 밑에 실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이 땅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지옥, 즉 진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지옥에는 또한 진짜로 문자 그대로 존재하는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마르레의 평야에는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진 문자 그대로의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존재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들에는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거주민들이 살았고 그 땅에는 실제적인 나무와 수풀이 자라서 이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 위에서 자란 것을 엮어 멸하셨더라(창19:24-25).

어리석은 현대주의자들이나 이단에 속한 별난 자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존재했던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 위에 영적인 불과 유황을 퍼부으셨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주장을 편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평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팀의 고고학자들이 사해 끝에 위치한 고대 마르레의 평야에서 땅을 파고 소돔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문자 그대로의

잣더미였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다음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이제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게 진짜 불, 즉 문자 그대로의 불이 떨어졌고 그 불은 궁극적으로 그 거주민들을 문자 그대로의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보기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독자께서는 이 땅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영원한 지옥과 같은 것일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으사(창 19:24)

이런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타 한 마리를 세내어 타고 소돔 도시 발굴 현장으로 가 보십시오. 그리고 소돔 도시 발굴 현장의 감독에게 소돔의 재 한 줌을 얻어 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실존하는 문자 그대로의 재를 당신의 의심 많은 손에 넣고 손가락 사이로 그것이 빠져나가게 한 뒤 돌아와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옥의 불과 유향이 단지 영적이라고 말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눅17:29).

하나님께서서는 유다서에서 저 사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14:10)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향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 19:2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향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하나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과 유황이 죽어서 불 호수에 들어가 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진리의 하나님께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지옥이 실제로 불과 유황이 존재하는 문자 그대로의 장소라는 사실을 보여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희망 없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해 주시길 바라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 2. 지옥에 가는 자들은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실제적이며 문자 그대로의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종교 체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 체제들 가운데 몇몇은 사람들이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제칠일 안식교회의 저명한 작가인 스파이서(Elder W. A. Spic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죄와 죄인들이 멸절되어 그 존재가 다 없어진다고 명확하게 가르친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거대한 갈등이 끝날 때 다시 깨끗한 우주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스파이서는 순전히 역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서의 진술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제칠일 안식교인들과 그 외의 다른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한 단어를 잘못 이해하여 “악한 자들이 멸절(滅絶)되어 없어진다.”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바로 ‘멸하다’(de-stry) 혹은 이 단어의 다른 형태인 ‘멸망’(destruction)입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destry)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destruction)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마7:13-14).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destruction)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7-9).

위의 구절들에 기초해서 안식교인들과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서 그들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결코 악한 자들이 불타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인은 약 6,000년 전에 지옥에 갔습니다. 가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지난 2,000년 동안 지옥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옥에 있는 그들이 다 타 버렸을까요? 그들이 멸절되어 그들의 존재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흰 왕좌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지옥이 그 속에서 불타고 있는 자들을 넘겨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계20:13)! 다시 말해 사람이 지옥에서 멸절되어 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계19:20)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계20:1-3).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7-10).

천년 동안 불 호수에서 불 속에서 지낸 뒤에도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불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과 또 그와 함께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괴로움 가운데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멸절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멸절되어 그 존재가 없어진 사람은 결코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혼의 멸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멸절되어 그 존재가 없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영원으로 계속해서 타게 하시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미키 마우스(Mickey Mouse)와 도날드 덕(Donald Duck)조차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멸절되어 그 존재가 없어진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옥에서 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물론 안식교인들과 또 영혼 멸절을 주장하는 그 외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럴듯한 답변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죽은 혼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무덤에서 잠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무덤(grave)도 - 원래는 지옥임 -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들이 무덤이라고 잘못 번역한 단어, 즉 바른 성경들에서 ‘지옥’으로 옳게 번역된 그리스어는 ‘하데스’(Hades)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스올’(Sheol)에 해당됩니다. ‘하데스’는 때때로 죽은 사람의 몸이 쉬는 곳, 즉 무덤을 의미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문맥에 따라 이 단어가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속의 지옥을 이야기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자의 몸이 매장되어 있는 동안



그의 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누가복음 16장 22-23절 참조). 저는 여러분에게 이에 대해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자의 혼은 결코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혼은 하데스 지옥의 불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몸과 혼은 즉시로 ‘하데스’에서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불 호수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데스’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안식교인들의 주장처럼 무덤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몸과 혼이 함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이 구절에서 ‘지옥’(Hell)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게헨나’(Gehenna)로서 이것은 신약에서 열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열두 번 중 열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헨나’는 ‘결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타는 곳’을 의미합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는 ‘게힌놈’(Gehinnom)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말은 ‘힌놈의 골짜기’(Valley of Hinnom)란 뜻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도시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계속해서 불타는 이 골짜기에다 쓰레기, 죽은 짐승, 범죄자의 시체 등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글거리는 구더기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불은 끊임없이 하루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습니다.

한편 ‘힌놈의 골짜기’는 오랫동안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장소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가 힌놈의 자손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게 하여 아무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왕하23:10)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으며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이요,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아니한 것이라(렘7:30-31).

‘게헨나’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표현하는 기술적 용어였으며 단 한 번도

무덤을 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몸을 떠나서 ‘하데스’의 불꽃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혼은 결코 무덤에 있는 몸 안에서 잠잘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그 혼이 몸에서 떠날 때에야 비로소 죽습니다.

그녀[라헬]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창 35:18).

예수님은 ‘하데스’(Hades)를 다섯 번 그리고 ‘게헨나’(Gehenna)를 열한 번 사용하시면서 단 한 번도 ‘하데스’와 ‘게헨나’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데스’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항상 땅의 중심부에 있는 세계, 즉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그 세계, 즉 지옥의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을 동시에 언급하셨으며 어떤 때는 단지 그곳의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몸을 ‘하데스’에 두시지 않았고 오직 그의 혼만을 ‘하데스’에 두셨습니다. 죽은 자의 몸은 항상 무덤에 있었으며 죽은 자의 혼은 땅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데스’는 결코 죽은 자의 혼이 가는 최종 거처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헨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의 최종 거처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한 게헨나를 언급하신 열한 번 중에서 일곱 번은 분명하게 죽은 자의 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5:29-30; 10:28; 18:9; 막9:43, 45, 47 등 참조). 그러므로 ‘게헨나’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죽어서 가는 불타는 최종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에서 무덤(사망)은 죽은 자의 몸을 내어 줄 것이고 지옥은 그의 혼을 내어 줄 것입니다. 이로써 한 사람의 몸과 혼이 다시 합쳐질 것입니다. 그 뒤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즉 그의 몸과 혼은 하나님의 흰 왕좌를 떠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같이 게헨나 불 호수로 산 채로 던져질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계19:20)

사람의 몸과 혼이 합해질 때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과 관련된 사건들을 ‘둘째 부활’이라 부릅니다(‘성경의 부활’ 선도 참조).

# 성경의 부활

## 그리스도의 심판석 의로운 자들 (고후5:10)

## 헌양과 심판 사악한 자들 (계20:11-13)

첫열매 그리스도 (마27:50-53)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고전15:22-24; 계20:6

부활의 날  
'하루가 천년 같고'  
(벧후3:8; 계20:5)



현재의 교회 시대

의로운 자들의  
생명의 부활

7년 환난기



환난  
성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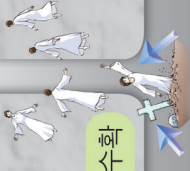


천년왕국

행24:15

요5:28-29

계20:4-5



영광 수확

유대인들 부활  
(사26:19; 단12:13)

이삭 줄기



무덤



갈보리

그리스도의 부활

첫열매  
첫열매 성도들

쭈정어

무덤

무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계20:5).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하늘)에서 나와 첫째 부활 때에 자신들의 몸과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함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 말은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살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줍니다. 사람의 혼이 사람의 몸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의 혼이 몸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코 ‘잠자고 있는 혼’ 또는 ‘혼의 멸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death)이란 언제나 ‘분리’(separation)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몸과 분리되면 그의 혼은 곧장 지옥으로 가서 불타며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고 그의 혼은 깨어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하데스’ 지옥에서 고통으로 인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혼이 잠들어 있다.”거나 혹은 ‘혼의 멸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이단 종교 서적들을 던져 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경의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2:13-14).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신자들은 ‘하데스’가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지옥이며 ‘게헨나’는 언제나 영원토록 불 호수의 지옥임을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몸은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지만 그의 혼은 ‘하데스’ 지옥에서 깨어 있음을 분명하게 압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게헨나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을 보여 주는 증거 구절들을 신속히 살펴봅시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여기에서 ‘떨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 ‘아폴루미’(apollumi)는 ‘버리다’ 혹은 ‘잃어버리다’를 의미하며 결코 ‘떨절시키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서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떨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마7:13)

여기에서 ‘멸망’, 즉 지옥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는 ‘아폴레이아’(apoleia)입니다. 우리는 ‘아폴레이아’가 ‘아폴루미’의 또 다른 형태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잃어버린 자(구원받지 못한 자)로 만드는 문은 넓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9).

이 구절에서 ‘파멸’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지금까지 사용된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파멸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올레쓰로스’(olethros)로서 이것은 ‘폐허’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에게 이 파멸은 분명히 영원한 폐허를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의하면 그것은 또한 영원한 사망, 즉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은 이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저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있지만 정직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악한 사람이 떨절되어 없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불에 탈 것입니다.

### 3. 지옥은 단지 무덤에 지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들 - 영어로는 그들의 교주인 러셀의 이름을 따서 ‘러셀라이트’(The Russellites)라 부르기도 함 - 은 항상 ‘스올’(Sheol), 즉 ‘하데스’(Hades)는 ‘무덤’(Grave)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리하여 여호와의 증인들은 완고하게 문자 그대로 불이 훗훗 타는 지옥이란 개념을 거부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은 ‘스올’과 ‘하데스’는 단지 무덤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

다.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벅스 버니(Bugs Bunny)와 엘머 퍼드(Elmer Pudd) 같은 단순한 존재들도 성경의 문맥에서 그 차이점을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 즉 파수대 사람들보다 벅스 버니와 엘머 퍼드 등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것은 하늘만큼이나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옥(스울)보다 깊으니 네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욘11:8)

여기서 우리는 극단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욘의 친구 소발이 저 높은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 과연 2미터 깊이의 무덤을 의미했겠습니까? 과연 그 정도로 그가 어리석었겠습니까? 하늘과 대조되는 이 ‘스울’이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스울)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 리니(시9:17)

자, 성경을 왜곡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여, 당신들은 악인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내게 말하려 합니까? 여기 나오는 ‘스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덤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밑에서 나온 지옥(스울)이 네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였으므로(사14:9-10)

어리석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여, 당신들은 2미터 깊이의 무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땅 밑에서 서로를 향해 터널을 뚫고 서로에게 이야기한다고 내게 말하려 하고 있습니까?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사 14:12, 15-16)

진리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여, 당신들은 사악한 루시퍼가 죽어서 깊고 어두운 무덤, 즉 사람들이 루시퍼를 주목하며 그에게 이야기할 2미터 깊이의 무덤 속에 매장될 것이라고 내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은 마귀 루시퍼가 지옥에 가게 될 때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계20:10).

‘스올’이 무덤을 의미함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두어 개 살펴봅시다.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은 삶의 고통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이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악한 일이 그에게 생기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스올)으로 떨어뜨리리라, 하니라(창 42:38).

흰 머리와 슬픔은 지옥으로 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단지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스올’이 무덤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네 힘을 다하여 하라. 네가 가게 될 무덤(스올)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전 9:10).

죽은 사람의 몸은 무덤에서 ‘잠자기 때문에’(요11:11-14) 무덤에는 지혜와 지식 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몸은 무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들어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하데스’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거기의 ‘스올’이 무덤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올’ 혹은 ‘하데스’에 대해 가르치는 교리가 거짓임을 밝혀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야기를 의심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부자의 이야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 부자 이야기가 비유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실제로 역사적인 사람들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살았습니다. 나사로 역시 실제로 생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이야기를 비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직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 부자의 이야기가 비유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혀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약 삼 분 동안만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상식을 저버린 사람들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자가 유대 민족을 나타낸다고 가르치는 현명한 해석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부자가 유대 민족을 나타낸다면 나사로는 전체 유대인들의 혀를 서늘하게 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물방울을 손가락에 적셔서

떨어뜨려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헨나’에 대해서도 거짓 주장을 펴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헨나’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 이야기하셨지만 그때에 실제로 그런 불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불을 언급하실 때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옥 불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분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지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의미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얼마나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이요, 발언입니까?

#### 4. 지옥은 여기 이 땅 위에 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땅에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저는 지금까지 바로 여기 이 땅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만으로 제가 감당할 지옥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저는 여기 이 땅에서 겪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제 고통이야말로 제가 알게 될 바로 그 지옥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교도적인 추론은 유니테리언(Unitarian) 교도들<sup>6)</sup>의 교회에서 열리는 카테일파티에서는 좋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훗날 불타오르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

6) 유니테리언주의: 대체로 하나님이 한 위(位)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예수의 인성(人性)에 대한 신학적 기반은 2-3세기의 단일신론과 아리우스 및 그 추종자들(아리우스파)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 후에 교회는 이 두 분파의 교리를 모두 이단으로 선언했다. 유니테리언주의의 현대적 뿌리는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이며 이성주의적인 개혁자들은 플라톤이 강조했던 이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을 부활시켰다. 이들 사상가 중 많은 사람이 종교 재판 때 이탈리아를 떠났다. 주도적인 신플라톤주의적 유니테리언 주의자였던 세르베투스(Severinus)는 결국 제네바로 도망쳤으나 그곳에서 칼뱅주의자들에 의해 화형에 처해졌다. 폴란드에 은신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망명자 중 주요 인물인 파우스투스 소키누스(Socius)는 1579년 크라쿠프에 도착했다. 소키누스의 신학은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했으며 대부분의 유니테리언주의자들과 만인구원론자들은 지금도 이 교리를 견지하고 있다. 트란실바니아에서 활동한 초기의 주요 인물은 페렌츠 다비드였는데,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기도할 수 없다고 가르쳐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다비드는 1579년에 옥사했는데, 그가 세운 교회는 현재 남아 있는 유니테리언 교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위의 성경 말씀은 이 땅이 사라진 뒤에 있을 일을 보여 줍니다(계21:1).

이 땅(지구)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불 호수의 존재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불 호수에서 영원히 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지옥이 있다.”(Hell-on-Earth)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진리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유일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5. 지옥은 단지 정신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신 교회 과학(The Science of Mind Churches)을 외치는 자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이 정신이며 정신이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신이며 정신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사람은 정신이고 정신은 사람입니다. 정신은 사고를 지니며 또한 사고는 관념의 이상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상은 사고를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런 사고는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에도 두 종류가 있어서 신(神)의 정신, 즉 죽을 수 없는 정신이 있고 죽을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은 신의 정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의 정신은 잘못된 사고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의 정신은 사람의 정신을 문밖으로 내던지며 “너는 다시 착한 사람이 되어야 여기로 돌아올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정신의 사고는 관념의 이상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상은 악의 존재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형벌의 이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의 정신이 신(神)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그것은 사악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이 스스로 똑바르게 되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 사람의 정신은 다시 신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신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신의 정신을 주입하고는 “알았습니다! 지옥은 단지 정신 상태였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허튼 소리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

20:15).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지옥으로 올 자기의 다섯 형제들을 생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땅으로 보내어 자기의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에게 경고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눅16:29)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들을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완성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39권의 책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한 계획을 계속 되풀이하여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언급한 ‘모세’는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대언자들’은 여호수아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책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서들과 시가서들의 저자들을 대언자들로 부르는 데 이의를 가지고 있다면 약간의 조사를 해 봄으로 역사서들에 나오는 사무엘과 시가서들에 나오는 다윗이 ‘대언자’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대하35:18 과 행2:29-30 참조).

고통을 당한 부자는 아브라함과 논쟁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눅16:30)

부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다 해석해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자기 관을 열어젖히고 무덤 밖으로 기어 나온다면 이것은 신문의 톱뉴스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다음과 같은 신문의 머리글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 나온다!’  
‘지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다!’

세상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국들과 라디오 방송국들은 이 이야기를 금방 실시간으로 보도했을 것입니다. 부자의 다섯 형제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카메라에

담긴 나사로를 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사로가 전해 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자기가 지옥에 있는 부자로부터 그의 다섯 형제들에게 전해 주라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곧 장거리 전화가 이루어지고 나사로는 상류층 가정의 거실에 앉아서 그 다섯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눈으로 실제 사건을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그 다섯 형제들은 5센티미터 두께의 고급 카펫에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여, 죄인인 제게 긍휼을 베푸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를 구원하소서. 아멘!”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렇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희망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눅16:31).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브가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듦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처음으로 일으켰습니다(창3:1).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브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시켰습니다(창3:4).

에덴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한 옛 뱀은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불타게 될 실존하는 문자 그대로의 사납게 불타는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나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나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지옥의 존재를 의심하게 합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문제에서 분명히 옳은 것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또한 마귀가 두 혀를 가진 거짓말쟁이임도 확실하게 증명되어 왔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성경을 믿지 않지만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은 믿을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의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의 새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72시간(밤낮으로 사흘) 동안 예수님의 혼은 ‘하데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밤 사흘 낮이 지나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7권의 책으로 된 신약 성경에 대대로 내려오는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래로 그분의 복음은 세상의 사방으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 문자 그대로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증거입니다(행17:31 참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는 나사로가 있던 곳에서 부활해서 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부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두 그분을 믿고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에서 누가 부활한다 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 자신이 지옥의 출입문으로 기어 올라가 땅의 어두운 구멍을 통해 햇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해도 또 부자의 머리칼이 불에 타고 그의 피부가 불에 그슬리고 냄새가 나며 그에게서 유황 냄새가 난다 해도, 이런 상태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 들어간다 해도 그의 다섯 형제들은 결코 그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지옥이 존재함을 실증으로 보여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 부연 설명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교 체제와 그들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독자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졌다면 아마도 독자께서 우유부단한 은사 운동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여자들같이 연약한 신복음 주의자들(New Evangelicals)이 선전하는 현대판 평화주의에 속임을 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혼에 대해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해 내는 일을 하면서 저의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혼을 지옥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들을 거칠게 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게는 저와 같이 행하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처럼 행한 것뿐입니다. 거짓 종교가들을 질책하는 모임에 속한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 1. 예수님

예수님은 배타적인 우리 모임의 회장입니다. 제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임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에 채찍을 맞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는 결국 이 클럽에서 떠났습니다.

저는 종종 영혼을 죽이는 현대주의자들을 ‘새 사냥개’라 부릅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인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비슷한 저 사악한 왕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눅13:32). 또한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리들’이라고 불렀습니다(마7:15).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비방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라고 부르십니다(마7:6). 여기에는 파이크 주교의 추종자들, 노만 빈센트 필<sup>7)</sup>의 추종자들, 교황과 추기경과 수도사와 사제와 수녀들, 엘렌 지 화이트의 추종자들(안식교인들), 메리 에디의 추종자들(크리스천 사이언스 추종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마르크스주의자들, 회교도들, 오탈 로버츠와 캐트린 쿨만의 추종자들(오순절은사주의/신비주의자들), 국가 교회 협의회(NCC)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님(예수님)은 위에 열거한 자들을 신랄하게 공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 ‘눈먼 지도자’, ‘어리석은 자’, ‘회칠한 무덤’, ‘독사들의 세대(자식)’, ‘살인자’라 불렀습니다(마태복음 23장 참조).

### 2.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은 우리 모임의 부회장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독사들’이라 불렀습니다(마3:7). 또한 그는 헤롯을 ‘간통하는 자’라 불렀습니다(눅3:19).

### 3. 솔로몬

저는 거짓 대언자들을 ‘멍청이’ 혹은 ‘새머리 정도의 지혜가 없는 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

7)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를 외치는 현대주의 목사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잠26:11).

#### 4. 다윗

그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황소들’이라 불렀습니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시22:12)

#### 5. 바울

키는 작지만 불같은 설교를 행한 우리의 침례교 목사 바울은 그 당시의 국가 교회 협의회원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똑바로 서서 대제사장을 가리켜 ‘회칠한 담’이라 불렀습니다(행23:3).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임의 다른 멤버들의 비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6. 베드로

어부 출신으로 가슴에 털을 지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행3:15), ‘개와 돼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튀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벧후2:22).

#### 7. 유다

유다 역시 이 점에서는 궁핍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기어들어 온 자들’(유4),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유8), ‘이성 없는 짐승들’(유10), ‘얼룩들’, ‘물 없는 구름’,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들’(유12),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 ‘떠돌아다니는 별들’(유13), ‘경건치 않은 죄인들’(유15), ‘투덜거리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크게 부풀린 말을 하는 자들’(유16),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자들’(유18-19)이라 불렀습니다. 참으로 유다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 8. 요한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은 또한 ‘천둥의 아들’로도 알려졌습니다(막3:17).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성경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교회와 사람의 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비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속이는 자’와 ‘적그리스도’(요이7)라 불렀습니다. 밧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계시로 본 사람 역시 이 요한이었습니다(계17-18장). 그리고 나서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고 또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이단들, 국가 교회 협의회(NCC)와 세계 교회 협의회(WCC), 로마 카톨릭교회와 불교도, 크리스나<sup>8)</sup> 교도, 이슬람교도, 일본의 신도 추종자들이 멸망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매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계 19:1-4)



지옥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죄인(중세 독일의 그림 성경에서)

8) 인도의 신들 가운데 가장 널리 숭배되고 사랑받는 신의 하나(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 말씀은 사탕발림을 하는 신복음주의자들과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은사주의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은 이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종교와 거기 속한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열심히 신앙을 지킨 근본주의자들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자기들이 외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근본주의 성경 신자들을 향해 “당신들은 사랑이 없고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외쳐 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은 우리 모임의 회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종교와 타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앞에 서서 “당신은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들이 그분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공의와 거룩함의 하나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 제2장

# 지옥의 본질



*Nature of Hell*

이제 우리는 지옥의 본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 1. 지옥의 어둠

지옥을 만드신 창조자는 지옥의 소름 끼치는 본질을 강조하시면서 그곳을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자손들[마귀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고(마8:12)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2:13).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5:30).

사도 베드로 역시 지옥의 어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타르타로스’(Tartarus)라는 점입니다(‘지하 세계’ 선도 참조). ‘타르타로스’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사람들은 ‘타르타로스’가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의 벽에 한 군데에 위치한 일종의 ‘동굴’로 생각했습니다. 지옥의 차가운 쪽(예수님 부활

이전의 낙원)과 뜨거운 쪽 사이의 ‘큰 구렁텅이’가 곧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바닥없는 구덩이의 어두운 지하 세계 어딘가에 ‘타르타로스’가 있으며 지금 이 시간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여기에서 어둠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어둠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베후2:1, 17)

사도 유다도 짧지만 권능 있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옥의 끔찍한 어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유13).

‘바깥 어둠’과 ‘어둠의 구덩이’와 ‘캄캄한 어둠’ 등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어둠은 단지 지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헨나’, 즉 불 호수의 어둠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가리켜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는 캄캄한 어둠’이라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생쥐에게 달려들듯이 이 어둠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게 달려드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이 문자 그대로 불이라면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밤에 숲속에 들어갈 때 등잔에 불을 켜면 등잔이 빛을 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지옥이 실제로 불이라면 그곳은 결코 어두울 수 없습니다!”

늘 그렇듯이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불의 강도가 세지면 색이 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왔습니다. 난로에 불을 지피면 처음에는 불꽃이 노랑습니다.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 불꽃은 오렌지색을 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타고 있으면 가운데 바로 아래 붉은 불꽃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붉은 불꽃은 오렌지색 불꽃보다 뜨겁고 오렌지색 불꽃은 노란색 불꽃보다 뜨겁습니다. 난로가 정말로 훗훗 타고 있을 때 타고 있는 통나무를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파란색 불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파란색 불꽃은 한층 더 뜨겁습니다.

가스스토브에서 타는 불은 파란색 불꽃을 냅니다. 그와 같이 강렬한 파란색

불꽃이 없다면 가정주부는 식사를 빨리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리한 절단용 토치로 작업하는 연관공은 자신이 처음에 토치에 불을 붙이면 불꽃이 파랗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치의 강도가 세져서 쇠를 절단할 정도가 되면 불꽃이 하얗게 됩니다. 토치의 하얀 불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불꽃 중 가장 뜨거운 불꽃입니다. 그러나 더 뜨거운 불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수 필터를 단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사진을 찍었으며 그것을 통해 위에서 제가 진술한 여러 색의 불꽃들, 즉 노란색, 오렌지색, 붉은색, 파란색과 흰색 등을 발견해 냈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은 검은색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옥은 문자 그대로의 불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어둠일 수 없습니다.”라고 제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뜨거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불꽃 문제로 화학 엔지니어와 이야기했는데 그는 제 말이 정확하게 옳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타는 고통을 입고 태양 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당신은 눈 깜짝하는 동안에만 흰 불꽃을 볼 수 있는 곳, 즉 태양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을 그려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주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알래스카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더 없이 아름답고 깜짝 놀랄 만한 곳이지만 저는 그곳 겨울의 짧은 낮과 긴 밤은 좋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알래스카로 이주해 왔지만 결국 그곳의 어둠을 견뎌 낼 수 없었기에 거기를 떠나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캄캄하고 어두운 지옥은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지옥의 어둠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영원히 붙잡아 둘 것입니다.

몇 년 전, 죽음을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십오 세 정도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나 성경을 마주 대할 시간을 갖지 않은 경건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은 평생토록 어둠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소년은 몇몇 장례식에 참석하여 무시무시한 땅속의 구렁이 안으로 관이 놓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이 어두운 무덤 속으로 놓이면 그 위로 한 무더기의 흙이 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 가며 누워 있던 이 소년은 어두운 무덤에 대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혼이 몸을 떠나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소년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무덤에 창문을 만들어 햇빛이 비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심한 소년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의 무덤에 창문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소년이 묻힌 무덤 쪽으로 걸어가 보면 땅에서 몇십 센티미터 위로 흙을 쌓아 올린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흙을 쌓아 높이 올린 곳에는 큰 창문 하나가 있어 그곳을 통해 햇빛이 관이 놓여 있는 곳으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그래서 그 소년의 무덤에는 지금도 창문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했지만 어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죽는 바로 그 순간 지상의 무덤의 어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옥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 2. 지옥의 크기

깊고 넓은 것이 지옥의 특성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계9:1-2)

요한계시록에는 위의 성경 구절에서처럼 지옥이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일곱 번 언급됩니다. 위의 구절 이외의 나머지 다섯 번은 계9:11; 11:7; 17:8; 20:1, 3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 땅(지구)의 중심이 불과 유황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유황은 용해된 액체 암석입니다. 땅 아래의 암석은 엄청난 열을 받아 용해되어 왔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에서 분출되는 것이 바로 이 용해된 암석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가 지구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지구의 핵심부가 속이 비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구의 핵심부에는 중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이 같은 지구의 핵심부에 있게 된다면 그는 끝없이 낙하하는 무시무시한 기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지구 핵심부의 이런 빈 구멍을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이라 부르셨습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영원히 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것과 캄캄한 어둠과 더불어 뜨거움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은 매우 깊습니다. 또한 지옥은 매우 큽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마7:13)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을 수용할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지옥은 자기를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라(사5:14).



지옥의 입구(종교 개혁 시절의 목판화)

### 3. 지옥의 절망

지옥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저는 4장에서 지옥의 존속 기간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인 면에서 아주 간단한 것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정신은 복잡하고 미묘한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진다 해도 또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낀다 해도 또 아무리 험난한 골짜기를 만나도 해도 저쪽 어디에선가 “일이 잘될 테니 희망을 가져라.”는 소리가 들리는 한 절망에 찬 사람은 불도그처럼 끈기 있게 그 희망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빼앗아 버리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 자살이나 미치는 것 - 중 하나가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 한 순간도 “일이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속삭임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지옥에서는 아무도 자살을 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산 채로 불 호수(계19:20)에 던져져서 영원히 산 채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지옥은 필연적으로 우주의 정신 병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 제3장

# 지옥의 개념



*Concept of Hell*

지금부터 저는 지옥의 개념을 세 부분, 즉 분리, 연합, 징벌의 장소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1. 분리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들이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것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눅13:22-28).

성경에서 불 호수(Lake of fire)는 ‘둘째 사망’이라 불립니다(계20:14). 사람에게 있어서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이 흰 왕좌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불 호수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불 호수에 던져질 그들이 또다시,

즉 두 번째로 산 자들과 분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랑으로부터 분리되며 또 빛으로부터 분리되고 천국의 성도들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이런 분리는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 즉 구원을 받은 자기의 친족들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됨을 포함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자신들은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인 아내와 함께 살아온 매우 완악한 마음을 지닌 남자들을 많이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남자들에게 자신들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결혼이 아주 오랫동안 큰 문제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영원을 함께 보내는 것과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목사로서 수년간 지내 오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어린이들의 부모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갈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자기들은 지옥 불 호수로 던져지는 것을 볼 때에 거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서로 끌어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편지 왕래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영존하는 형벌과 영원한 생명,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은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지옥은 분리의 장소입니다.

## 2. 연합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세세토록 모든 악과 더불어 거주하게 될 곳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19:20)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져지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벤티후2:4)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스 사람들의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들이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 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마8:28-29).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나가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눅8:31).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계22:15).

여기서 저는 지옥에 거하는 타락한 자들을 열여섯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1. 사탄

구원받지 못한 혼은 누구나 다 온 우주에서 가장 더러운 자와 함께 같은 감옥에 감금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사탄이 지옥의 우두머리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채 손에 갈퀴를 쥐고서 지옥의 불을 뜨겁게 하려고 석탄을 신속하게 푸지 않는 사람들을 쿡쿡 쥐어박는 마귀에 대한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불에 타며 울며 이를 갈며 괴로움에 소리칠 것입니다(계20:10).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천하고 비열한 존재인 이 마귀와 함께 영원을 보낼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 2. 적그리스도

사악하고 더러운 이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짐승'이라 불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이 사악한 신성모독 하는 자와 함께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계13:5-6).

### 3. 거짓 대언자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계13:11-12). 저는 이 파렴치한 거짓 대언자와 단 일 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며 영원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 4. 타락한 천사들

이 더러운 배반자들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직접적으로 반항한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죄는 너무나 사악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셨습니다(창 6:1-7; 유6-7; 벧후2:4). 구속받지 않은 모든 혼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 5. 마귀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둠의 세계에서 마귀들은 죄를 지어 타락한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귀들은 종종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악한 창조물 마귀들은 성경에서 ‘악한 영들’이라 불립니다(눅7:21; 8:2; 행19:12, 15). 마귀들은 사탄의 종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들입니다. 마귀들의 유일한 목표란 사람들을 부패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토록 이 마귀들과 함께 같은 곳에서 매이게 될 것입니다.

### 6. 두려워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자기가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어라 말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 그리스도를 부인한 남자들,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을 거절한 여자들,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거부한 십대들, 믿지 않는 부모들이 무서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의지적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한 아이들, 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주님을 거부한 벨릭스와 아그립바 왕과 그 외에 주님을 거절한 모든 두려워하는 죄인들은 바다없는 구덩이에서 함께 지낼 것입니다.

## 7.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땅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같이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역시 최종 지옥인 불 호수에 거주하게 될 한 부류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성경은 분명하게 위와 같이 선포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께서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14:6).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 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공산주의자들, 스탈린 추종자들, 모택동 추종자들, 비지스와 비틀즈 같은 뮤직 그룹들과 모든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은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딤후3:16; 히1:8; 살전4:14; 계1:8 등).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24; 10:30; 14:9 참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다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은 곧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토록 자신의 더러운 혀를 갈게 될 것입니다. 장미 십자회, 유니테리언파(유일교파), 신지학, 크리스천 사이언스 추종자들, 보편적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 몰몬교도들, 크리스나 교도들, 불교 신자들, 힌두교도들, 이슬람교도들, 여러 색깔을 띤 현대주의자들과 여호와의 증인들, 안식교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소위 ‘여호와의 증인’이라 불리는 이단에 관해 말하자면 저는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지만 그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피가 자신들의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케 해 주셨다는 사실에 무엇인가를 더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흘려주신 그 의로운 피로 말미암는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종교 단체, 교단의 통치 체제, 성직자, 사제, 추기경, 교황, 병 고치는 자, 랍비, 힌두교 도사 등과 같은 것들을 거기에 첨가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썩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부인한 자들은 다 게헨나 지옥의 유향과 불 호수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세례, 교리 문답, 고해 성사, 견진 성사<sup>1)</sup>, 성만찬, 선행, 종교 예식, 헌금,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로사리오<sup>2)</sup> 염주를 세며 기도하는 것, 노자 성사, 병자 성사, 옆집 노인을 도와주는 것, 걸 스카우트 과자를 사 주는 것, 또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인내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들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침례교이든 감리교인이든 카톨릭 신자이든 몰몬교도이든 그리스도의 교회

- 
- 1) 천주교에서는 세례에서 이미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견진 성사를 통해 확고하게 된다(혹은 믿을 안에서 강해지고 견고해짐)고 믿는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처음 몇 세기 동안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교도에서 개종한 성인(成人)이었으므로 세례와 그들을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견진 성사에 해당하지만 그때까지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음)은 대개 동시에 행해졌다. 따라서 초대 교회 신학자들은 견진 성사의 의미와 효력을 세례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인보다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가 되자 견진 성사와 세례를 좀 더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생겼다. 오늘날 견진 성사를 계속 행하는 교회들은 견진 성사를 세례와 연관지어 생각하느냐 구분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와 신학적 해석이 다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견진 성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례전의 하나로 본다. 견진 성사를 통해 신자는 성령의 은사(은총·힘·용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세례받은 지 7년이 되어야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주교가 의식을 집전하며 견진 성사를 받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의 이마에 성유를 바른다고(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2) 실에 꿰ن 묵주(염주)알이나 매듭의 곱을 만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종교적 행위. 넓은 의미에서 묵주나 매듭을 로사리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관행은 그리스도교·힌두교·불교·이슬람교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이 관행은 3세기 동방 그리스도 교회 수사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뒤 여러 형태의 묵주가 개발되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공중 및 개인 기도를 할 때 흔히 묵주를 사용한다. 가장 흔한 묵주기도는 작은 묵주(chaplet), 즉 로사리오를 손으로 만지면서 암송하는 기도문인 성모 마리아의 묵주 기도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교인이든 루터교도이든 형제교회 신자이든 회중교회 신자이든 은사주의자든 성결교 신자이든 나사렛 교파의 신자이든 성공회 신도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신뢰하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에서 무엇인가를 빼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하든지 혹은 그분에게서 무엇을 빼든지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른 불신자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 호수에서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 8. 가증한 자들

사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의롭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는 다 미움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가증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하는 능력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 성령님의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9).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제시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 오셔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만 함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가증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악의에 차서 성령님을 떠나 그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죄인은 고의로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 자기의 딱딱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한 자들이나 길이 올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잠11:20).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  
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  
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잠1:24-  
30).

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지옥에 거할 모든 사람들은 가증한 자들과 그리스  
도를 미워한 자들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과 뒤섞여서 영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가증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 9. 살인자들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해한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진노를  
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걸어 나온 이래로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 사형이라는 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살인자는 사탄이었습니다(요8:44). 그다음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습니  
다(요일3:12). 가인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살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단지 살인의 전율을 맛보기 위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획을 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인자들과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가롯 유다와 잔인한 카톨릭 메리 여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은 수많은 다른 카톨릭교도들과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히로히토 천황과 알카포네와 스탈린과 흐루쇼프 등과 및 이외의  
모든 잔인한 살인자들과 함께 영원을 지옥에서 보낼 것입니다.

## 10. 음행을 일삼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란 한마디로 성욕에 미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악한 남녀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性) 또한 악용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13:4).

하나님은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레20:10).

너는 간음하지 말라(출20:14).

하나님은 남성끼리의 동성애와 여성끼리의 동성애를 매우 미워하십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레 18:22).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롬1:26-27, 32).

하나님은 강간을 미워하며 그것을 살인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젊은 여자를 만나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그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 젊은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그가 들에서 그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젊은 여자가 소리 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었느니라(신22:25-27).

또한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싫어하십니다.

너희 중 아무도 친족 중에서 자기에게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레18:6).

하나님은 매춘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매춘부들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녀의 집이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이 죽은 자들에게로 기울기 때문이니 그녀에게 가는 자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도 아니하느니라(잠2:18-19).

낮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썩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잠5:3-5)

참으로 슬픈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적 부도덕을 싫어하며 그래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적 문란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상점에 진열된 음란 서적들과 잡지들을 제거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싸웁니다. 또한 그들은 포르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을 없애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또 방영해서는 안 될 것들을 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향해 두려움 없이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종교나 선행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자들, 즉 모든 음행하는 자들, 매춘부들, 포주들, 거리의 여자들, 강간범들, 포르노 작가들, 성병을 옮기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 11. 마법사들

마법은 사탄에게서 나왔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마법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마법사들을 가리켜 거짓 대언자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루마 마법사가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하므로 그때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들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행13:6-10)

마법은 예언하기, 손금 보기, 찾아보 보기, 카드점 보기, 수정 구슬점 보기, 강신술에 쓰이는 문자 기호판 사용하기, 12궁도를 따르기, 별점치기, 죽은 사람과의 교감으



로 미래를 점치기 등을 포함합니다.

위에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6-10절과 사도행전 8장 9-11절에서 우리는 마법사들에 관하여 열여섯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마법사들은 거짓 대언자이다.
2. 마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3. 마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4. 마법사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5. 마법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거부하게 만든다.
6. 마법사들은 간교가 가득한 자이다(마법사들의 아버지 마귀가 그러하듯이, 창3:1 참조).
7. 마법사들은 악독이 가득하다.
8. 마법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9. 마법사들은 모든 의의 원수이다.
10. 마법사들은 영적으로 그릇된 자이다.
11. 마법사들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든다.
12. 마법사들은 강신술을 부린다.
13. 마법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술로 이끈다.
14. 마법사들은 위대한 자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15. 마법사들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잘못 비쳐진다.
16. 마법사들은 사탄의 권능을 지닌다.

진 덕슨이라는 점쟁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그 점쟁이는 결국 지옥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점술가들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들은 떠돌아다니는 별, 즉 그 점쟁이 스타들을 따라 캄캄한 어둠으로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유13). 하나님은 마법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물록의 장막과 너희의 형상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너희 신의 별을 가지고 다녔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름이 군대들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암5:21-22, 26-27).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려고 돌아서는 *혼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레20:6).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신18:10-12).

그러므로 해악이 네게 닥치되 네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악한 일이 너를 덮치되 네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으리라. 황폐함이 네게 갑자기 닥치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제 네가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네 마술과 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 보라. 혹시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리하고 혹시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네가 너의 많은 계획으로 인해 피곤하게 되었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네게 닥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같이 되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리니 곁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숲도 없고 앞에 있으므로 *사람이* 앉아서 *몸을 데울 만한* 불도 없으리라(사47:11-14).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마법사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 12. 우상 숭배자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령을 자기에게 말씀해 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마22:37-38)

당신과 살아 계신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혹은 사물이든지 다 우상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출20:3-5)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나 사물은 다 또 다른 신(神)입니다.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고 뻔뻔스럽고 치명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불 호수로 갈 것입니다. 또한 유아 세례, 선행, 교리 문답, 견진 성사, 기도, 끝까지 견디는 것, 맹세, 천부적 재능 등이 구원과 관계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개신교도이든, 유대인이든 혹은 이단 교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치명적이고 악독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인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영원토록 불 호수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 13. 거짓말쟁이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계21:8).

언뜻 보기에 위의 성경 구절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롬3:4).

우리는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나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까? 이 문제의 답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쟁이들’로 번역된 그리스어의 용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위선자들’로 번역되곤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 2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로 삶을 영위하는 자들, 즉 거짓을 사용하는 위선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같이 행동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체 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성경을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부정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또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마23:27-28).

위선자들은 사탄의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 14. 사악한 자들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옥의 거주자들은 영원토록 더럽고 추잡하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끊임없이 악화되는 사악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불 호수에 떨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맞보면 곧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추측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그들은 더욱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있을 7년 환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십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걸을 수 없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 아니하고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도 아니하더라(계9:20-21).

[넷째 천사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계16:9-11).

‘사악한 자들’의 이러한 사악한 태도는 점점 더 나빠질 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사악한 자들은 불 호수에 영원토록 봉인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하더라(계 22:11).

모든 시대의 모든 악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 15. 더럽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저주받은 지옥에 영원히 거주할 것입니다. 지옥에 거주하는 자들은 결코 깨끗한 것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는 더럽고 천하고 추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옷과 주변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욕을 합니다. 깨끗함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온 우주의 쓰레기 더미인 계헨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더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상상해 보지도 못한 더러움과 추함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비록 깨끗한 환경에서 살지만 자신의 더러운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더러움이 가득한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계22:11)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 16. 개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 밖의 계헨나에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마법사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과 함께 지옥의 거주자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치와와, 셰퍼드, 덴마크산의 그레이트데인이나 세인트버나드 같은 개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옥에는 예수님께서 ‘개들’로 취급하신 사악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동방 사람들에게 개가 매우 천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애완견, 즉 집에서 기르는 조그만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들은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악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짐승들은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작은 짐승들이나 부유한 집에서 나오는 부패한 쓰레기 등을 먹고 살았습니다(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대문에 개들이 모여든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그 개들이 누워 있는 나사로의 헌데, 즉 상처를 훔았다는 것도 기억할 것입니다(눅16:21).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채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출22:31).

그분[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므로(마15:26)

그러나 이따금씩 아주 예외적으로 주인에게 훈련을 받고 집에서 사육된 개는 돈을 받고 팔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개들은 ‘개의 싹’ 혹은 ‘개의 몸값’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너는 창녀의 품삯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원 *헌물*로도 주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지 말라. 이것들은 둘 다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신23:18).

또한 대중 앞에서 사형을 시킨 경우에는 개들이 모여들어 죽은 자의 피를 핥아먹곤 했습니다.

너는 그[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죽이고 또한 그것을 소유로 취하였느냐? 하며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피*를 핥으랴, 하라, 하시니라(왕상21:19).

이렇게 왕[아합]이 죽으매 그들이 사마리아로 *왕*을 데려가서 왕을 사마리아에 묻으니라. 한 사람이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그들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왕상22:37-38).

이 개들은 심지어 사람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땅의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좌에 앉아 있는 파라오의 처음 난 자부터 뱀트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들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 전역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출11:5-7)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 개들이 죽은 자들을 향해 ‘자기 혀를 움직였음’을, 즉 죽은 자들을 먹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세벨에 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왕상21:23).

그가 이르되, 그녀[이세벨]를 내던지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녀를 내던지매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과 말들에게 튀었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짓밟으니라. 그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는 이르되, 가서 이제 이 저주받은 여인을 보고 그녀를 묻으라. 그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셋 사람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왕하9:33-36).

그 당시에 개들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였고 종종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개들은 질병과 더러움을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은 피를 핥고 피를 토해 내고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들에게는 가장 천하고 더럽고 비열한 창조물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에는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개야?” 또는 “내가 개의 머리냐!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개냐, 그래서 네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을 두고 다윗을 저주한 뒤(삼상17:43)

그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여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는도다(삼하3:8).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네가 그들의 강한 요새들에

불을 놓고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며 그들의 아이들을 내던지고 아이 밴 그들의 여인들의 뼈를 가르리라, 하매 하사엘이 이르되, 그런데 개와 같은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네가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주께서 내게 보여 주셨느니라, 하므로(왕하8:12-13)

사람을 가장 천하게 취급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개들’이 지옥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 ‘이 개들은 누구인가!’

이제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제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독자가 고�혈압 환자라면 아마도 이 책을 내려놓고 고양이에게 멸치를 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독자께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일 독자께서 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책을 덮고 책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처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에 졸도한 적이 없었겠지만 아마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졸도할 정도로 노발대발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켜서 ‘프랑켄슈타인, 늑대 인간을 만나다’와 같은 영화나 혹은 그와 같이 신경을 안정시켜 줄 부담 없는 프로그램을 보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 주려는 사실이 여러분의 심장을 멎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책을 읽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진정제를 복용했습니까? 아직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또 한 알을 복용하고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심코 이 책을 더 읽어 나간다면 자칫 신경 쇠약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건대 제가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책을 읽고 있습니까?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책을 접어 두고 고양이에게 멸치를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독자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독자께서 버럭 화를 내거나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해도 제 책임은 아닙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계22:15).

### ‘이 개들은 누구인가!’

만일 독자가 배도한 ‘아메리카 침례 교단’의 신자라면 당신의 목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개입니다. ‘아메리카 침례 교단’(American Baptist Convention)은 이제 불신자들의 모임인 국가 교회 협의회(NCC)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님의 피로 인한 속죄와 마리아의 처녀 수태 등과 같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의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 개라고 하신 것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sup>3)</sup>

만일 당신이 미국의 남침례 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속한 신자라면 아마 60% 정도의 확률로 당신의 목사 역시 ‘개일 것입니다.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가 아닌 남침례교 목사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남침례 교단에도 좋은 목사들이 일부 있지만 거기를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곧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그 안의 현대주의적 요소들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를 떠난 미국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를 다니는 신자라면 당신의 목사가 바로 ‘개입니다. 독자께서 저를 향해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과연 당신은 어리석은 당신 교회의 목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배도한 회중(조합)교회 신자(Congregationalist)라면 당신의 목사가 바로 ‘개’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낼 것이라고 이미

---

3) 여기서 저자이신 레이시 박사님은 교회의 지도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여러 자유주의/인본주의 교단의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교단에 속한 목사라도 구원의 도리를 정확히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목사가 당신이 거둬냈는지 물어보았습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악한 목사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당신이 지옥에 떨어져 불에 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 설교합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당신이 카톨릭 신자라면 당신의 교황과 모든 추기경과 신부들과 수녀들과 당신의 신부가 바로 지옥에 가게 될 ‘개들’입니다. 좋습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하고 외쳐 보기 바랍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 초를 켜고 불쌍한 저의 이단 주장이 제 얼굴 앞에서 폭파되어 없어지길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분노가 식으면 당신 자신을 향해 정직한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당신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지도자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결코 ‘거룩한 교회’, 즉 ‘카톨릭교회’ 안에 있지 않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5장 20-22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민족들에게서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들의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할 수도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sup>는</sup>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sup>의</sup>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분의 구원자가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마리아에게 기도할 때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당신의 죄를 털어 주고 당신의 잃어버린 혼을 구원해 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을 읽어 보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 로마 카톨릭교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으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만일 당신의 성경 안에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구원의 길임을 제게 보여 줄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의 로사리오 묵주 구슬을 다 삼키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35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 저 가련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과연 빌립이 그 내시에게 교리 문답, 세례, 고해 성사, 로사리오 묵주 기도, 아베 마리아 찬미 기도, 로마 카톨릭 교리를 선포했을까요?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에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바울은 그에게 당신의 사제가 말하는 내용을 말했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그랬다면 저는 뜨거운 성수 10리터를 마실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사제들과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며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라 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도한 성공회의 신도라면 당신의 교구 목사가 바로 ‘개’입니다. 당신의 교구 목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면 왜 당신에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목사는 카톨릭 사제들과 거의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 목사는 선행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자, 이제 화를 내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들먹이며 욕하기 바랍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저를 닮은 인형을 만들어 그 인형에 바늘을 꿏고 저를 저주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 당신 교회의 목사가 구원에 대해 달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를 떠난 장로교인이라면 당신의 목사가 바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개’입니다. 미국의 장로교 목사 10명 중 5명은 「개정표준역」(RSV)이나 「리빙바이블」(Living Bible)이나 그 외에 ‘잘못 번역된 역본들’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진리에서 벗어난 당신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믿습니까? 만일 당신의 목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부인한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와 새로운 탄생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또한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하는 장로교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개정표준역」(*RSV*)을 충실히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세계 창조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은 단지 비유요, 신화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어디서 유래되었든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 당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로교인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회 신자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세례를 주고 더욱이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고 성경에 없는 언약 신학 등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몰몬교도라면 당신 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몰몬교<sup>4)</sup> 지도자들은 당신의 눈을 가리고는 당신보고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성경을 주셨음을 믿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몰몬경」(*Book of Mormon*)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두 개의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심한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몰몬경」과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몰몬경」은 행위로 인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이 은혜로 인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몰몬교 지도자들은 구원이 몰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 성경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롬6:23). 이제 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4) 몰몬교: 1830년 미국에서 조셉 스미스 2세가 세운 종교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도 함. 새로운 섭리, ‘참된 교회’의 사제직과 의식(儀式)의 회복을 내세우고 모든 몰몬교인들은 신성(神性)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말일 성도들은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천년 왕국에 대한 열망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끝내는 유타주로 옮겨 살았다(분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500만 명 이상의 교인들 가운데 거의 80%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캐나다, 유럽, 오세아니아 각 지방으로도 퍼져 나가고 있다. 1991년 말 현재 신도 수는 812만 명이다. 조셉 스미스의 후계자인 브리검 영은 1851년 유타 준주(準州)의 지사가 되어 1852년에 일부다처제를 제도화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브리검 영(Brigham Young)과 조셉 스미스(Joseph Smith)가 지옥에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들은 제일 먼저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 몰몬교의 본부 소재지)에 있는 몰몬교 신전을 불태워 없애 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브리검 영과 조셉 스미스가 지금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형제들도 자기의 형제인 그 부자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의 불 호수에서 타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자기의 다섯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 가족이 믿는 종교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을 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몰몬교 장로들에 대해 기록하면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감화되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기록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Doctrines and Covenants), p. 4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정말로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를 거짓말하는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조셉 스미스가 지옥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악한 브리검 영은 예수님을 일부다처자라고 불렀습니다. 「앤 엘리자 영의 열아홉째 부인」(Ann Eliza Young's Wife Number Nineteen)이라는 책의 35장에 언급된 브리검 영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다처주의자이다. 그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아내로 맞이하였다. 또한 예수가 물로 포도즙을 만든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 자신의 결혼 잔치 중 하나였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부다처는 간음입니다(고전7:2 참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일부다처자였다면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사탄에게서 나온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리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자기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절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러므로 이런 헛된 주장을 펴는 브리검 영은 개입니다.

또 다른 타락한 자인 몰몬교도 하이드(Olson Hyde)는 「몰몬교 일부다처의 참된 기원」(*The True Origin of Mormon Polygamy*)라는 책의 20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자신의 후예를 남겨 놓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동시에 아내를 삼으려고 가나에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과 상관이 있다.

이런 마귀적인 주장을 펴는 하이드 역시 ‘개’입니다.

허가 길고 귀가 축 늘어진 브리검 영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수태되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또다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브리검 영은 신성모독을 담은 자신의 책 「연설 저널」(*Journal of Discourses*)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마1:20).

여기서 ‘수태된’(conceived)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종종 ‘낳은’(begotten)으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설사 그것을 모른다 해도 불란서 푸들 정도의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브리검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리에서 떠난 루터교도라면 당신의 목사가 바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개’입니다. 자, 어서 제 코를 물어뜯으며 화를 내기 바랍니다. 경고하건대 목에 흰 띠를 두르고 설교단에서 있는 당신의 루터교 목사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열매를 조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에게 관해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변질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마7:15-17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나쁜 열매를 찾는다면 그 나무가 변질된 나무라는 것을 압니다.

자, 루터교 신자여, 당신은 당신의 목사가 지옥의 불과 유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사가 사람들에게 종교는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며 오직 예수님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목사가 주일 아침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해 달라고 간청하거나 구원받도록 초청하거나 혹은 주일 저녁에 설교단을 내리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사람을 구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혹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당신을 당황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신의 루터교 목사는 어린 아기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아 세례(영세)를 주는 이유를 성경에서 보여 주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사는 아기들에게 물을 뿌림으로써 자기가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당신의 목사는 자기 자신을 세례 대상자인 아기의 구원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당신 목사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목사가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아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개들’입니다. 맏소사! 과연 그들이 당신을 감언이설로 꾀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러셀(Charles Taze Russell)이 개의 뒷다리만큼이나 심히 구부러진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러셀의 후계자인 어리석은 러더포드(Joe Rutherford)는 그보다 더 비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9-20절에서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대드는 것’ 같은 뒤뜰어진 일은 뒤뜰어진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러셀과 러더포드가 발전시킨 것보다 더 사악하고 비뚤어진 교리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현시대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 계속해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를 하나의 창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소유한 어리석은 성경인 「신세계역본」(*New World Translation*)마저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당신에게 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을 번역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간의 실수를 저질렀고 몇몇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Before Abraham was, I am), 하시니라(요8:58).

여기서 나오는 'I AM'은 곧 출애굽기 3장 14-15절에 나오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즉 여호와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의 증인들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들의 무리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제게  
이름 같기 전에 당신이 갖고 있는 여호와와의 증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16절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12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4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15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  
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13절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13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인물이 16절에서도 말하고 있으며 거기서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라  
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자, 어서 저를 향해 이름 같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를 내기 전에 15절을 잘 읽어 보기 바랍니다. 거기 나오는 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아닙니까?

만일 당신이 오순절 은사 운동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목사와 라디오 목사와  
텔레비전 목사와 그 외에 거기 관련된 영적 지도자가 다 '개들'입니다. 오순절  
은사 운동은 무수한 교파들과 종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은사 운동의  
지도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믿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증거를 원한다면 가서 그 개들(은사  
운동 지도자들)의 입에서 증거를 얻기 바랍니다. 은사 운동의 지도자에게 가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에 대해 그로부터 확고한 답을 얻은 이후에 로마서 11장 6절과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만일 당신이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당신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히5:9). 만일 당신과 당신의 종교적 지도자가 소유한 구원이 중간에 없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구원을 소유한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의 목사가 당신에게 ‘끝까지 신실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은혜 밖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은 당신이 얼마나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구원은 곧 행위로 얻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롬 6:23; 엡2:8-9).

구원이란 전적으로 예수님, 100%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은사 운동의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구원의 일부를 이루며 자기가 나머지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성경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개, 즉 당신의 지도자는 당신을 지옥의 불 호수로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캠펠파, 즉 ‘그리스도의 교회’<sup>5)</sup>에 속한 신자라면 당신의 장로나 목사나 또는 복음 전도자 역시 ‘개’입니다. 물에 잠겨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당신 종파의 체제에서는 그들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대부분의 캠펠파는 ‘크리스천 교회’(The Christian Church), ‘그리스도의 제자들’(The Disciples of Christ)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사실 캠펠파 교회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캠펠파는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와 같은 것을 믿습니다. 즉 그들은 캠펠파 교회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이 거룩한 물로 침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

5) 캠펠파(Campbellites)는 사람이 물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 교리, 즉 침례 중생 교리를 강하게 주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려진 캠펠파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물 침례를 주고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한다.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캬벨과 지도자들은 스스로 영원히 과멸에 이르기 위해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2장 16절과 그 외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왜곡해 왔습니다(벧후3:16). 그들은 물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침례가 반드시 자기들의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캬벨과 지도자들을 먹일 수프를 사다 줄 사람이 계십니까?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진리를 먹여 주려 합니다. 그들의 목에 음식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저는 그들이 씹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저를 물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캬벨과 장로들과 목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캬벨과 신도들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제 내게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큰 소리로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으르릉, 으르릉” 짓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답하려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무엇이 복음인지는 모르지만 그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구라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살펴봅시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고전15:1-4)

그렇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습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그대로

따랐으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막1:15; 롬10:9; 살후1:8).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17).

사도 바울은 여기서 침례(세례)가 복음의 일부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침례는 켈멜과의 침례이든, 카톨릭주의의 세례이든 목욕통에서 받는 세례이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복음이지 침례(세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그들을 복음을 통해 낳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고전 4:15).

우리는 이미 침례(세례)가 복음의 일부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주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I have begotten you)에서 ‘낳다’는 말은 그리스어 ‘게나오’(gennao)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낳다’, ‘생산하다’, ‘생기게 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게나오’는 요한복음 3장 5,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be born)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1:14-15).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낳았지만’ 그들에게 다 침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전에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다르게 가르치는 캬벨과 지도자들은 개들입니다.

사람들을 눈멀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교들과 종교 단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요점을 충분히 살펴보았다고 생각하므로 더 많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왜 지옥에 버려진 '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거짓 단체들의 지도자들인지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빌3:2-3).

여기서 그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할례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롬2:28-29; 골2:11). 그러므로 참된 '할례자'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단 교리로 꺾어 들이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의 교회들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꺾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갈3:1-2)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곧 "살을 베어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짓 지도자들은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꺾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개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개들'을 경계하라고 진지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사제 등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되면 그들로 인해 당신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벧후2:1-2).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제가 앞서 기술한 거짓 교사들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곧장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경고하며 그 진노를 피할 한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개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멸망에 이르는 이단 교리를 가르쳐 그들이 곧바로 지옥에 가도록 합니다.

그[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 하는 개들이므로 짓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즐거워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다.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사 56:10-11)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주제는 ‘목자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사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병어리 개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종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자들이 눈먼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동안 이 병어리 개들은 짓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병어리 개들이야말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염두에 두셨던 그런 개들입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계22:15).

위 구절의 개들은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빌3:2)고 말하면서 언급한 개들과 똑같은 개들입니다. 이런 개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 위해 갈보리로 가 봅시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모여든 폭도들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시22:14-16).

우리는 여기에 묘사된 세 부류를 살펴보려 합니다.

1.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찢은 자들, 즉 로마 군인들(요19:23)
2. 사악한 자들의 무리, 즉 잔인한 백성들(마27:24-25)
3. 개들,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마27:1, 20, 41)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 외에 무엇을 더하라고 하든지 혹은 그분을 빼 버리도록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는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요이7). 이런 종교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지위로 인하여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자기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개들입니다.

다시 같보리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이기하면서 이 개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시고 내 사랑하는 것(my darling)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시22:18-20).

만일 당신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것’(my darling)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남자의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사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내 유일한 것’(My only one)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자의 유일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5:31-32).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실로 자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22편에서 다시 한 번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시22:22).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개의 권세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셨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시고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시22:20).

우리 주님은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 신약 교회들을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는 바로 그의 사역자들을 통해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아니 사탄에게도 사역자가 있습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13-15).

바울은 신약 교회들에게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비뚤어진 사탄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행20:28-29)

이리(늑대)는 개과에서 가장 위험한 짐승입니다. 개과에 속한 다른 짐승에는 여우(예수님은 해룻을 ‘여우’라고 불렀음), 코요테, 하이어나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꾼들을 가리켜 ‘이리’라고 하십니다(마7:15). 또한 성경은 종종 이 개들을 ‘이리들’로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매우 사악하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인 이 남녀들은 곧 신약 교회의 원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역자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신약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고후1:1; 11:13-15).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갈1:2, 7). 또한 그는 교리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교활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신약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엡2:10; 4:14). 또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것’, 즉 그 지역의 신약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빌3:2; 4:15).

사도 바울은 그럴듯하게 꾀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골로새의 신약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골1:24; 2:4). 또한 그는 복음의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살전1:1; 2:14-16). 바울은 신약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즉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 경고를 주었습니다(딤펵3:15; 6:3-5).

바울은 또 다른 신약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딤후1:5-16).

사도 베드로는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파고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신약 교회들에 서신을 보냈습니다(벧전5:2; 벧후2:1; 3:1).

유다는 신약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 교회 속으로 몰래 들어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유4).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소아시아의 신약 교회들에게 사탄의 교리로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계2-3장). 신약 성경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개의 권세, 즉 사탄의 사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주의에 물든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 천주교회, 기타 이단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성도를 유인해 갈 때 그들은 실로 주님의 교회를 유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개의 권세로부터 자기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개들은 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탈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잘못 배웠거나 지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운 저 기없고 눈먼 종교인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랄 것입니다.

저는 물론교도들이 지옥에서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과 또 자신들의 장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장소(지옥)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라고 부르짖으며 이를 깔고 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신자들이 지옥의 불 호수에 던져져서 교황이 자신들과 함께 불타는 것을 보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놀란 눈으로 머리에 불이 붙은 채 고통받는 신부, 즉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믿은 그 신부를 보면 그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할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와 현대주의에 물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 잠시 앉아서 설교자의 달콤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개정표준역」(RSV)과 「리빙바이블」(LB) 같은 불량한 성경에서 인용된 약간의 말씀과 다소 멋진 시로 혼합된 인본주의적 철학을 듣습니다. 그들은 다 일어서서 장송곡 같은 노래를 한두 곡 부르고 종교적으로 취한 채 집으로 갑니다. 사실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 밖으로 걸어 나와 설교자의 손을 잡고 설교를 찬사하며 그를 ‘거룩한 성직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거룩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은 “오, 얼마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자기들의 그 거룩한 성직자를 만나면 그에게 무어라 말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계22:15).

땅에 늘어뜨린 가운을 입고 성직자용 로만 칼라를 세운 사탄의 사역자들이야말로 바로 지옥에 던져질 개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탄의 사역자들 역시 개들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탕발림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문자 그대로의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탄의 사역자들 역시 개들입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며 거둬나서 구원받는 것을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개들입니다.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과 그의 영적 아들 테드(Garner Ted) 역시 개들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이라고 부르는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개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의 안식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는 신약 교회의 주일 예배를 저주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손에서 구원을 빼앗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든 이론을 고집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옥에 던져질 개들입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파수대’(Watchtower) 잡지를 파는 사탄의 사역자들은 ‘지옥’으로 갈 무지한 개들에게 종노릇하는 강아지들, 즉 성장이 정지되어 크지 못하는 강아지들입니다. 아마도 이 강아지들이 그 지역의 애완견 센터에서 빈대 방지 목걸이와 파수대 잡지를 바꾸는 일을 했다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왕국 회관에는 빈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자, 사탄의 일꾼들이여, 이미 나는 당신들이 찌찌거리고 불만의 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나를 가증스러운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엡5:11).

‘책망하는 것’은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이단 교도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을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폭로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잠잠히 이런 악독한 개들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 주어야 하며 성경의 조명을 그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엡5:13).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까?” 그럴까요? 침묵이 금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관대해야 한다고요? 휴! 과연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조용히 관용을 베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잠잠히 앉아서 그들의 악한 거짓말들을 너그럽게 봐주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살인자들을 그저 너그럽게 대해야 한단 말입니까? 눈먼 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가서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도록 하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그저 조용히 관용만 베풀려 하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조용히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유다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거짓된 개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여, 지옥은 존재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모든 것을 책망할 것이며 거짓을 조장하는 사탄의 모든 일꾼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목사님은 그들에게 너무 고약하게 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다시 마태복음 23장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너무 날카롭게 사탄의 사역자들을 책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형제여! 만일 내가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과 헛된 말을 하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전체 가정들을 뒤엎고 있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딤후1:10-11, 13, 16).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역자들을 가리켜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타락한 자들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이며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며 악한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사나운 살인자 개는 사실 악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개들이며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개들이며 악한 짐승인 개들입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밖에 있느니라(계22:15).

### 3. 징벌

지옥은 하나님과 사랑과 빛과 천국의 성도들과 분리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사악한 자들이 연합하는 장소이며 또 끝으로 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악한 바람을 심은 자들이 회오리바람을 거둘 장소입니다(호8:7).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이 천 배로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독사들과 같이 당신의 죄들이 당신을 영원히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대가를 영원한 징벌의 장소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징벌에는 세 가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1) 수치, (2) 치욕, (3) 고통.

#### 1. 수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다니엘은 최후의 심판 날에 책들이 펼쳐지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분출하여 나오는데 천천히 그분을 섬기고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때에 내가 그 별이 낸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해 바라보되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멸되어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바라보니라(단7:9-11).

대언자 이사야 역시 무시무시하고 수치스러운 이 심판의 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사13:6-8).

성경을 보면 '주의 날'은 성도들이 휴거받는 때로부터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한편 요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계20:11-12).

이들이 당할 수치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면 사악한 죄인들은 커다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범한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모든 추악한 상상, 모든 더러운 생각, 모든 경건치 못한 마음속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모든 나쁜 행실과 거짓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헛된 말이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속임수와 거짓말이 다 폭로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인 부부들의 행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당신이 속인 고용주들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밀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어둠 아래서 범한 죄든, 닫힌 문 안에서 범한 죄든 또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지은 죄든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그 죄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 오, 얼마나 끔찍한 수치입니까? 당신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날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보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당신의 옛 종교를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헐뜯기 바랍니다. 당신처럼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들과 더불어 단단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놀리기 바랍니다. 자, 어서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울부짖을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부인했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당신의 웃음은 공기 중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수치의 불 호수가 당신의 심장을 녹이는 동안 차가운 두려움이 당신의 신경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휘두른 사나운 두 주먹이 그때에는 떨고 있는 당신의 옆구리에 간신히 붙어 있을 것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후회의 고통과 슬픔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당신의 불신자 친구들을 둘러보고는 그들의 얼굴이 수치와 치욕으로 붉게 물들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거만하던 그들이 당신처럼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당신은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사13:11)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부탁하건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의 거만함을 버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에서 등을 돌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종교를 치워 버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교만을 날려 버리기 바랍니다. 당신의 불신을 치워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7장을 읽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 같은 저의 호소와 권면을 무시하면 당신은 영원한 수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치뿐만 아니라 치욕도 받게 될 것입니다.

## 2. 치욕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멸하실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거부하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나 역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택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사66: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에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에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리라(잠1:24-27).

하나님께 경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에 던지시고 당신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비웃으시면 이 얼마나 끔찍한 모욕입니까? 지옥의 화염이 포효하는 동안 당신은 물을 찾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것을 웃어넘길 수 있을지라도 그때, 즉 최후 심판 날에는 결코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덧붙여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영원히 경멸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전갈의 침과 같이 지옥에서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큰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기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심하게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고통 중에 소리칠 때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들려준 첫째 말은 “아들아, 네 생애를 기억하라!”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 생애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던 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금방 기억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당신은 매년 당신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 들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기억이 당신에게 모욕을 듬뿍 줄 것입니다. 옛날의 복음 찬송과 다른 찬송가를 들던 모든 시간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복음 설교가 모두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당신에게 증언한 친구들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당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던 일이 다 기억날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발자취를 당신은 다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은 지옥에서 끔찍하고 잊히지 않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영원히 당신 자신을 경멸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이 생생하고 정확하게 작용하므로 당신의 양심은 악성 종양처럼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들 중 대부분을 잊고 있습니다. 그저 두드러진 죄들 중 몇 개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기억의 손길이 은밀한 당신 옷장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기억이 덜거덕거

리는 해골처럼 당신을 책망하며 영원히 따라다닐 것입니다. 당신에게 손가락질하며 치욕을 줄 것입니다.

또한 양심의 죄책감은 실로 고통을 더해 줍니다. 죄책감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것을 한 가지 경험했습니다. 어떤 남자와 사귀고 있던 유부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기독교인이었으므로 양심의 죄책감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부정을 자기 남편에게 고백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녀의 부정이 도를 지나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도를 지나치지 않았다고 제게 말했으며 저는 거짓없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녀와 그 남자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레스토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녀의 가정에서 이미 결혼 상담을 몇 번 했었기에 그녀에게 그 잘못을 주님에게 고백하고 계속해서 좋은 아내가 되라고 충고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남편에게 그것을 말했다면 그녀의 남편은 괴로워했을 것이며 그들의 결혼이 깨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일은 약 석 달 동안 잘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째서 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자기의 부정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그녀의 만남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매일 그녀의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비밀을 불쑥 말해 버리고는 내가 먼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줄곧 그녀는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고백은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녀의 남편은 자기 아내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매우 상했으나 자기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고백을 했으므로 그녀의 죄책감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양심의 죄책감을 떨쳐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어떤 남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남자는 자기 목소리를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남자는 몇 개월 전에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 살인 사건을 사고로 처리하여 그는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남자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잃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적으로 그는 만일 자기의 범행을 목사에게 고백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감옥에 갈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 남자의 악몽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식별했습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설득해서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했고 그는 지금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 범죄를 행했지만 자기의 양심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의 양심이 그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양심의 침이 끊임없이 죄인을 찌를 것입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죄인에게 치욕을 줄 것입니다.

### 3. 고통

우리는 지금까지 수치의 고통과 치욕의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 불에 타는 것, (2) 재앙, (3) 만족될 수 없는 욕망들

#### (1) 불에 타는 것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혼은 이 땅에서 살 때에 가졌던 동일한 몸과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계19:20; 20:10-15; 22:11). 그 몸은 지금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는 그 몸이 불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꽃 속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을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출3:2)

한번 당신의 몸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그을린다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도 당신의 온몸이 끓는 물에 데쳐질 때의 끔찍한 고통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온몸이 고통으로 꿈틀거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당신의 온몸을 휘젓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이것을 견디고자 하나 지옥 불꽃의 맹렬함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이는 유향은 당신이 비명을 지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불이 붙어 있고 발과 손은 불에 데어 부풀어 있는데 당신은 고통을 참으려고 혀를 짹 깨물고 있습니다.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어 목이 쉴 것입니다. 괴로운 나머지 당신은 뜨거운 용암 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이를 갈며 유향 속으로 들어갑니다. 활활 타는 유향이 당신의 입 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목구멍을 지나 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과 밖 모두 불에 탈 것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귓속으로 흘러들어 당신은 또 한 번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손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품이 이는 불 호수 속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뜨거운 유향을 한입 가득 삼킵니다. 활활 타는 유향 냄새가 불타는 머리칼과 살갗의 메스꺼운 냄새와 범벅이 됩니다. 당신은 메스꺼움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나와 공포 속에서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 앞에서 이빨을 갑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빨을 갈고 있는 그 사람을 밀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느라 힘이 들어 무겁게 숨을 내쉬며 당신은 당신 폐에 연기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숨이 막혀 기침을 하면서 당신은 “물을 주시오!”라고 외칩니다. 당신의 목구멍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의 그을린 입천장을 바라보는 뜨거운 철판과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잇몸은 고통으로 떨고 있으며 당신의 이빨의 모든 신경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당신을 찌를 것입니다.

불꽃의 거친 소리와 찌를 듯한 지독한 소리가 당신의 고막을 찢는 듯합니다. 오, 단 한순간이라도 조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결코 조용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던 이 땅을 회상합니다. 당신은 잠시라도 고통을 덜어 줄 순간을 원하나 결코 그런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육신육신 쭈시는 당신의 두 눈을 감습니다. 그을린 당신의 눈꺼풀은 눈동자를 향해 타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그려 봅니다. 당신이 마시던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모두 회상합니다. 시원한 물을 회상할수록 당신의 불타는 목마름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오, 단 한 모금만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잠깐이라도 목을 조금 축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결코 목을 축일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실로 당신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놓친 것입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죄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고통이 없는 영원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사탄의 물통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종교와 바꾸었으므로 천국 대신에 지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울부짖다니, 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들이 무서워하겠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라(사13:8).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시116:3).

[부자개]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눅16:24)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14:10)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고(마8:12)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13:41-42).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당신의 목소리는 연기 나는 지옥의 성벽에서 메아리칠 것입니다. 당신은 울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지금 ‘운다고’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 물! 물! 오, 하나님! 내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더 복음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오, 주님! 내가 그 종교를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 물! 무……우울! 오, 하나님! 내가 왜 어리석었을까요? 제발 제게 물을 주세요! 물! 물! 이게 뭐야?” 고통으로 일그러진 당신의 두 눈에는 눈물도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 (2) 재앙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 22:18)

이것이 단지 헛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에서, 성경의 중간에서, 성경의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고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처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중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끝: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사악한 사람들은 “구원이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하는 것이다.” 혹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빼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이것 또한 성경에 더하거나 성경에서 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에게 세례, 로사리오 목주, 성상, 성수, 교회 입교와 회원권, 노자 성사, 임종 예배, 교리 문답,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성인들에게 기도하기, 성가, 선행, 행위와 노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 사회 봉사, 헌금 또는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을 더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우리를 대신하신 속죄와 고난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그분에게서 삭제해 버리면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언급하신 재앙들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에 나오는 경고는 단지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거기서 제하여 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성경을 편집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지 말라는 경고가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성경의 맨 앞과 중간에 나오는 동일한 경고들 때문에 저는 성경 끝부분에서의 경고가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는 ‘prophecy’란 단어가 ‘예언’을 말한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서 ‘prophecy’란 단어는 단지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대언’으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sup>6)</sup> 그러므로 모든 성경기록은 대언입니다. 물론 이 대언에는 가끔씩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베드로후서 1장 20-21절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no prophecy of the scripture)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만일 여기 나오는 ‘prophecy’가 단지 미래만을 다루고 있다면 성경에서 예언을 담고 있는 부분만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함부로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의미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서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 22:18)

그러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무언가를 더한 자들에게 이런 재앙들을 더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시기와 장소는 유일합니다. 바로 성경에 무언가를 더한 자들이 불 호수에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계헨나 지옥은

---

6)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7:1; 겔37:4; 계19:10 등 10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신약 시대에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전12-14장의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 무속 신앙을 부추기고 있다. 구약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불타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아주 견디기 힘든 불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고통에다 이런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불꽃의 고통에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미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수반하는지 지적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믿는다면 혹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고 그 뜨거움에다 재앙들을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내던져진 돌에다 큰 우박 덩어리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런 우박 덩어리들은 곧 불덩어리로 맹렬하게 당신을 강타할 것입니다(출9:14, 22-24).

살이 타는 뱀새와 머리칼 타는 뱀새와 유황 연기에다 하나님은 부패한 육체와 응결된 피의 메스꺼운 악취를 더하실 것입니다(출9:14; 7:17-18).

수없이 늘어난 불사(不死)의 개구리들이 저주받은 지옥을 뛰어다니며 외글외글 시끄럽게 할 것입니다. 비명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합해진 개구리 울음소리는 지옥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출9:14; 8:6).

또 지옥에서 당신을 덮을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더러운 지렁이 벌레들(사14:9-11)과 함께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를 더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혼들은 지옥의 맹렬한 불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고생할 것입니다(출9:14; 8:16-17).

이 모든 재앙들에 하나님은 병을 옮기는 파리 떼를 더할 것입니다. 당신이 “쉬어!” 하고 파리 떼를 쫓아도 금방 또 떼가 가득 모여들 것입니다. 몸에 붙은 이들과 함께 파리 떼는 당신의 귓속으로 기어 들어갈 것입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리면 파리 떼가 혀파까지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웅웅거리며 괴롭히는 수많은 파리 떼가 지옥의 고통들에 더해질 것입니다(출9:14; 8:21).

이런 모든 재앙들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참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들에다 끔찍한 메뚜기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당신을 깨물고 괴롭힐 것입니다(출9:14; 10:13-14). 이 메뚜기들을 보면 당신은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큰 눈과 긴 털과 사자의 이빨과 같은 이빨을 가진 메뚜기 떼는 전갈과 같이 꼬리에 침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으로 당신을 무자비하게 찌를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크기는 말과 같고 그 날갯소리는 당신의 귀를 울릴 정도로 클 것입니다(계9:1-10 참조).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지독한 재앙들 중 하나는 수치스럽고 끔찍한 나병입니다(레

13:30).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 모두 나병의 재앙으로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쿡쿡 찌시는 통증이 이미 고통을 당한 당신의 몸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이 나병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된 나병은 모두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습니다(요8:21, 24).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는 자는 분명히 이 무시무시한 나병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견뎌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신체의 병 중 하나는 종기입니다. 재앙의 한 형태로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을 피가 나오는 치질 종기, 즉 참기 힘든 종기로 치셨습니다(삼상5:6; 6:4; 시78:66). 이 같은 종기의 재앙이 지옥에 던져질 자들에게 더해져서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헛된 위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중 많은 것들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재앙들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계8:7-9; 21).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7년 환란기에 죄인들이 보일 반응은 지옥에 갈 자들이 보일 반응과 똑같습니다.

[넷째 천사가]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헌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각각의 덩어리 무게가 일 달란트쯤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계16:9-11, 21).

이 책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려면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지옥에서 회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할 것입니다. 부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와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에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재앙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빼 버리는 것’과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이 수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7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 버리는 것에 대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에

더하고 성경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들의 작용으로 성경의 ‘새 역본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1611 Edition*)이 고어로 기록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새 역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새 역본들 표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것을 출간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 역본들 안에는 정확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혐오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두 773,692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뜻이 변한 ‘고어’는 60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773,692개의 단어를 읽으면서 그 60개 단어를 있는 그대로 음역해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thee’와 ‘thou’를 ‘you’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갈 때가 다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운 운율은 테일러가 지은 「리빙바이블」(*Living Bible*)의 저속한 단어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개정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을 몹시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리빙바이블」보다는 천 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러의 의역 성경의 표지에 있는 ‘The Living Bible’이란 세 단어는 다 거짓입니다.

첫째로 정관사 ‘THE’란 ‘Living Bible’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살아 있는 성경’(The Real Living Bible)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Living’은 「리빙바이블」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침을 하실지는 몰라도 결코 거기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Bible’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빙바이블」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됩니다. 「리빙바이블」은 테일러의 말입니다.

제가 「개정표준역」(*RSV*)과 「리빙바이블」(*Living Bible*)에 대해 말한 것들은 모두 「미국표준역」(*ASV*), 「신미국표준역」(*NASV*), 「신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 「확장 성경」(*Amplified Bible*), 「신세계역」(*New World Translation*),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Bible*), 「앵커 성경」(*Anchor Bible*), 「굿스피드 성경」(*Goodspeed's Bible*), 「모팻 성경」(*Moffatt's Bible*) 그리고 다른 모든 현대 역본들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들(단어들)<sup>7)</sup>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His WORD)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들(His WORDS)을 보존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리빙바이블」과 같이 곡해된 모든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말씀들, 즉 단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권위를 인정받은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9세기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좋은 역본’을 훌륭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뒤 1901년에 성경의 여러 구절의 정확성에 의심을 던지며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미국표준역」(ASV)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개의 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로 이루어진 성경을 보존하실 수 있다면 과연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본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 (3) 만족될 수 없는 욕망들

지옥에는 만족을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둘째 부활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은 그들이 죽을 때 가졌던 그 몸과 함께

---

7) 우리말 성경은 ‘words’를 주로 ‘말씀들’ 혹은 ‘말들’로 번역했으나 원래 이것은 ‘글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뜻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상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다. 단어들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책과 이 책자에서 ‘말씀들’ 혹은 ‘말들’이 언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들은 모두 ‘단어들’을 뜻한다.



다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매장된 바로 그곳으로부터 혹은 그들의 시체가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그들의 몸이 남아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계19:20; 20:10-15; 22:11).

지옥에서는 땅에서 더러운 자들이 여전히 더러울 것입니다. 그들은 옛 사람 아담의 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충동은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전에 도덕적이고 점잖았던 죄인들도 자신들의 죄 많은 본성을 드러내며 극단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지옥은 정욕이 극도로 넘치나 결코 만족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식욕이 지옥에서는 만족을 원하며 애걸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면 고통에 시달린 당신의 육체는 불 호수의 뜨거운 화염과 재앙들의 끔찍한 고통을 맛볼 뿐만 아니라 만족되지 않는 마약의 욕망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폐가 망가지고 혈관에 니코틴이 흐르는 담배 골초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또 한 대의 담배를 집으려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지옥에서 크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호흡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연기를 많이 마시지만 니코틴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지옥에서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일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몸은 이 땅에서와 똑같이 알코올음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 단 한 모금의 위스키라도 마실 수 있다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을 갈망하는 혀, 즉 자기들의 타는 듯한 혀를 만족시키려고 불꽃 위로 손가락을 뻗을 것입니다. 단 한 모금의 와인을 삼킬 수 있기를 갈망하나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가운데는 사랑스러운 젊은 여배우 게일 러셀(Gail Russell)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셀은 1940년대의 인기 배우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사망 기사를 읽을 때 내 머리를 스쳐간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미스 러셀은 여러 번 결혼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할리우드에서 흔한 일입니다.

미스 러셀은 심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문에 실린 그녀의 사진을 몇 장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또 눈은 움푹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지옥에서의 형벌(중세 화가 르루지)

사진들 아래에는 그녀가 술과 씨름하고 있다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영화사는 그녀와 맺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어 공연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런 식으로 대중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이삼 년이 지난 어느 날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그녀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어느 누구도 몇 주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녀가 거의 두 달 동안 집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현관 벨을 눌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경찰의 보고에 의하면 그녀의 집 여기저기에 이백 개가 넘는 빈 술병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실 소파에는 한때 스타였던 그녀의 부패한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일 러셀, 그녀는 문자 그대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영원히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옥에는 게일 러셀과 다른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위스키, 와인, 맥주, 브랜디, 보드카 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알코올에 대한 갈망을 느끼나 그들은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대언자들 중 하나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즙을 마시는 모든 자들이아, 새 포도즙 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욘1:5).

술 마시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입에 술을 대지 못하게 되면 울부짖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욕에 가득 찬 창녀와 난봉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음탕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갈망에 사로잡힌 무력한 매춘부들을 생각합니다. 음욕을 불일 듯 일으키는 동성애자들을 생각합니다(롬1:27). 그들의 음탕한 욕구가 그들을 미치게 하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는 정욕이 수없이 많으나 그 어떤 정욕도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제4장

# 지옥의 존속 기간



*Duration of Hell*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은 고통에 시달리는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눅16:26)

하나님은 지옥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고 하시며 탈출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모든 티켓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단수 편도 티켓’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존속 기간은 영원합니다.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존속합니다. 물론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비웃습니다. 그들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끝없이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자기들의 작은 두뇌로 믿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라고 기록된 성경에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다.”(히12:2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기록된 성경에는 동시에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8장 1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잠언 6장 16절, 8장 13절, 로마서 9장 13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한 자나 의로운 자를 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만을 주장하는 현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과 천국에 대한 부분은 진리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증오나 지옥에

대한 부분은 부인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악인들이 성경 말씀 중 증오와 지옥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분이실까요? 만일 성경에서 증오와 지옥에 관한 구절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가짜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지 않으셨을까요? 절대적인 진실을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과연 달콤한 말을 늘어놓는 평화의 사자 현대주의자들이 옳을까요?

미국에서 살인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을 금하고 모든 종류의 범죄들에 대해 너그러운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은 바로 현대주의자들의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타락한 국가 교회 협의회(NCC)의 나약한 태도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매일같이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친히 사형을 제정하셨습니다(창9:5-6; 레24:21; 민35:30; 롬13:1-4). 하나님은 또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사형과 지옥을 설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자신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게 완전히 지키셨으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시12:6-7; 마 24:35)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일부 현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한 거짓말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이 영원토록 형벌받는 장소라고 말씀하셨음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들은 ‘답답하고’, ‘학식 없고’, ‘사리를 모르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소위 더 존경받을 만한 목사들은 “우리가 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하며 오히려 우리를 비난합니다.

수 세기 전의 이단 작가인 오리겐(Origen)은 “어느 날 하나님은 지옥을 청산하고 지옥의 마귀들과 거기 있는 자들과 화해하실 것이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오리겐 외에도 수많은 이단자들은 “이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지옥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외쳤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웨더헤드(Leslie Weatherhead)라는 한 어리석은 현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퇴화한 개념, 즉 무엇을 믿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음 후에 일종의 영원한 고통에 빠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크리스천 불가지론자」(*The Christian Agnostic*), p. 281).

세대의 완성은 우리가 지옥이라 불러 온 상태와 우리가 천국이라 불러 온 상태가 다 소멸되고 새로운 상태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에 완벽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죽음 이후」(*After Death*), pp. 64-65).

어리석은 웨더헤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우둔한 현대주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벌을 견딜 수 있는데 이것은 다만 그 형벌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지옥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회개하여 선량하게 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루이스 더닝톤(Lewis Dunnington), 「다가올 권능」(*Power to Become*), p. 223).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현대주의 철학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목살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따금 여러분은 현대주의에 빠진 성직자 중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그것이 궁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시다. 사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인 사람을 천국에 보내실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감언이설로 속이는 이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에 대해 충분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짧은 생애 동안의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철학을 들고 나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현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타락한 이론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최적의 때입니다! 모든 이단자들의 모든 이론은 결코 지옥의 존속 기간을 단 1분도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롬9:20-23, 14).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사55:8-11)

저는 위의 말씀이 신앙심 없는 모든 무신론자들과 머리가 텅 빈 모든 현대주의자들에게 두루 퍼지길 바랍니다. 이제 무신론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은 인간의 추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배를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과 현대주의자들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의식이 있는 상태로 불 속에서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교인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성스러운 현대주의 ‘목사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독자에게 제시하려는 성경 구절을 읽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일 독자께서 아직도 제 말을 믿지 않고 구원받기를 거절하려 한다면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기억할 것입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들을 잘라 내어 네게서 던지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마18:8).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협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막3:29).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8-9).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6-7).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히6:1-2).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누구나 천국의 복은 영원하다고 믿지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위의 말씀들에서 ‘영원한’ 혹은 ‘영존하는’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아이오니오스’(aionios)는 성령님께서 천국의 복과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려고 택하신 동일한 단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말씀들, 즉 마태복음 18장 8절, 마가복음 3장 29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8-9절, 유다서 6-7절, 히브리서 6장 2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영원한’ 혹은 ‘영존하는’으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가 다음의 성경 구절들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요6:47).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요12:50).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1:16).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요일5:11-13).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21).

복이 넘치는 천국의 존속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고통이 넘치는 지옥의 존속 기간도 그와 동일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이 냉방 장치가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다시 장식되어 결국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를 결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을 다소 달콤하게 장식하는 목사’는 사실 자기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을 가능한 한 안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의인들이 영원히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영원히 울부짖으며 자신을 저주하면서 지옥의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비록 무신론자들이 이 사실을 비방하고 논박하고 무시할 수는 있으나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더닝톤(Lewis Dunnington)이 지은 「다가올 권능」(*Power to Become*)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그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벌을 견딜 수 있는데 이것은 다만 그 형벌이 결국에는 가치 있는 목적을 달성한다고 우리가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지옥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회개하여 선량하게 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루이스 더닝톤(Lewis Dunnington), 「다가올 권능」(*Power to Become*), p. 223).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사55:8). 더닝톤은 오로지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서만 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대의 유약한 평화주의 철학을 신봉합니다. 이로써 더닝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부인하는 사악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이 현대주의 철학은 사실 영적 무정부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비유를 들어 보기 바랍니다. 세 명의 남자가 2층 방에서 희미한 스탠드 옆의 탁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세 남자의 대화 내용은 그들이 신중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어떤 부잣집이 그 세 남자의 목표물입니다. 그 부유한 가정의 남편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업차 마을을 떠납니다. 그 악한 세 명의 남자들은 목요일 밤에 그 집에 쳐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보석을 비롯한 가치 있는 물건들을 약탈할 것입니다. 만약 그 집의 부인과 아이들이 저항을 하면 심하게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벽 위의 시계가 금요일 정오를 가리킬 때 세 명의 남자는 시내 경찰서의 감옥으로 끌려갔고 증인들이 그 세 남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전날인 목요일 밤 그 부유한 집에 세 명이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그 삼총사 악당들은 부잣집의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세 남자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남자는 철저히 죄를 뉘우치며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죄로 인해 상심하고 완전한 참회와 슬픔에 차 있습니다. 만일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만 죄를 처벌해야 한다면 이 첫째 남자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남자는 이미 회심했습니다. 둘째 남자는 전혀 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자는 완전히 비정한 범죄자입니다. 이 남자는 경찰이 자기의 잔인한 살인에 대해 책망을 하자 오히려 그를 비웃습니다. 둘째 남자는 결코 회심하지 않습니다. 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남자는 더욱 비정해질 것입니다.

더닝톤의 철학을 적용한다면 둘째 남자 역시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사형 선고나 종신형은 이 남자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결코 '참회하거나 선량하게 될 기회를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죄인을 회심시키는 목적으로 죄를 처벌해야 한다면 완전히 비정한 이 둘째 남자 역시 전혀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남자는 인정이 많아 쉽게 감화를 받습니다. 삼십 일 동안 노력을 기울이면 이 남자는 교훈을 얻고 완전히 회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세 사람을 죽인 대가로 셋째 남자는 삼십 일의 형기를 채울 것입니다. 만일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만 죄를 처벌해야 한다면 이 같은 결정은 정당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더닝톤의 신학적 결론에 의하면 모든 죄인이 천국을 손에 넣기 위해 해야 할 일이란 비정한 죄인이 되어 결코 회심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형벌을 전혀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허튼 소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불끈 주먹을 쥐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각에 도전하는 신성모독의 저주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침입입니다. 죄는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쓸개처럼 쓰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죄는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말할 수 없이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처벌하십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지 않도록 세 번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요8:21)

성경은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9-11).

여기서 ‘영원무궁토록’(for ever and ever)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세세토록’(unto the ages of ages)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기쁨을 묘사하기 위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즉 세세토록] 보여 주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계21:25). 그러나 지옥에 있는 죄인들은 고통스럽게 매일같이 낮과 밤을 쉼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14:11).

당신은 몸이 부서진 채 고통으로 인해 아파서 누워 본 적이 있습니까? 오, 얼마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당신은 허공에 대고 “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밤의 적막이 내 고통을 가라앉힐 텐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침내 어둠을 이끌고 적막한 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여러분의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벽이 오길 기도하며 긴 밤을 깨어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아침이 되면 내 고통이 누그러지겠지!”라고 말하며 참습니다. 그러나 동틀 무렵 당신은 또다시 밤이 오길 바랄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수천 배로 과장한다면 당신은 지옥의 완전한 절망에 대해 약간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임상 심리학자는 최근에 연대학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어 시간을 인지하는 사람의 감각은 질주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사람은 실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실제 시간이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이 임상 심리학자는 여기서 4-5도의 체온이 올라가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온이 수천 도로 오를 지옥에서는 실제의 시간이 얼마나 느릿느릿일까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끝없는 시간, 즉 영원처럼 길게 보일 것입니다. 마침내 이렇게 낮이 지나가면 영원처럼 긴 밤이 끝없는 고통을 몰고 올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여전히 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휴식도 없이 여전히 물도 못 마시고 아무 희망도 없이 여전히 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나요?”라고 묻습니다. “백만 년입니다.”란 대답이 들려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밤은 낮이 되고 낮은 밤이 되나 여전히 휴식은 없습니다. 여전히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또 백만 년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불타는 혀는 “이백만 년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불타고 있는 몸을 움켜잡고 있는 또 다른 불쌍한 혼의 커다란 두 눈에 반사된 당신의 얼굴, 즉 고통에 가득한 얼굴을 봅니다.

당신을 움켜잡은 혼은 “아, 이 모든 것은 언제나 끝날까요?”라고 외칩니다.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결코!”라는 절망적인 답변이 불에 덴 당신의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그는 고통에 망가진 당신의 몸을 물어뜯고서는 당신을 놓아주고 거품을 내며 불타는 유향 속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 끔찍한 사실이 영원토록 당신의 마음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은

이백만 년 동안 불타고 있었으나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백만 년이 지나면 또 이백만 년이 오고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저주의 지옥에 대한 암담한 찬가를 절망적으로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몸과 사지를 불태우며  
천만 년 동안 있었지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울부짖으며 고통받을 기간은 같다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바룩(Bernard M. Baruch)이라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hopeless)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슬픈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바룩의 말이 정말로 옳다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곤 합니다. 수백만 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지옥의 화염을 없애시고 유향 호수에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건져 내리라고 결정하시면 어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부르시고는 “아들아,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 이제 수백만 년이 지났으니 이제 불 호수의 지옥을 차단하고 지옥에 던져진 자들을 천국으로 건져 낼 것이다. 이제 너는 냉난방 장치가 된 방화복을 입고 지옥을 통과하여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결정한 것을 말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어찌 될 것인가?

만일 제가 지옥에 가서 “자, 여러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전갈을 갖고 왔습니다.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잠시 울부짖음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수백만 년 동안만 불타면서 울며 이를 갈면 됩니다! 그저 수백만 년 동안만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라고 외친다면 지옥의 거주자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백만 년 동안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무섭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옥의 거주자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오?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오?(민23:19)

만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철회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비록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태양이 빙하로 변하고 천국의 상아 궁전이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으로부터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으므로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무덤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죽음이 주를 찬송할 수 없으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으되(사45:23; 38:18)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가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잠11:7).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8).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협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막3:29).

시온의 죄인들이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오? 우리 가운데 누가 영존하는 불사름과 함께 거하리오? 하는도다(사 33:14).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1:9).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단12:2)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히6:2).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계 14:11).

오! 영원이여! 영원이여! 영원이여! 영원은 결코 천천히 가지도 않으며 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행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무시한 불순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이들을 박살 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에너지를 받는 시계추는 계속해서 영원이란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이 경과해도 당신은 영원히 지옥의 연기를 없앨 수도 없으며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불에 데게 만드는 지옥의 문들을 녹일 수도 없고 자물쇠들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오, 끝없이 긴 영원이여! 가장 빠른 날개를 가진 그룹<sup>1)</sup>이 당신의 끝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추적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당신의 최후에 종지부를 찍지 못할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신 분께서는(사57:15) 지옥 형벌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사34:10; 계14:11). 그분께서는 분명히 ‘영원무궁토록!’, ‘영원무궁토록!’이라 말씀하십니다. 오, 무서운 말이며, ‘영원무궁토록!’ 지옥의 성벽 위에는 불로 ‘영원무궁토록!’이라 쓴 글이 있습니다. ‘영원무궁토록!’, ‘영원무궁토록!’

지옥의 불로 데워진 모든 기둥들 위에는 번개의 불길에 의해 ‘영원무궁토록!’이라 새겨질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토록!’ 지옥의 캄캄한 지하 감옥 안에서도 천둥의 무시무시한 거친 소리에 의해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무궁히!’라는 말이 메아리를 치며 울릴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족쇄 위에도 ‘영원히!’라는 도장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라는 끔찍한 단어가 불꽃 가운데로 올려 퍼질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영원히!’라는 메아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지옥의 끝없는 흐느낌의 심포니의 유일한 가사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만일 당신이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당장 멈추어 서서 당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 온 마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

1) 그룹: 영어로는 cherub이며 날개를 가진 영적 창조물로 하나님의 천상의 창조물 가운데 매우 큰 능력을 지닌 존재(창3:24; 겔10:1-2)



그러나 만일 당신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존속 기간은 영원합니다! 오, 구원받지 못한 독자여, 당신이 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오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제 인생의 핵심 목표입니다. 저의 삶은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지옥으로 이끄는 악하고 거짓된 종교 체제와 거짓 가르침들을 증오합니다.

저는 이 책의 7장에서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속히 7장을 읽고 여러분의 구원을 지금 이 시간 확증하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뺏뺏하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며 어떤 구제책도 없으리라(잠29:1).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헛된 것을 약속하는 마귀(중세 판화)



## 지옥의 등급



*Degrees of Hell*

수년 동안 저는 신학자들이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적인 논리를 펴며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다는 관념은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글쎄요, 아무개 박사님은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없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옥은 지옥이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그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은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다는 주장을 정말로 훌륭하게 반박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개 박사님의 신학적 사상이나 학구적인 학자의 소견이나 존경할 만한 목사님의 유창한 설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경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2.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3.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 1.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흥미를 자아내는 이 세 가지 주제는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너희는 알리고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었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사45:21).

온 우주의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그러나 종종 분명하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잠재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에게 형벌을 주실 방법에 있어 불공정하지는 않으실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떠오르자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사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셔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창18:25)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심에 있어 불공평하시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공의를 행하실 것을 원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실로 놀라운 계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와 같이 죄를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해도 좋을 진리입니다. 소돔에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법과 정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능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옥의 죄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공의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공정성을 훨씬 초월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던 욥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종기 난 몸을 긁으며 푸념했습니다.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속에서 말하겠으며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탄식하리이다(욥7:7, 11).

이 같은 욥의 말에 그의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욥을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수아 사람 빌닷이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려느

나? 네 입의 말들이 어느 때까지 거센 바람 같겠느냐?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욥8:1-3)

빌닷이 날카롭게 욥을 비난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물론 욥은 뒤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6절을 주의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닷의 말이 너무나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욥]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곧 알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당연한 벌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에스라 시대에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에스라의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 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친 뒤에 주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는데...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의로우시니 이는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 범법들 가운데서 주 앞에 있으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해 주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스 9:10, 13, 15).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형벌을 내리셨을 때 그분이 바르게 행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지옥의 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형벌을 주심이 공의로운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정확하고 공정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최종 심판자는 바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심판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5:22)

나사렛 예수님께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행10:38, 42)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자들과 카톨릭교도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공의로운 분으로 그토록 높이 찬양하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자가 되실 그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형벌을 선고하실 분은 바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시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거의 또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행3:14-15).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 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행7:52)

또 그[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네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행22:14)

심지어 불신자인 총독 빌라도의 아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시름*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들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마27:19).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마27:2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은 그분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실 형벌 선고가 의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에서 불공정하게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도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누군가 필연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이교도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지옥에 던져질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공정하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롬 2:11-16).

하나님은 이교도들에게 양심이 있으며 그 양심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자께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이교도들이 유죄임을 증언하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없이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은 또한 복음 없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실까요?”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것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었느니라(요1:4-9).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18-20).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 곧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의로우시고 사람들은 불의하다는 진리를 충분히 알 만한 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롬1:18).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불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안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봄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능력이 있으시며 삼위일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이 없어도 누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부인하는 모든 이방 종교 역시 영원한 능력을 지닌 절대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지만 기독교를 부인하는 종교들 중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한 신을 숭배해 왔습니다. 단지 여호와와 증인들과 몰몬교도들과 현대주의자들과 같은 아주 저속한 이교도들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호히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빛을 주셨고 만일 사람이 그 빛을 따르면 그에게 좀 더 많은 빛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만일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빛을 따른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렘 29:1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정글이나 외딴섬이나 멀리 떨어진 산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옥 형벌을 선고하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다시 읽어 보기 바랍니다. 만일 외딴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진심으로 좇았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롬1:20)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 입니다.

## 2.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3:4).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죄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법은 사람의 양심에 의해 조명을 받은 법이거나(롬2:14-15) 또는 기록된 율법, 즉 성경입니다(약1:22-25; 2:8-12; 눅24:44 참조).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롬4:15).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요일3:4).

한 가지 명확하게 명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즉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어리석은 현대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결코 진노하지 않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증오하는 능력을 상실한 분으로 믿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증오할 수 없는 신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나 증오를 보이지 않는 신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노하지 않는 신은 마귀입니다. 순결함과 공의와 의로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러움과 불의와 부정에 대해 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도덕적으로/윤리적으로/영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증오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요일5:17).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롬1:18)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잠6:16-19).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 가져온 모든 해악을 보았느니라. 보라, 이날 그 도시들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사악한 행위를 저질러 내 분노를 일으켰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렘44:2-4)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암5:21).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대적하려고 악을 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슌 8:17).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계2:6).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 죄인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해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사악한 자들을 벌할 것이요,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두려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출 것이며(사13:11)

그 백성에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해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되갚으리라(호4:9).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 1:7-9).*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벰후2:9)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5월이 지나면 6월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에 대해 죄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수당하시거나 강요당하시거나 변하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는 회오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의 티끌이니라(나1:3).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시 9:17)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에 등급이 있으므로 지옥에서의 형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아무개 박사는 “죄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다는 개념은 불합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달리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바로 그것을 입증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갈6:7).

스물한 개의 수박씨를 뿌리면 스물한 개의 싹과 거기 달린 열매가 나옵니다. 옥수수 세 낱알을 심으면 옥수수 세 줄기의 열매를 거둡니다. 백 개의 홍당무 씨를 뿌리면 백 개의 싹에 열린 홍당무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전에 우상 숭배, 살인, 간음, 신성모독과 절도의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은 단지 우상 숭배와 절도의 씨만을 뿌린 사람과 다른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죄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죄에 등급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속도 측정기에 의해 시속 85킬로미터를 기록한 사람과 105킬로미터를 기록한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벌금을 내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살인과 자동차 절도 중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큰 죄로 간주됩니까? 어떤 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까요? 물론 살인죄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죄가 다 같은 죄’라면 살인죄와 자동차 절도죄에 다 같은 형벌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등급이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롭게 판단한다면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2-23절에는 ‘차별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으므로 지옥에서 동일하게 벌받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2-23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차별이 없다.”는 것은 바로 전에 언급된 것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더욱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왜냐하면’을 뜻하는 ‘for’와 함께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런 의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진리가 로마서 10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롬10:12)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죄인을 동일한 등급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한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한 항목을 범하면 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열 개의 고리로 된 사슬은 고리 하나가 끊어졌을 때도 끊어진 사슬이고 열 개가 다 끊어졌을 때도 끊어진 사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도로의 법규가 제한 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로 규정했다면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모든 차량이 그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여러분이 11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15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당신을 앞질러 달린 차량의 소유자도 그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50킬로미터로 달린 그 사람과 똑같이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공평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10킬로미터로 달린 사람과 150킬로미터로 달린 사람은 제한 속도를 위반했다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둘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동등하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나 혹은 얼마나 사악하냐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어떤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의 주장에 반대한다

면 제 말을 믿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력도 있고 놓아줄 권력도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네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니라, 하시니라(요19:8-11).

이 구절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 주는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에게 내어 준 빌라도의 죄는 ‘큰 죄’(great sin)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다의 배반의 죄는 그보다 ‘더 큰 죄’(greater sin)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공의롭게 처벌을 수행한다면 유다는 불 호수에 가서 빌라도보다 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유다의 죄가 더 컸습니다.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일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큼니다.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 3.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 무어라 말씀하시는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마 11:23-24).

위의 성경 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지옥’, ‘심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등. 이것은 지옥과 심판을 분리할 수 없으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 줍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불 호수로 던져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죄인들에게는 이 심판이 다른 죄인들에 대한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보다 견디기 쉽다.”는 것이 형벌의 차별을 뜻하지 않고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없다면 왜 심판, 즉 판단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심판하는 일, 즉 판단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왕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손은 지옥 안으로 다른 한 손은 무덤 안으로 내미시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몸과

혼을 다시 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 즉 판단을 생략하고 곧장 그들을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지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답이 단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혼은 이 땅에서 행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형벌의 등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20:11-15).

신중한 독자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흰 왕좌 심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 알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올라오고 그의 몸은 땅속이나 바닷속 어디에 묻혔든지 그곳에서부터 다시 재건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과 혼이 연합되면 그 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심판은 '이렇게 죽은 자가 혹시라도 천국에 비집고 들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을 때 이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흰 왕좌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 호수에서 받을 형벌의 등급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형벌의 등급이 매겨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함으로써 저는 형벌의 등급이 세 가지 기본 범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1) 빛과 기회
- (2) 죄인들의 죄의 성격
- (3) 죄인들의 범죄 횟수

이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사45:21).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과 고통의 등급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각 개인이 마땅히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롬1:18)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노가 ‘차별이 있는 진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히2:2)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세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 1. 빛과 기회

그분께서 강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그분께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신아,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벧새다야, 네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굶은배 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마11:20-22).

위의 성경 말씀은 공정한 심판에 대한 중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벧새다에 살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빛과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고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고라신과 벧새다 사람들보다 지옥에서 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내가 네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곳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마 11:23-24).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돔 사람들이 만일 가버나움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과 기회를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 사람들은 비록 소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지옥에 있으나 더 많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12:41).

물고기를 숭배하던 니스웨 사람들은 대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보다 더 큰 선포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대의 관람석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복음 선포를 받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족들은 요나 시대의 민족들보다 구원의 빛과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과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지옥의 더 뜨거운 부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빛과 기회가 클수록 그 책임 역시 더 클 것입니다. 150년 전 미국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오늘날 미국에서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보다 지옥에서 보다 덜 뜨거운 곳으로 갈 것입니다. 1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레코드나 테이프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차를 몰고 근처 서점이나 잡화점에 가서 3달러가 채 안 되는 성경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인들처럼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 주는 교회도 많지 않았고 그런 교회들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 중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지금부터 몇 세대 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똑같이 지옥에서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저들보다 훨씬 많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인도, 아프리카, 뉴질랜드, 중국, 쿠바, 러시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들보다 미국인들은 복음의 빛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이 점을 분명히 참작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정글에 있는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존 강 유역에는 백인들의 발이 닿지 않은 수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마존강 유역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그들을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라고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집니다(롬6:23).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빛에 따라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일을 한 것으로 인해 지옥에 던져집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치료약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병 때문입니다.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약1:15).

불신앙의 어둠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만큼 빛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옥에서 받을 형벌의 등급도 그것에 따라 적절히 조정될 것입니다. 복음이 풍성한 땅에서 살며 자기 죄들 가운데서 죽는 자들은 영적 어둠의 땅에서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 거짓 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도 거부한 사람들보다 지옥에서 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거짓 종교를 믿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따라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은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은 바른 교회에서 참된 성경 말씀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큼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능력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더 높은 등급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9).

제가 위의 성경 말씀에서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이라는 말을 [ ] 괄호로 묶은 것을 보고 놀란 독자가 있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단지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는 ‘따로 떼어 두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히2:9; 요1:29; 요일2:2).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따로 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롬10:13). 이 문맥에서 우리는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입니다.

사람이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힘써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돌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것은 은혜의 성령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부하고 떠나면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귀한 피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공의로운 심판자 그리스도에 의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진정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받을 형벌보다 더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더 그럴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요19:11).

우리가 아는 한 빌라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비유들이나 그것들의 영적 적용 등에 대해서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문제의 대부분은 무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경우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무지를 이유로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삼 년을 넘게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유다는 수많은 설교와 교훈과 비유를 들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감미로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천국에 대한 진리와 거기에 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유다는 지옥에 대한 진리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와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대에서 서서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와 비교하며 유다에게 형벌을 확정하실 때 유다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요19:11).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던져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형벌의 등급을 정하실 때 빛과 기회를 고려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요점이 충분히 정리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 때에 참작될 둘째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 죄인들의 죄의 성격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심히 넘치도록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롬7:13).

이것은 아주 명백한 말씀입니다. ‘죄로 충만한 상태’(sinfulness)가 있고 ‘심히 죄로 충만한 상태’(exceeding sinfulness)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가 더 심한 죄와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요일5:16).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요일5:17).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형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의 형벌보다 큼니다.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쁜 성격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마12:31-32).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다 같은 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어떤 죄는 분명히 다른 죄보다 더 큼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네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네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창20:9)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출32:21)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이제 내가 주께 올라가리니 혹시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해야 할 수도 있느니라, 하고 모세가 주께 돌아가 이르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출32:30-31).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더라(삼상2:17).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떼어 찢으시매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붙여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큰 죄로 죄짓게 하므로(왕하17:21)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네게 권력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대적할 권력을 네가 결코 갖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요19:11).

작은 죄는 큰 죄와 마찬가지로 틀림없는 죄지만 하나님은 죄의 등급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죄와 ‘심히 큰 죄’와 ‘더 큰 죄’와 ‘이렇게 큰 죄’와 ‘보다 큰 죄’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여 자연스럽게 형벌과 ‘심히 큰 형벌’과 ‘더 큰 형벌’과 ‘이렇게 큰 형벌’과 ‘보다 큰 형벌’ 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합니다. 형벌이 없는 법은 결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형벌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울 것입니다. 형벌의 성격은 죄의 성격과 일치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히2:2)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대에서 책들이 펼쳐지면 모든 죄의 성격에 따라 지옥에서의 형벌에 대한 최종적인 등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 형벌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보다 더 강한 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근심하게 만드는 죄들 중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우상 숭배**

십계명 중 첫째, 둘째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룹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더러운 죄입니다(출20:3-4, 17; 골3:5).

## (2) 살인

살인이란 사악한 범죄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게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창9:6).

비록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으나(창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인을 범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3) 간음

하나님은 십계명 중 일곱째 명령으로 간음이란 큰 죄에 대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지정하시는 경우 이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 간통죄는 하나님께 너무나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 놓으신 결혼 제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음은 생명의 출산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가볍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13:4).

## (4) 동성애

또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레 20:13).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레 18:22).

하나님은 동성애를 매우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왜곡시키며 하나님의 지혜에 반기를 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동성애가 사회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심지어는 보호받기 까지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욱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롬1:24-28, 32).

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대에서 동성애자의 형벌을 받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하시면서 누군가를 포기하신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무서운 일이 될 것입니다.

### (5) 마법

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보다 위에 두셨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해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시138:2).

하나님은 점치기, 점판을 이용한 점 보기, 수정 구슬점 보기, 별점, 12궁도 점 보기 등을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려고 돌아서는 혼 //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꿇으리라(레20:6).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해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신18:10-12).

그러므로 해악이 네게 닥치되 네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악한 일이 너를 덮치되 네가 그것을 물리칠 수 없으리라. 황폐함이 네게 갑자기 닥치되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이제 네가 젊어서부터 힘써 행하던 네 마술과 많은 마법을 가지고 서 보라. 혹시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리하고 혹시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하라*. 네가 너의 많은 계획으로 인해 피곤하게 되었다. 이제 별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 네게 닥칠 이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같이 되어 불에 탈 것이요, 그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을 구출하지 못하리니 곁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 줄 숲도 없고 앞에 있으므로 *사람이* 앉아서 *몸을 데울 만한* 불도 없으리라(사47:11-14).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 당신에게 알려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 안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종착지를 지배하는 요소들에 대해 당신에게 알려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 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마귀들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마법사들과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서 몇 배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 (6) 술 취함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잠20:1).

술주정뱅이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즙을 마시는 모든 자들아, 새 포도즙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해 울부짖을지어다(을1:5).

교만의 왕관인 에브라임의 술주정뱅이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인데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도다... 교만의 왕관인 에브라임의 술주정뱅이들은 발밑에 짓밟힐 것이요...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가 독주로 인해 잘못을 범하고 포도주에 잠겼으며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상 *계시* 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재판할 때에 걸려 넘어지나니...(사28:1, 3, 7)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며 네 술부대를 그에게 주고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네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합2:15)

박사 학위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미워하시며 또 그것들을 만들거나 팔거나 마시는 자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술이 만들어 내는 술 취한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술 취한 자들은 지옥에서 자기들이 받을 형벌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 (7) 험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사악하고 가증하며 싸움을 일으키며 거짓말하고 상처를 주는 해로운 혀입니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출20:16).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약3:6).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잠16:27).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타오르는 숲에 숲을 더하는 것과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잠26:20-21).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악한 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잠6:16-19).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중 세 가지가 거짓말하고 시끄럽게 하며 싸움을 일으키는 혀와 관계가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험담을 퍼뜨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혀로 짓는 죄들을 주님은 매우 나쁘게 보십니다. 주님은 심판 날까지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이는 네 말들로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마12:36-37).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이 생전에 한 무익한 험담과 거짓말이 그들의 영원한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할 것입니다!

### (8) 신성모독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사람들에게 정확히



보여 주시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눈을 통해 자신들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롬3:13-18).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입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은 너무나 부패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의 악취를 풍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목구멍의 악취를 맡으시고 그 썩은 몸을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혀를 보시고는 그 안의 속임수를 보십니다. 그 입술의 산물을 검사하시고는 독을 발견하십니다. 사람의 입에 귀를 기울이시고는 심한 저주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 심한 저주의 말은 사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보여 줍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마12:34).

그러므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불경스러운 마음이 불경스러운 입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저주는 더러운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골3:8).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엡4:29-31)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종류의 더러움도 미워하시며 특히 더러운 입을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입은 마음과 생각이 더러움을 증명해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더러움은 특히 불경스러운 입의 더러움은 지옥에서 받을 그들의 고통을 가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장

나쁜 불경스러움과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여! 만일 당신이 일곱 배나 더 뜨거운 지옥 형벌을 당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고 그것으로 저주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또는 ‘예수님’을 사용하든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나 후자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써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므로 그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었는데 *그녀*는 단 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이더라.) 그들이 그를 감금하여 **주의** 생각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게 하였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에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레24:10-16).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레19:12).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신성모독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를 이 땅에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하셨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 때에 신성모독죄를 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서리칠 일입니다!

### (9) 도둑질

하나님은 도둑질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할 수 없으며 또 부정직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둑질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나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의 여덟째 명령은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며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을 거리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앉으셨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흩어져 떨어지는 사이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마21:13).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강도들이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 때에 직면하게 될 바로 심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둑들을 좋지 못한 존재로 보셨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법을 제정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도둑들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습시다.

도둑이 침입하다가 발견되어 매를 맞고 죽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출22:2)

도둑에게는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도둑을 맞은 자가 심지어 도둑을 죽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둑을 맞은 피해자는 도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시다. 어떤 종류의 절도를 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시다. 주인집의 돈궤에서 돈을 훔치든지, 근무 시간을 속이든지, 가게 물건을 슬쩍하든지, 차를 훔치든지, 금고를 털든지, 약탈을 하든지, 위탁금을 횡령하든지 하나님은 도둑이 지옥에서 자기의 형벌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10) 이단

하나님은 이단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난도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반대하거나 성경을 넘어서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성경 이외의 추가적인 것이거나 어느 정도만 성경적인 것은 다 이단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주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구출할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벧후2:1-4, 9)

이단 교리는 가증한 것입니다! 이단은 이단자들을 지옥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교사들의 길들이 악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악하고 추하고 극악무도합니다. 이단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심판 때에 형벌을 받도록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란 단어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위의 성경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이단을 크게 ‘주를 부인하는 것’과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것’으로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신성을 부인하는 종교 체제는 모두 이단입니다(행동과 말로써)! 진리의 길과 유일한 구원의 길을 비방하는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자는 이단의 거짓 교사입니다.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선전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이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에서 무엇을 제하거나 그것에 무엇을 더하는 종교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생들(이단자들)이 자기들 혼자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듭니다. 거짓 선생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함께 데려갑니다. 베드로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 우니라.”(잠11:30)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자의 열매는 사망의 나무이며 혼들을 지옥에 보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옥에 갈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는 악의 열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지옥에 던져질 혼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결과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불에 탈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마7:15-20).

사탄의 종교 사역자들은(고후11:15)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꾀어 주를 부인하게 하고 진리의 길을 휘방하도록 함으로써 불 호수에서

상상하지 못할 뜨거운 불에서 탈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헤치는 자니라.… 나무를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를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마12:30, 33).

이단 종교 지도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휘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이단 지도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혼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며 그분을 반대하면서 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 지도자의 열매는 악합니다. 최후에 그 이단 지도자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그리스도를 대면할 것이고 자기들이 지옥으로 이끈 혼들의 숫자에 따라 정확하게 지옥에서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잠1:31)

내가 너희 행위들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고 그곳의 수풀에 불을 놓으리니 그 불이 그곳 주변의 모든 것을 삼키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렘21:14).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 때에 로마 천주교의 교황과 같이 서고 싶지 않습니다!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나 사제들이나 수녀들이나 수도사들과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 장로들’과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현대주의에 빠진 개신교나 루터교 등에 속한 거짓 선생들 중 어느 누구와도 같이 서고 싶지 않습니다!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창시한 에디(Mary Baker Eddy)나 그녀를 따르는 어떤 사람과도 함께 서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물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캠펠과 사람들과도 함께 그 심판대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에 뜨거움으로 몹서리칠 또 한 형태의 죄인이 있습니다. 지옥의 불은 이런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 더 크게 소리칠 것이며 뜨거운 열기 역시 증폭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로 인해 세상에 화가 있도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에는 화가 있도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3, 6-7, 10, 14).

이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악한 어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아 결국 지옥에 갈 어린아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어린아이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구원받지 못한 악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지옥의 화염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만드는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부모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채 유아 세례를 주는 목사들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주일 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열 가지 사악한 죄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열 가지 죄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자들의 형벌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열 가지 죄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한 세 개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새로이 하기 위해 먼저 열 가지 죄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우상 숭배
2. 살인
3. 간음
4. 동성애
5. 마법
6. 술 취함
7. 험담
8. 신성모독
9. 도둑질
10. 이단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3번)과 음행(4번)과 부정함(8번)과 색욕과 우상 숭배(1번)와 마술(5번)과 증오(2번)와 불화와 시기심

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10번)과 시기와 살인(2번)과 술 취함(6번)과 흥행담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5:19-21).

더욱이 음행(4번)과 모든 부정한 것(8번)이나 탐욕(1번, 탐욕=우상 숭배)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3번)나 부정한 자(8번)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엡5:3-5).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4번)나 우상 숭배자(1번)나 간음하는 자(3번)나 여성화된 남자(4번)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4번)나 도둑질하는 자(9번)나 탐욕을 부리는 자(1번)나 술주정뱅이(6번)나 욕하는 자(7번)나 착취하는 자(9번)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전6:9-10).

죄의 형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상속으로 받지 못할 죄인들과 연관된 죄의 유형을 상세히 열거하셨습니다. 이 열 가지 죄의 유형들은 아마도 지옥의 형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 가지 중 대부분이 한 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1. 우상 숭배는 다섯 번 언급되었습니다.
2. 살인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3. 간음은 세 번 언급되었습니다.
4. 동성애는 다섯 번 언급되었습니다.
5. 마법은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6. 술 취함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7. 험담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8. 신성모독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9. 도둑질은 두 번 언급되었습니다.
10. 이단은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죄의 성격에 따라 지옥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히2:2)

### 3. 죄인들의 범죄 횡수

셋째로 형벌의 등급은 죄인들이 지은 죄의 숫자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히2:2)

죄인은 모든 죄 하나하나에 대해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 번 지을수록 형벌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특정한 죄에 대해 말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민32:23).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은 모든 죄는 희생을 좇는 짐승처럼 그를 추격할 것이며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 때에 책들이 펼쳐지면 그 죄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모든 죄는 악한 행위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악한 행위의 숫자가 많을수록 지옥에서 받을 형벌은 더 클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 죄인들은 “좋아. 내가 지옥에 갈 운명이라면 땡땡거리고 살며 죄에 빠져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성경은 “안 됩니다! 더 죄를 지음으로써 형벌을 증가시키지 마시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취하며 내 영에서 나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사30:1).**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죄에 죄를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죄를 더한 만큼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해당하는 형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횡수에 주목하십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가 복리 이자처럼 불어남을 보여 줍니다. 사람들이 죄에 죄를 더할 때 그들이 받을 멸망은 잠자지 아니합니다(벧후 2:3). 이것은 마치 당신이 은행에 저금을 하여 날마다 이자가 붙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날마다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에 형벌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봉사에 대해



100% 보상해 주십니다. 생애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00%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 배(an hundredfold)<sup>1)</sup>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마19:29).

주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말3:6; 히13:8). 주님께서 100%, 즉 두 배로 보상해 주시는 개념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땅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일곱 아들과 세 딸이 태어났고 그의 재산은 또한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집안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더라(욥1:1-3).

여러분은 주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커다란 시험과 고난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련 가운데서도 욥은 주님에게 신실한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신 뒤에 주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타올랐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취한 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내가 그의 기도를 받으리니 이것은 너희가 내 종 욥과 같이 나에 대하여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대로 즉 너희의 어리석은 행위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시니(욥42:7-8)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100%', 즉 두 배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진리임이 욥의 경우에 입증되었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셨고 또한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두 배를 주셨으므로(욥42:10)

---

1) 우리말에서는 영어 'hundredfold'의 'fold'를 'times'의 개념으로 취급해서 대개 '100 배'로 번역했다. 원래 'fold'는 '접다'는 뜻을 가지며 레이시 목사님은 이에 따라 '100번 접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100배'가 아니고 '100%', 즉 두 배로 이해했다. 다음 글에서는 이것을 이해해야 이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욥기 1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욥의 소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들 - 7명
- 딸 - 3명
- 양 - 7,000마리
- 낙타 - 3,000마리
- 소 - 500겨리
- 암나귀 - 500마리

이렇게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소유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한 일곱 아들과 세 딸을 두었더라(욥42:12-13).

하나님께서서는 정확하게 두 배로 보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잠깐만요. 하나님은 욥의 자식들을 두 배로 늘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전3:21)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내세에서 존재합니다. 주님의 경건한 종은 자기 자식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욥의 자식들은 죽어 낙원에 갔습니다. 욥은 여전히 자기 자식들을 소유했습니다! 욥은 영원 가운데 자기 자식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열 명의 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처음 자식들의 남녀 숫자에 따라 정확하게 남녀 자식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욥의 소유>

	처음	나중
아들	7명	7명
딸	3명	3명
양	7,000마리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	6,000마리
소	500겨리	1,000겨리
암나귀	500마리	1,000마리

우리 주님은 사람을 우롱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봉사하는 자녀들에게 100%로, 즉 두 배로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드린 모든 봉사에 대해 심판 날에 두 배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신다면 사탄의 자녀들이 범한 죄에 대해 그들에게도 100%로, 즉 두 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거슬러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심판 날에 두 배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두 배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의 손안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라(출22:4).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그것을 도둑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요(출22:7)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하라(사40:2).

우선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으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재산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렘16:18).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당황하게 하시되 나는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되 나는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해약의 날을 그들에게 가져오사 두 배의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렘17:18).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계18:6).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흰 왕좌에서의 심판 날까지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딤후5:24). 공의의 심판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범한 죄의 횡수를 셈하시고 그것들을 성격에 따라 평가하신 후 ‘죄에 죄를’ 더한 것에 대해 두 배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당신이 단 하나의 형벌을 받는다 해도 불 호수에 던져질 가인이 외친 것처럼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큼니다!”(창4:13)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배로 받든 두 배로 받든 당신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죄의 횡수를 세고 있다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들의 무게를 가늠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눈을 피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계셔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살피시느니라(잠15:3).

오 너 곧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야, 너의 끝이 왔고 네 탐욕의 한계가 왔도다(렘51:13).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 도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다 채우라(마23:31-32).

하나님께서서는 죄인들의 죄의 분량과 한계를 세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악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살전 2:16).

어떤 죄인들은 죄악의 끝까지 가서 그 양을 완전히 채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죄의 유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죄의 유형은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 즉 ‘행한 죄’(Sins of commission)와 ‘행하지 않은 죄’(Sins of omission)로 나뉩니다. ‘행한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죄입니다. 이런 유형의 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행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종류의 죄들은 ‘행한 죄’보다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 행한 죄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출20:15).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도둑질을 하면 이것은 곧 ‘행한 죄’가 됩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한다면 이것 역시 ‘행한 죄’가 됩니다.

## (2) 행하지 않은 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출20:12).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곧 ‘행하지 않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17:30)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행하지 않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약4:17).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1:14-15).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벘전4:17)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살후 1:7-9).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들, 즉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끔찍한 멸망의 형벌을 대가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죄인들이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책들이 펼쳐질 터인데 이 책들은 ‘행하지 않은 죄’가 ‘행한 죄’보다 훨씬 더 많음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날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흰 왕좌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죄인이 범한 죄의 횡수에 따른 최종 형벌의 등급이 그 죄인에게 정확히 내려질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거짓말이 쌓여서 하나하나 더해질 것입니다. 매일같이 당신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죄에 죄를 더합니다. 그러면 언덕이 산이 되고 그 산은 큰 산맥이 됩니다. 더미에 더미를 쌓아 올린 죄들은 결국 당신을 흰 왕좌 심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행한 모든 거짓말은 당신이 받을 형벌의 양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속임수를 행할 때마다 당신은 영원토록 당신의 고통의 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모든 맹세, 모든 헛된 말, 모든 우상 숭배 행동, 간음 행위(육체나 마음에서, 마5:28) 등이 다 쌓일 것입니다. 날마다 쌓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쌓입니다. 행한 죄와 행하지 않은 죄가 계속해서 더미를 이루며 쌓입니다. 매주 죄가 쌓이고 매달 죄가 쌓이며 매년 죄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인 죄들은 맹수와 같이 뜨거운 숨을 내몰아 쉬며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을 추격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한결같이 당신을 천국 밖으로 내쫓아 지옥에 넣기에 충분합니다. 과연 당신은 이 죄들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게 될까요? 오직 심판자 그리스도만 이 무서운 형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두드러진 죄가 하나 있습니다. 되풀이하여 범하면 범할수록 지옥에서 당신이 받을 형벌의 등급을 증폭시킬 죄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만들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 의해 당신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요3:18).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요1:12; 행16:31; 계3:20).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즉시 당신을 지옥에 던져 넣을 심각한 죄입니다. 바로 지금 천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간음과 살인과 우상 숭배와 강탈의 죄를 범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천국에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과 사기와 절도와 저주와 불경스러운 언행을 행했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독자여!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지옥의 불 호수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과연 당신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여러 번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까? 그 횃수에 상관없이 당신은 몇 번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악한 발로 짓밟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히10:29).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뻔뻔스럽고 잔인하게 그리스도를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보다 듣고서도 그분을 발로 짓밟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 보지 않은 사람도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며 지옥에서 지내야 합니다(롬1:20).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는 선택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구원의 초청에 등을 돌림으로써 예수님을 잔인하게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더 중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몇 차례나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마다 그것은 엄청난 죄에 죄를 더한 것입니다. 오! 당신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우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다가오매 자기 종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려고 농부들에게 그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며 다른 하나는 돌로 치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므로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는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마21:33-40)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십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집주인이 진노하리라는 것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 주인은 자기 아들을 거부하고 죽인 자들에게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의 상상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악한 농부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그분을 짓밟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모든 죄인들에게 일어날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는 무서운 결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의 끝은 어떨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히2:2)*

이번 장에서 우리는 불 호수에서의 형벌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치에 맞게 증명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요점을 보여 드리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의의 심판자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나온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고 이번 장을 마칠까 합니다. 아래의 비유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논박하는 성경 말씀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던 불신자와 구원받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 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눅12:46-48).

주의 깊게 읽어 보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던 자는 모르고 있던 자보다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많이 맞겠지만... 적게 맞으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최종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자기 몫을 정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의 몫, 즉 지옥에서 받을 자기들의 형벌의 등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벌의 등급은 구원의 빛과 기회와 죄들의 성격과 범죄 횟수에 의해서 공정하게 정해집니다.



지옥 형벌(중세 화가 디바르톨로)



## 제6장

# 지옥의 필요성



*Necessity of Hell*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영원을 보낼 장소를 예비하셔야 했던 때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Cherub)으로서 타락하기 전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루시퍼는 하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루시퍼는 바로 하나님의 왕좌를 덮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화강석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불꽃을 키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어 보기 바랍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2-15).

사람의 아들이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뉘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라(겔28:12-16).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시퍼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을 때 그는 하늘 밖으로 쫓겨났고 땅에 던져졌으며 최종적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가 타락한 때에 하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루시퍼]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계12:4).



타락하여 사탄이 된 루시퍼

천사들은 성경에서 종종 ‘별들’로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 12:7-9).

하나님은 창조 과정에서 천사들이 영원토록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멸절될 수 없으며 어딘가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죄와 함께 머물 수도 없고 머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영원을 보낼 장소를 예비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한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창1:26-27).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므로 사람도 영원히 존재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사람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타락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처벌하셔야 했으며 또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영원토록 넣어 둘 장소를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을 갈보리로 보내사 사람들을 죄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인들을 어느 곳에 두셔야 할까요? 과연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단 한 가지 분명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하고 삶을 살면서 사탄을 좇기로 한다면 영원토록 사탄을 좇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하나님은 결코 지옥을 사람들의 최종적인 거처로 마련하지 않았습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사람의 비열한 사악함 때문에 지옥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상식을 가지고 지옥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니다.

1. 죄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하여
2.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하여
3. 죄인들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하여

이제 이런 순서대로 지옥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죄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하여

5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극도로 미워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그분은 어떤 죄도 간과하실 수 없으며 또 반드시 정당하게 그것을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 속에서 죄를 처벌할 장소로 두 곳, 즉 갈보리와 지옥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우리가]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롬5:18)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요12:47).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요3:16-17).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치르셨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인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갈보리에서 주님의 피로 인해 자기 죄가 완전히, 영원히 제거되었다고 믿는 죄인은 영원토록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2:13-14).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법의 대가인 지옥 형벌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간단한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갈보리에서의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무시하고 구원자를 거부한다면 자기 자신의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代贖)하셨음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에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스스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갈보리에서 형벌을 당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에 갈 때 그들의 죄는 두 번 처벌을 받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두 번 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지 않고 단지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경건해 보이는 생각은 매우 지적으로 들리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금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치르셨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여섯 개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비꾸로 나가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만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두 번 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속임수입니다! 과연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 죄인들은 지옥에서 자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은 죄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지옥은 또한 죄를 격리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죄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딘가에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들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요8:21) 죄인들과 그들의 죄는 똑같은 장소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므로 죄를 어딘가에 격리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문자 그대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온 땅에 어둠이 임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죄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이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도 없으며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감금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 2.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영원히 분리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내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달콤한 이론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트럼펫이 울립니다. 드디어 시간(time)이 끝나고 영원(eternity)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저의 새 저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현관 벨이 울립니다. 아마도 그 벨 소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가 곡조를 떨 것입니다. 내가 문으로 가니 천사 가브리엘이 거기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브리엘! 어서 들어오세요!”

“레이시 목사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께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님을 위해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성경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설교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설교라니요? 가브리엘, 여기는 천국이에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구식의 뜨거운 복음 설교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때 나는 실망하면서 마음을 꺾이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셨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생각했는데.”

“중소, 가브리엘,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짓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설교하겠소.”

가브리엘과 나는 문밖으로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브리엘이 “잠깐만요. 문을 잠그고 나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문을 잠그라고요? 가브리엘, 여기는 천국입니다!”

“나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에는 도둑들과 모든 저주받을 강도들과 모든 사악한 강탈자들이 있습니다.”

“오! 이런...” 더욱 실망하여 나는 문을 잠급니다. 거리로 걸어 내려가는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스러운 부인과 귀여운 두 딸이 있지요?”

“물론이죠, 가브리엘, 당신도 그들을 보았지 않았소! 정말 인형같이 어여쁜 아이들이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내와 두 딸이 혼자 거리로 나다니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왜 나가면 안 되나요? 가브리엘, 여기는 천국입니다!”

“나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못하셨지요. 모든 더러운 성범죄자들과 타락한 강간범들이 여기 천국에

있습니다.”

이 말에 나의 마음은 더 가라앉습니다. 가브리엘과 나는 거리를 내려다봅니다. 앰블런스가 병원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내 안색을 살피고는 “그래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죄인들과 함께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이 왔습니다.”

가브리엘과 내가 좀 더 가자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토록 많이 보았던 애도의 모습이 그 장례차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가브리엘은 이제 나를 쳐다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가브리엘은 눈을 밑으로 깔고는 “그래요, 죄와 함께 사망이 왔지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악한 자들과 이 땅에 살았던 피에 굶주린 모든 살인자들이 여기 천국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심장은 더욱 가라앉아 나는 한숨만 쉽니다. 가브리엘과 내가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단정치 못한 술집에서 사탄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거리의 여자들이 문간에 서 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이 길가 도랑에 누워 있습니다. 신문 잡지 판매점에는 더러운 잡지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는 신문 파는 소년이 서 있습니다. 그 소년은 신문을 집어 들고 “신문입니다! 읽어 보세요! 히틀러와 히로히토와 모든 공산당원들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만 천국이 정말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의인들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비록 ‘의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들은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갖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옛 본성과 하나님 자신의 본성인 새 본성입니다. 의인들은 죽어서 옛 본성을 버리고 새 본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과 비슷하게 되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죽어서도 자기가 지닌 옛 본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여 항상 죄를 지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들은 곧바로 천국을 더럽힐 것이고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4).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2).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 하더라(계22:11).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기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독자 여러분은 감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형벌 제도가 없는 사회는 어떻게요? 부정직한 법률가들과 어리석은 판사들 때문에 넘쳐나고 있는 범죄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아주 살기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감옥을 개방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별 있고 지성을 갖춘 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이유로 지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시민과 범죄자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들과 악인들도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감옥은 지옥이 있어야만 함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모든 감옥은 지옥이 존재해야 함을 의논할 필요가 없게 해 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 감옥의 불길한 출입문을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음울하고 높은 교도소 벽의 그늘 아래 서곤 했습니다. 저는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교도소를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감옥인 지옥을 연상시켰습니다. 저는 종종 샌프란시스코만의 해변에 서서 바닷물 건너 알카트라즈(Alcatraz) 감옥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비록 거기에 더 이상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곳을 쳐다보며 탈출할 수 없는 그곳의 성벽 뒤에서 삶을 살다간 죄수들을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옥의 탈출할 수 없는 뜨거운 성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산쿠엔틴(San Quentin), 줄리엣(Joliet), 캐논시티(Canon City), 브에나비스타(Buena Vista) 등과 같은 미국 전역의 여러 감옥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옥을 연상하곤 했습니다. 그 감옥들은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과 자유 사회를 분리시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악인들과 천국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과 영원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 3. 죄인들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동화된 로봇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담은 옳고 그른 것 중에서 선택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아담은 그릇된 것을 택하였지만 그것은 아담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조작된 로봇이었다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 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균립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롬5:12-14).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욘31:33).

성경은 아담의 범법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선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마귀 중 하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둘 중 어느 하나를 자기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기 위한 자유 의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수24:1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리라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대적하는 증인이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니라(수24:22).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출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출하게 하라, 하시니라(삿10:13-14).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시119:173).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잠1:29)

한 가지 일이 필요하리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10:42).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마21:28-29)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5:40).

창조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죄인이 선택한 것을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절대적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국의 것들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복음적인 교회의 모임에 참석한, 구원받지 못한 남자나 여자를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곳의 찬송가는 정말로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찬송가의 내용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입니다. 그 곡조는 사람의 혼에 다가와 호소합니다.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찬양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노래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펴서 천국의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샘에서 물을 마시며 하늘의 만나의 잔치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아멘!”이라 외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환희에 젖습니다. 단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가련한 사람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는 교회 모임에서 이리저리 몸을 비틀며 강으로 뉘시하러 가고 싶다고 느낍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노래가 비위에 거슬립니다. 사람의 혼에 호소하는 음악에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즉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에게 호소하는 유일한 음악은 죄 많은 생각의 저속한 것들을 담은 것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에게는 분명히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에 혼란만 일으킵니다. 그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무 동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는 광적인 이 악몽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하게 “아니오!”입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천국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곳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그가 천국에서 느낄 비참함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의 타락한 본성은 천국을 비참한 곳으로 여기며 한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유 의지와 선택을 짓밟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대신에 지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지옥에 도착하면 그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 천국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를 벌하고 격리시키실 유일한 장소로서 지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들을 영원히 의인들과 격리시키기 위해서도 지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옥은 꼭 필요합니다.



최종 심판(중세 화가 시노렐리)





## 제7장

# 지옥으로부터의 탈출



*Escape of Hell*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마23:33)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빠져나올 길은 하나도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옥으로 가는 모든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람이 한번 지옥에 갇히게 되면 그곳을 빠져나올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으로부터의 탈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옥의 저주를 피하려면 ‘지옥에 도달하기 전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탈출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마23:33)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마태복음 23장 13-33절 참조). 그 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필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런 서기관들은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들(지도자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요한복음 3장 1, 10절 참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성과 높은 도덕성을 지녔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이 말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심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길을 잃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만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사람의 의는 너무도 약하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에 사람의 의는 더럽고 부패했으며 그래서 썩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을 지옥의 입구로부터 10센티미터라도 피할 수 있게 해 줄 종교적 의식이나 선행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롬3:10-12).

죄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구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상류층 시민입니다. 그들은 청결한 생활을 했으며 도덕적이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모범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달리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다음과 같이 혹평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마23:25-27).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마 겉으로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교를 독실하게 신실하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의 구성원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들처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교회에 십일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누가복음 18장 11-12절 참조). 여러분은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수하는 종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욕도 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외설적인 책이나 잡지를 읽지 않고 음란한 영화도 보지 않으며 짐승을 학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다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다면 어떻게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막다른 지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때 바리새인으로 지내던 사도 바울의 생생한 고백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10:1-3).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사람을 어두운 지옥의 문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면 그의 의가 그 사람을 찬란히 빛나는 천국의 문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시118:19-20).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 의로운 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의의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지녀야 할 의는 반드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들의 뒤를 따라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의를 좇고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시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바울이 그토록 마음에 큰 고통을 느낀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종교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 의식/행위를 통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롬3:10)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유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 64:6).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의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의를 좇으려 한다면 결코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곧장 지옥으로 곧두박질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의식과 전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리를 배우고 견진 성사도 받고 미사에도 참여하고 기도도 외우고 염주도 돌리고 마리아를 부르기도 하며 고해 성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며 교회도 나가고 다른 종교 단체에도 가입하고 선행을 하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을 목상하며 파수대 잡지도 팔고 찬송도 열심히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의 의가 단지 코앞의 악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는 결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설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질문이 아직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마23:33)

이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당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의를 따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또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행16:3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엡3:17)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롬10:9)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3:20).

세례, 교리 문답, 안수,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입교, 교회 회원이 되는 것, 십일조와 같은 행위는 단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간단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믿음
2. 회개
3. 영접(받아들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여러분의 죄들을 떠나 회개하고, 즉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만 함을 인정하고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을 부르며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면 - 저는 정말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 예수님을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잘 압니다. 제 힘으로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최종 심판(중세 화가 브루에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의 정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거기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시118:19-20).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라.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사12:2-4).





## 제8장

# 결코 죽지 않는 벌레



*The Worm That Never Dies*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3-48).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 밖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힌놈의 골짜기’(The Valley of Hinnom)였습니다. 여기서 ‘게헨나’(Gehenna)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게헨나’는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를 뜻하는 ‘게힌놈’(Gehinnom)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힌놈의 골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모든 쓰레기는 이 ‘힌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이 죽으면 그 죽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힌놈의 골짜기’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세상의 낙오자들이 길에서 죽으면 그들의 시체 역시 그대로 ‘힌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죄수들이 감옥에서 죽어도 그들의 몸 역시 결코 꺼지지 않는 ‘힌놈의 골짜기’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날이 바뀌고 해가 가고 시간이 가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힌놈의 골짜기’

쓰레기 더미의 불꽃은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그 연기는 크게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연기 나는 그 쓰레기 더미 주변에는 구불구불한 벌레들, 즉 구더기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는 구더기들은 밤낮으로 계속해서 세상의 쓰레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힌놈의 골짜기’를 하나의 예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힌놈의 골짜기가 바로 지옥과 비슷하다. 그곳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지옥’이란 단어를 세 번, ‘불’이란 단어를 여섯 번 그리고 ‘꺼지지 않는다’를 다섯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옥의 불은 끊임없이 탈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43-48절에 대해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며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거기를 헤어날 수 없을 혼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일지를 보여 주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저의 혼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벌레’가 사람의 기억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항상 자신들의 기억을 지니고 있을 것을 암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기억력을 지닐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옥에 던져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들려 준 첫째 말은 “너는… 기억하라.”였습니다(눅16:25).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벌레’는 사람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 ‘벌레’가 사람의 기억을 의미하도록 하려면 ‘벌레’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벌레’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한 ‘불’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와의 증인들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확고한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의 명백한 의미가 상식적인 의미이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불’을 ‘영적인 불’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벌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 ‘벌레’를 ‘영적인 벌레’, 즉 사람의 기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벌레이며 지옥은 분명하게 이런 벌레들이 영원히 기어 다닐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막9:48)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사66:24).

밑에서 나온 지옥이 네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되었느냐? 네가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네 영화가 무덤으로 끌려 내려갔고 네 현악기 소리도 *끌려 내려갔으며* 벌레가 네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사14:9-11).

이제 다시 한 번 마가복음 9장 44-48절 말씀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48절)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라는 소유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벌레는 단순히 어떤 벌레가 아니라 ‘그들의’ 벌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또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소유 대명사 ‘그들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벌레!’  
‘그들의 벌레!’  
‘그들의 벌레!’

우리 주님은 신중하지 않게 아무렇게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되풀이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들의’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벌레’(Worm)란 단어를 쓰시면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셨음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벌레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벌레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것을 보여 주려 하니 제발 의자에 힘주고 앉아서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결코 죽지 않는 벌레’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던져진 사람임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여기 나오는 ‘지옥’은 곧 ‘게헨나’(Gehenna) 지옥, 즉 최종 지옥인 불 호수를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그의 혼이 ‘하데스’ 지옥에 있는 동안 그의 몸과 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과 혼은 둘째 부활 때에 부활하여 마치 지상에서 살 때와 똑같은 몸과 혼을 갖고 흰 왕좌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뒤에 그는 심판을 받고 산 채로 불 호수에 떨어져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게헨나 지옥에서 이 사람의 몸과 혼은 함께합니다.

자! 이제 다음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2:7).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막 8:36)

성경은 사람이 혼이라고 말하며 또 동시에 사람이 혼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좀 더 살펴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하는 것을 위해 미리 와서 내 몸(my body)에 기름을 부었느니라(막14:8).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나사로](him)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요11:34)

예수님은 자신이 거하던 몸을 ‘내 몸’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혼이 죽음으로 인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몸을 가리켜 ‘그’(him)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용례는 매우 분명합니다. 사람은 혼을 소유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또 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몸을 소유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또 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살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불 호수에 던져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은 단지 그의 몸과 혼뿐이며 또 동시에 그 몸과 혼 그 자체가 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소유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계헨나 지옥에서 소유한 것이 단지 그의 몸과 혼뿐이라면 도대체 그의 벌레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부터 ‘벌레’라는 것이 그의 몸을 묘사하는 또 다른 단어임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벌레’는 한마디로 동일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인칭 소유 대명사를 쓰시면서 ‘그들의 벌레’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적인 본성의 상태에서 벌레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제부터 사람과 벌레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사람과 벌레는 땅에 속한 창조물이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닫할 수 있느냐?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든 벌레인 사람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하니라(욘25:4-6).

지식 있는 생물학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수태되는 순간 당신의 혼을 담고 있는 정자 세포는 벌레와 아주 똑같은 모습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구더기같이 구불구불 기어 다니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처음 형태는 벌레였습니다.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벌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으니(욘17:14)

여기서 욘은 “내 아버지의 허리에서 그리고 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는 썩을 수밖에 없는 벌레였으며 따라서 같은 곳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는 땅이 전부입니다. 벌레의 전 생애와 존재는 이 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레는 낮은 세계밖에 보지 못합니다. 벌레는 전적으로 땅의 표면을 기어 다니며 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벌레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낮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의 전 생애와 존재는 이 부패하고 썩는 세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넘어선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전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만 머리를 파묻고 삽니다.

첫째 사람[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고전15:47).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사고와 욕망의 모든 영역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높은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으며 단지 이 땅에서 자기가 얻고 즐길 수 있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런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 2. 사람과 벌레는 어둠의 창조물이다

어렸을 때 우리 집 농장에는 항상 목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형태의 목재들과 그것들을 묘사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몇 개의 판자들이 나뭇더미에서 땅으로 떨어져 땅에 넓게 깔리곤 했습니다. 재목들을 똑바로 세우면서 땅에 떨어진 판자들을 집어 올리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넓게 자리를 차지한 판자를 들어 올릴 때면 언제나 그 밑에 있던 벌레들이 갑작스러운 빛을 받고 놀라서 마구 기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은 즉시 어두운 은신처를 향해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처럼 구더기 벌레들은 어둠의 창조물입니다.

낚시 여행 준비를 할 때마다 우리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 땅속 어두운 데까지 깊이 파서 지렁이들을 찾곤 합니다. 또 아주 긴 지렁이가 필요하면 밤의 어둠 속에 플래시를 켜서 풀밭을 기어 다니는 ‘야행성의 기는 벌레 지렁이’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처럼 기어 다니는 벌레들은 낮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벌레들이 어둠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렁이/구더기 벌레들은 눈이 없지만 빛에 민감합니다. 벌레들은 어둠의 창조물입니다. 벌레들은 어둠 속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벌레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요3:19-20).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벌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

주로 어두운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극장이 부도덕과 음란을 조성하는 장소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극장은 어두운 곳입니다. 스크린에 반영되는 것만 유일하게 빛납니다. 나이트클럽과 술집과 디스코장과 그와 유사한 곳들, 즉 지옥 같은 곳들은 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희미한 전등을 켜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박한 벌레의 본성을 지닌 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니는 교회도 어둡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켜 놓은 촛불은 칙칙한 벽에 그림자를 던져서 어둠이 건물에 널리 퍼지도록 합니다. 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스테인드글라스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가립니다.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스테인드글라스가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벌레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빛 가운데 있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의 빛을 설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추는 동안 교회에 앉아 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벗어날 때까지 몸부림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마치 나무판자 밑에서 기어 다니는 벌레와 같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선포되자 그것은 마치 나무판자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벌레 근성이 나오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가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목소리를 하지 않고 경건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몹시도 지겨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양을 매우 혐오합니다. 복음 중심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들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기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태양 빛 축제에서 어둠을 사모하며 기어 다니는 야행성 벌레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에 더 잘 맞는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옥의 캄캄한 구덩이에서 울며 이를 갈더라도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번쩍이는 영광 가운데 있는 것보다 지옥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직 벌레의 본성을 지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노출되는 것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공흠이 풍성한 하나님은 지옥을 어둠의 장소로 만드셨으며 그 지옥에 결코 죽지 않는 벌레가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 3. 사람과 벌레는 다 더러운 창조물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벌레’(worm)라 말씀하신 그리스어는 ‘스콜렉스’(skolex)이며 이것은 ‘구더기 비슷한 마못 벌레’(maggot)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못 벌레와 세균은 자연스럽게 공존합니다. 벌레와 세균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세균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정말로 작은 벌레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마못 벌레(구더기)들은 세균이 많은 쓰레기와 더럽고 부패한 시체에서 잘 자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롯 왕을 먹여 치운 것도 바로 이런 벌레였습니다.

지옥은 온 우주의 쓰레기들, 즉 세균이 무성한 쓰레기들을 모아 놓은 장소입니다. 지옥은 영원토록 구더기가 들끓는 쓰레기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더러운 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계21:27). 그러므로 더러운 것은 모두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균이 더러운 쓰레기 더미에서 번식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는 몸, 즉 벌레의 몸을 입고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죽지 않는 벌레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돌지니라(계22:11).

이 세상의 꿈틀거리는 벌레와 같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독주, 와인, 담배, 마리아나와 같은 쓰레기를 좋아하며 개나 돼지도 좋아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것들에 탐닉합니다. 이런 면에서 개나 돼지는 마못 벌레(구더기)보다 고등 창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더기 본성에 어울리는 욕망을 따를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음란 영화, 더러운 농담, 천한 말, 음란 서적, 외설 잡지, 남자들만의 파티, 포르노 사진, 창녀촌, 인본주의 종교, 심령회, 부부를 바꾸는 클럽, 담배 연기 자욱한 카지노, 라스베이거스의 여자들, 나체쇼 댄서들을 좋아합니다. 단지 마못 벌레들만 더럽고 천한 쓰레기와 죽은 시체를 좋아하고 즐깁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등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의 쓰레기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즐기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의 썩어 가는 고기를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그들이 마못 벌레의 몸을 입고 영원을 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결코 죽지 않는 벌레입니다!

저는 독자들이 저와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제가 기술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는 벌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그들의 벌레’(their worm)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 벌레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소유하는 것이 오직 몸과 혼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소유하는 이 ‘벌레’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 봅시다.

몸은 죽어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10:28).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웃거리가 되리라(사66:24).

밑에서 나온 지옥이 네가 올 때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네 영화가 무덤으로 끌려 내려갔고 네 현악기 소리도 *끌려 내려갔으며* 벌레가 네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사14:9, 11).

이 성경 말씀들은 모두 최종적인 지옥, 즉 계헨나 불 호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몸과 혼은 지금 이 시간 ‘하데스’ 지옥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옥에 있어 본적이 없으며 최종적인 지옥, 즉 불 호수에 빠지기 전까지는 결코 지옥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계20:10).

사탄은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바닥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에서 사슬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계20:2-3). 그러다가 그는 최종적인 지옥, 즉 계헨나 불

호수로 갈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첫째 부활 때까지 최종적인 몸, 즉 영화로운 몸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 면에서 다르도다.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서 뿌러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서 뿌러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구원받은]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구원받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고전15:41-52)

이제 방금 위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1.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 때에 썩지 않는 몸을 받게 될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서로 다른 것같이 서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똑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2. 우리는 영화롭고 능력 있는 몸을 받을 것입니다.
3. 한때 땅에서 벌레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는 더 이상 그 벌레의 형상을 지니지 않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4.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썩어질 흠에 속한 벌레의 형상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 때에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몸 같은 몸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4장 8-9절 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 3:2).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계20:5-6).

얼마나 명백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들은 다 하늘 아버지의 몸과 같은 몸을 영원히 지닐 것입니다. 첫째 부활 때 그들은 이런 영화로운 몸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까지는 그들의 최종적인 몸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계20:5).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사망과 지옥이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 20:11-15).

둘째 부활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몸을 땅이나 바다에서

들어 올리시고 또 동시에 그들의 혼을 '하데스' 지옥으로부터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과 몸은 하나로 결합되어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있을 흰 왕좌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뒤에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그들을 가리켜 '죽은 자'라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 5절과 누가복음 9장 60절 등이 지적하듯이 말 그대로 그들이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아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고전15:50)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죽었을 때 입었던 그 벌레의 형상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사탄이 여전히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됩니다(요8:44).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부활 때에 하나님의 몸과 비슷한 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 때에 자기의 영적 아버지 사탄의 몸처럼 추악한 모습을 지닐 몸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람이 끊임없이 항상 좋은 방향으로 진보되고 있는 창조물이라고 규정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낙원과 같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 최상의 상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마귀의 형상을 입고 최악의 상태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생각 속에서조차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1:22-23).

여기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나쁜 쪽으로 쇠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새, 짐승... 그리고 기어 다니는 벌레. 사람의 생각은 나쁜 쪽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진보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하니(잠23:7)

사람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추락의 맨 마지막 단계는 곧 기어 다니는 것들, 즉 벌레들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가장 낮은 형태, 즉 벌레의 형상에 도달하기까지 그 추락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뱀입니다(창3:1; 계12:9).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불구불 기어 다니는 뱀의 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형태가 바로 구더기 벌레입니다. 벌레와 뱀이 연관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4-15).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민21:5-9).

이제 진리를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들은 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옛 뱀, 즉 사탄에게 물렸습니다(창3:1-6; 롬5:12). 그래서 우리는 그 물린 것으로 인해 죽어 가고 있습니다(롬6:23; 약1:15; 계21:8).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끔찍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요 3:14)

여기서 ‘든 것같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와 같이 지금도 그와 똑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있던 것 바로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둘째 사망, 즉 불 호수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5:21).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어둠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말 그대로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인격화된 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보리에서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채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는 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되신 예수님께 진노를 내리셨고 사람이 독사를 내리치듯 예수님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요 3:14)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이다.”(사45:22)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들려진 것이 마치 뱀이 들려진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 올려졌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이까?...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시22:1, 6).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으며 뱀의 형태 중 가장 낮은 형태인 벌레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시편 22편 6절을 이용해서 뱀과 벌레를 함께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시간의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을 때 그분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러나 동시에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형벌을 치르셨다면(롬5:8; 고후5:21; 사53:4-5) 분명히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 시간 동안 갈보리에서 지옥을 경험하실 수 있었을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에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세 시간 동안 지옥에 가서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지옥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 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시22:6)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영원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저와 당신을 대신하여 벌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지옥에 간다면 결국 당신이 벌레가 될 것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러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3-44).

결코 죽지 않는 벌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어머니의 태에서 벌레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퇴보하고 영적으로 죽고 타락한 자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점점 아래로 퇴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그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낮은 자리 대신 천국의 높은 자리를 그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벌레 같은 낮은 본성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높은 새로운 본성을 그에게 제공하셨습니다(벧후1:4).

하나님은 또한 깊고 낮은 수렁의 늪에서 천국의 황금 길이라는 높은 곳으로 그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듭나지 않아 쇠퇴의 길로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벌레와도 같아서 구원 대신에 땅에 속한 죄와 쓰레기와 더러움과 종교와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이같이 자신의 어리석고 완고한 선택으로 인하여 사람은 지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도달하면 사람은 자기가 처음에 생명을 시작했을 때의 낮은 형태, 즉 벌레와 같은 형태로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잠시 쉬면서 이 책을 읽고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7장에서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디 7장으로 돌아가 다시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으로 그분을 초청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지옥에 가지 말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화롭게 변화된 몸으로 기쁘게 노래하며 영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벌레의 형상을 갖고 비명을 지르며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나이 많은 인디언 추장이 인디언 보호 거주지에서 일단의 구경꾼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인디언 스타일로 그 추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생생하게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른 나뭇잎 몇 개를 모아서 하나의 원을 만들고 몇 개는 그 원 안에 땅바닥에 남겨 두었습니다. 그는 나무로 걸어가 벌레를 하나 잡아다가 그 원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파리로 만든 원에 불을 붙였습니다.

곧 연기와 불꽃이 그 작은 벌레를 감쌌습니다. 그 벌레는 한쪽으로 가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벌레 밑에 있던 이파리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나이 많은 인디언 추장은 그 작은 벌레에게 손을 내밀어 그것을 안전한 곳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벌레의 몸을 입고 결코 죽지 않은 채 고통을 당할 것이고 당신 주위의 불 역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그들의 벌레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을 보여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4절에서 우리는 자기의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위해 커다란 혼인 잔치(어린양의 혼인 만찬)를 베푸는 왕(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은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 잔치에 들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의 옷을 입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종교와 윤리라는 누더기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2:13).

이것은 곧 최종적인 지옥, 즉 계헨나 불 호수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계헨나 지옥, 즉 불 호수에 던져지지 않고 단지 불꽃 가운데로, 즉 ‘하데스’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받습니다(눅16:22-23 참조). 그러다가 최후에, 즉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흰 왕좌 심판에서 그들은 불 호수에 산 채로 던져집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계19:20)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계 20:15).

그때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2:13).

예수님께서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계헨나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먼저 그의 손과 발을 묶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최종 계헨나 지옥에 가서 천천히 처음 자기의 생명이 시작되었을 때의 형태, 즉 벌레의 형태로 되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욥17:14; 25:4-6).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잔치에 온 사람은 먼저 손발이 묶입니다. 이 사람은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수족은 묶여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수족을 묶으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족은 곧 무감각해져 결국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벌레는 수족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예수님은 “손을 잘라 내라!” “발을 잘라 내라!” “눈을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한 말씀과 함께 세 번에 걸쳐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벌레들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벌레들은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독자가 있다면 바로 당신이 ‘결코 죽지 않는 벌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 호수에 던져질 때에는 손과 발이 묶일 것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수족이 문드러지고 바깥 어둠 속에서 눈은 쓸모없게 되어 그 기능을 멈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자기의 아버지 옛 뱀 마귀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미풍을 뿌렸지만 강한 회오리바람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사악한 뱀의 가장 낮은 형태인 벌레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 다시 간청합니다. 독자여,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당신의 손과 발을 잘라 버리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사악한 해적선 선장은 자기 배가 심한 폭풍우에 부서져서 무기력하게 가라앉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파손되지 않고 남은 구명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구명정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선장은 자기와 함께 구명정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나머지 선원들은 뒤에 남아 가라앉고 있는 해적선과 함께 침몰해야 했습니다. 구명정의 고물에 서서 선장은 구명정에 탄 선원들에게 노를 젓기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겨진 선원들은 기울고 있는 배에 달라붙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명정이 바다에 침몰하여 죽을 운명인 선원들로부터 약 50미터쯤 떨어져 나아가자 남겨진 선원들 중 한 명이 “안 돼! 나는 죽기 싫어! 나도 데려가 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깊은 바닷물에 뛰어들어 그 구명정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명정 근처에 다다르자 선장은 성을 내며 “비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명정 근처로 오고 있었습니다. “구명정은 이미 꽉 찼어. 어서 돌아가!”라고 선장은 외쳤습니다.

구명정으로 헤엄쳐 온 선원은 살기 위해 오른손을 뻗쳐 구명정을 잡았습니다. 구명정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해적 선장은 칼을 꺼내 그 선원의 손을 잘라 버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울부짖으며 그 선원은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장은 칼에 묻은 피를 닦고 다시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손이 잘려 물에 빠졌던 선원이 검은 바닷물 속에서 올라와 왼손으로 구명정을 잡았습니다. 화가 난 선장은 “꺼져 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 손마저 잘라 버릴 거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구명정에 달라붙어 “나는 살고 싶어요! 제발 나를 태워 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화가 난 선장은 다시 칼을 빼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왼손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양손이 잘린 그 선원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나온 그 선원이 양손이 잘려 피가 흐르는 데도 “제발, 선생님! 나는 살고 싶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토록 살기를 원하는 그 선원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구명정의 나머지 선원들은 “그를 구명정에 태우시죠, 선생님!”하고 외쳤습니다. 결국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선원은 구명정에 끌어올려져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독자여, 당신의 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라 버리거나 빼내 버리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결코 죽지 않은 채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는 벌레로서 영원히 불탈 것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내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 예수 그리스도



## 하늘, 천국, 하늘의 왕국



### Appendix 1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엡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며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다(마4:17). 또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위의 명패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자신의 친백성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시대, 즉 신약 시대를 여셨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왕국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 1:14)

이처럼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은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셨을까? 예수님께서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흥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그러나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쩔 수없이 영해(靈解)를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중국 혹은 인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은 미국이나 영국 그 밖의 다른 유럽 사람들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는 천국을 무엇이 라 부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며 ‘하늘’(The Heaven)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절의 ‘하늘’은 곧 천국을 가리킨다.

나(예수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요6:38)

위로부터 오시는 분(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요3:3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

이런 까닭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 천국, 하늘의 왕국 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나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졌다.

너희(이방인들)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바로 그렇게 지금 이들도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이 왕국의 복음이다(마24:14).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런 사람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롬11:25-26)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144,000 명의 유대인 선교사들(계7:4-8)에 의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 따라서 선교 단체나 교회 등이 문맥에 상관없이 마태복음 24장을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결코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흥정역: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행1:6)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바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된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참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대부분의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게 된다.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 특히 구약 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직접 다루시는 역사적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관점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간단한 예로 에스겔서 37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 주시고 이들에게 대언하게 하시고 결국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하셨다. 이 내용이 37장 1-10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여기까지만 읽고 영적으로 이것을 내게 적용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취하는 것이다.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려 주신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겔37:11-13).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40장부터 나오는 천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이방인 크리스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유대인들의 부활과 상관이 있다. 물론 이런 것을 이해한 뒤에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차적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특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자기에게로 취하고 있다. 또 그러다 보니 왕국, 주의 날, 천년 왕국 이전에 있을 7년 환난기 등을 다 교회에게 적용하고 영적 해석을 한다.

## 유대인 역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통해 역사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롬3:1-2). 또한 사탄을 떨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메시아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출생하게 되었다. 누가 무어라고 하든지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속박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광야 생활이 지속되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

약 400여 년간의 재판관(사사)들의 통치 시절이 끝날 무렵에 그들은 하나님을 매우 실망하게 하는 요구를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대신 육신의 왕을 달라는 요구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한 채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땅에서 거의 사라지게 될 뻔했다. 그러나 그 뒤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왕 때에 율법 책이 다시 발견되어 그 책을 읽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 물론 종교적인 관행들은 유지되었고 명절들 및 헌물 드리는 것 등에 대한 예식들은 행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정도까지 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양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수소나 어린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나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AD 30

BC 445 유대인들을 향한 69 이레

단9:24-27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

BC 606 유대인

BC 536 유대인

AD 70 유대인

AD 364 로마 제국 분열

AD 1054 서방교(로마 천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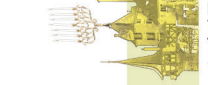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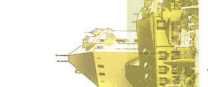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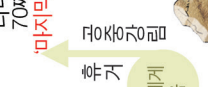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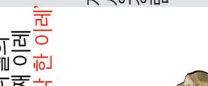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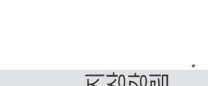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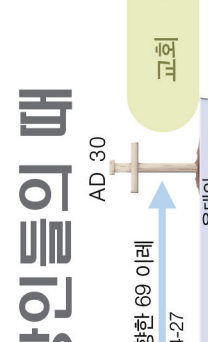
AD 70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짐

AD 70 유대인들이 돌아옴

AD 70 유대인들이 돌아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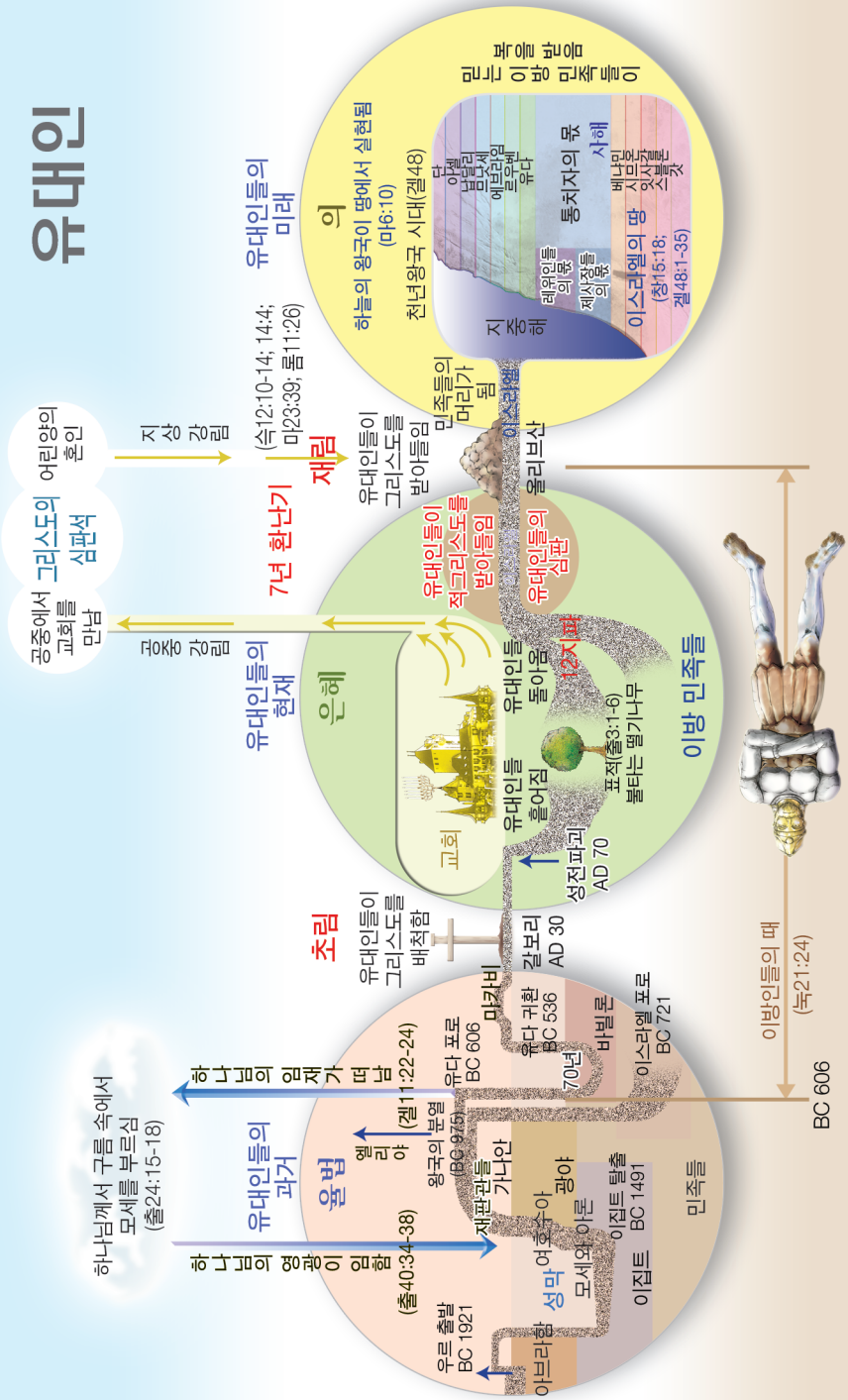
AD 70 유대인들이 돌아옴

BC 606	비빌론 제국	BC 536	메데/페르시아 제국	BC 323	그리스 제국	BC 30	로마 제국
단7:1-4	사자	단7:5	코끼리	단7:6	표범	단7:7	적그리스도
단7:1-4	사자	단8:1-7	코끼리	단8:8-12	표범	단8:1-7	적그리스도
단7:1-4	사자	단8:1-7	코끼리	단8:8-12	표범	단8:1-7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의 때>

# 유대인



〈유대인〉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나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나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사1:11-15).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지만 지도층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바빌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려보내셨고 그들은 본토에서 처음에는 학개나 스기라 같은 대언자들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반역의 길을 갔다. 이 결과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였던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갖 악행을 행하도록 약 400년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신음했듯이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를 진정으로 사모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각종 종교 분파를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생겨난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을 열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에세네파 등의 무리였다. 그들은 백성들의 영적 고통 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같은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도록 그리스어를 완성하셔서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가 되도록 하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는 도로가 확장되고 곳곳에 교통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셨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즉 구약의 예언대로 인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원전 4년경에 자신의 독생자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복음서의 이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라는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많은 이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듯한 구절들을 발견하다. 이 같은 혼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2:2)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마2:6)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마10:5-7).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리이까? 하니(마11:2-3)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마11:12-13)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마15:24).

그(예수님)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눅1:32-33).

그때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눅2:28-32)

그때에 그녀[안나]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눅2:38).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야곱의 집 등이 모두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우리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결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지금 중동에서 있는 육적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이 분명히 있으며 성경에는 말세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예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적용하게 될 때 성경 해석상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에 있는 약속들 중 실제의 육적 이스라엘이 받게 될 것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권을 잃게 되었고 약 400년간 그리스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오면서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속해 줄 것을 고대했다.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이 모두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미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어떠한 불순종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마태복음이다. 성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해 오던 메시아 곧 이 땅에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여 철장 권세를 휘두르실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위의 성경 구절들의 밑줄 친 부분이 보여 주듯이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어졌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 약 30년이 지난 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들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음을 차례로 분명히 기록했다. 그분께서는 먼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이기셨으며 자신이 통치하게 될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6-7장은 바로 하늘의 왕국에서 살게 될 시민들이 지켜야 될 생활 헌장이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해 왔으며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수백 차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알려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9장에서 여러 가지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다. 더러움에 대한 권능, 멀고 가까운 거리에 대한 권능, 사망과 흑암과 각종 질병 등에 대한 권능을 보여 주셨고 마비증 환자와 세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셨다. 그 뒤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왕의 사역이 나오며 13장 1-50절에는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왕국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 결국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연장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들을 통해 자신이야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이며 또 자기가 땅에서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을 그들에게 주러 왔다고 선포하셨지만 자기의 친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는 여덟 번의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저주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진다(13, 14, 15, 16, 23, 25, 27, 29절).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됨을 보시고는 마태복음 23장 37-39절에서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상관하지 않을 것을 보여 주셨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셨으나 그들에게 배척받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말세에, 즉 주님께서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 24-25장에서 설명해 주신다. 그 뒤 26-27장에서는 왕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받은 뒤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장사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께서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명패에도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마27:37),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요19:19)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서 숨을 거두셨다(요 19:30).

## 신약과 구약의 이해

우리가 ‘신약’이라 부르는 것을 영어로는 ‘New Testament’라고 하며 이것을 직역하면 ‘새 상속 언약’이 된다. ‘상속 언약’(Testament)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신약 성경에만 14번 나온다. 대부분의 한글성경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 이 같은 번역은 옳지 못하다. ‘언약’은 ‘Covenant’란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사실 ‘Covenant’와 ‘Testament’는 다르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막14:24; 눅22:20; 고전11:25)라는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상속 언약’을 말해 준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점을 더욱더 명확히 해 주고 있고 「개역성경」도 이 부분에서는 하는 수없이 ‘Testament’를 ‘상속 언약’에 가까운 ‘유언’으로 번역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히9: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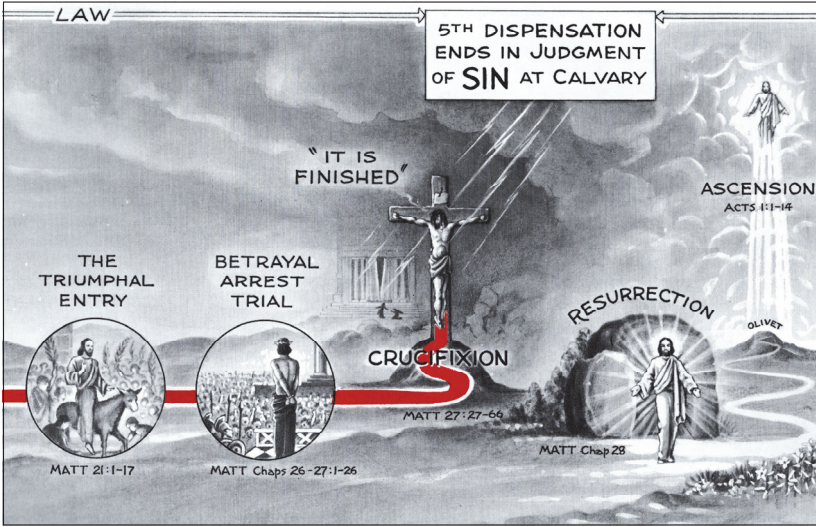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신약 시대가 열렸지만 그것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 것은 상속 언약자 되신 예수님이 죽은 이후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기술적으로 여전히 구약 시대이며 따라서 주로 유대인들이 사역의 대상이 되었고 그분께서는 자신을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소개했으며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행위가 강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에베소서 2장 1-13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0-22절 말씀을 보면 실제적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메시아 배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로 구원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지만 세상 끝에는 유대인들이 다시 구속됨을 보여 주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 쓰러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롬11:11, 25).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모순처럼 보이던 구절들을 무리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파하셨던 것은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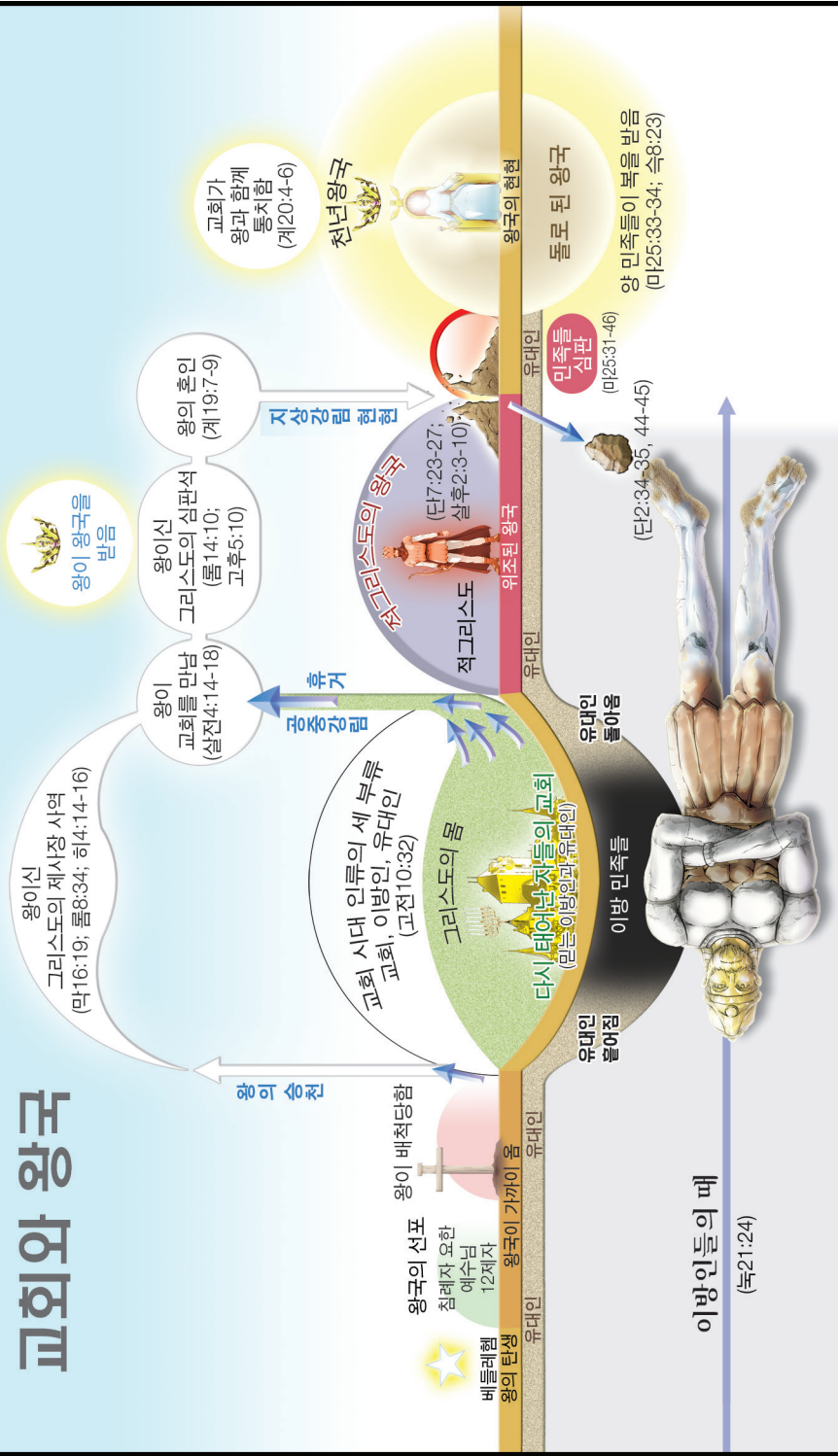
다스리시는 왕국,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었다. 그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천국, 즉 지옥에 반대되는 천국이 아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곳이고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Heaven'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왕국' 혹은 '하늘에 속한 왕국'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원대한 계획안에 사람의 구속(救贖)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속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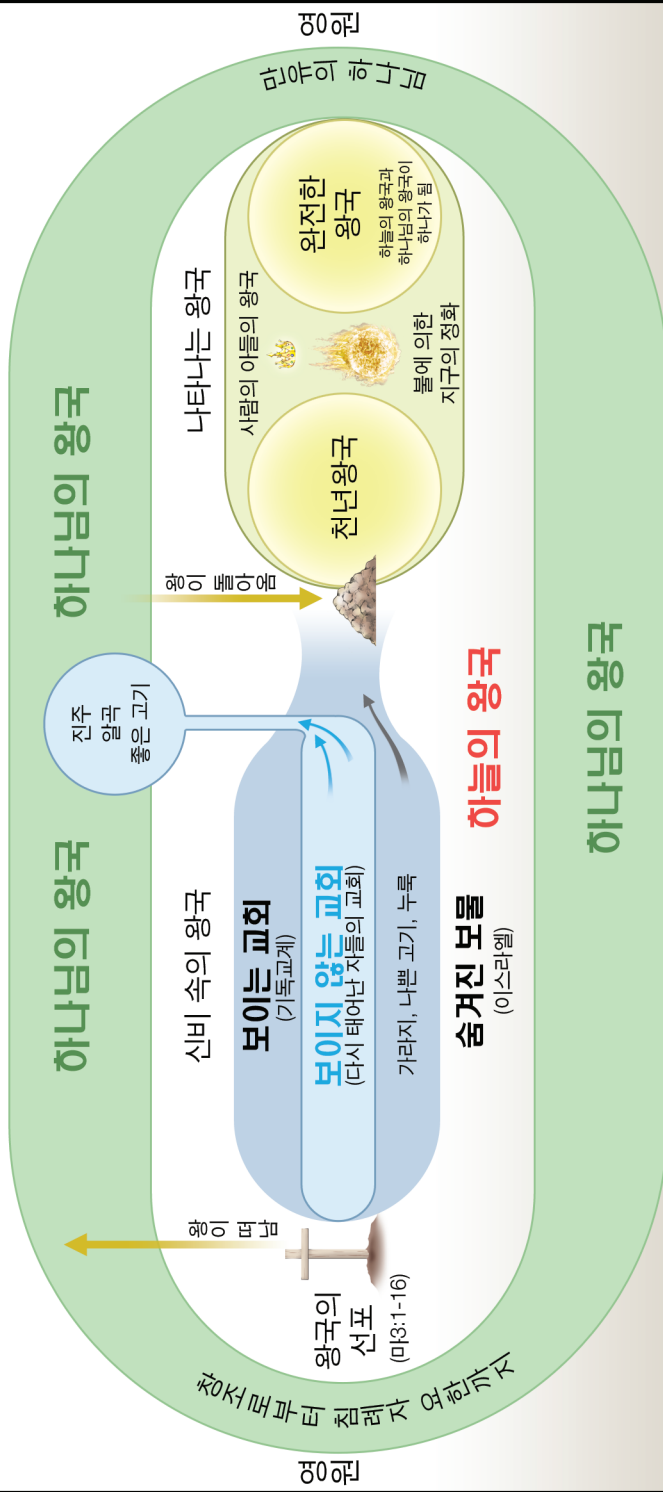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온다.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 교회와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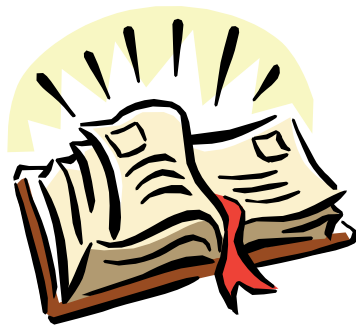
#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교회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흠정역:**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물으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눅17:20-21).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리!’**

## 구원의 원리



### ♣ 필요성 ♣

모든 물건에는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물건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흠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때가 있습니다(행17:31; 히9:27).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불과 유황 호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계20:10).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내게 메이커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 방해물 ♣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자유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자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는 그분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롬3:23). 첫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창5:3; 롬3:10).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롬6:23)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차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1:13).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화를 잘 읽어 보시면 죄와 죄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죄는 논리적이지 않다: 수영을 못하는 전갈이 강을 건너기 위해 거북이에게 다가가서 등에 태워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미쳤냐?” 하고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수영하는 동안 네가 나를 쏘면 나는 물에 빠져 죽잖아.” 그러자 전갈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쏘 리가 있냐?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게 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거북이는 “맞아. 그렇군.” 하고는 등에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의 중간에 왔을 때 전갈은 강한 침으로 거북이를 쏘아 버렸고 둘은 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거북이가 가라앉으면서 전갈에게 힘없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쏘지?” 그러자 전갈은 다음과 같이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논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내 본성이거든.”

(2)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다: 어느 목사가 글래스고우에서 열심히 옥외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의 결론을 내릴 즈음에 어떤 불신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양반, 나는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소.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믿지 않소. 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소이다.” 그러자 옆에 검은 안경을 낀 한 눈먼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근에 클라이드강이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지만 나는 믿지 않소.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없소. 나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말한 바가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3) 죄인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 출랑거리는 한 청년이 목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죄 짐을 지고 다닌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죄 짐은 얼마나 됩니까? 10킬로그램쯤 됩니까? 아니면 80킬로그램쯤 됩니까?” 그러자 목사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은 사람 위에도 400킬로그램짜리 짐을 올려놓으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까요?” “아뇨, 죽은 사람은 무게를 못 느끼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죄의 무게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알 수도 없으며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계획 ♣

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만이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의 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4:12).

## ♣ 확신 ♣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요14:6).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하나님이라 해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무엇인가를 조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십니다. 공기, 물, 햇빛 등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 거저 주십니다. 부자나 학자나 귀족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또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 것이어서 사람이 값을 치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거저 얻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 ♣ 초청 ♣

인생은 마치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히3:13).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벧전1:23).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요3: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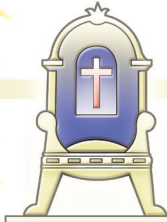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9-10).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ק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ם ורוח אלהים מר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ύ, υίου  
Δαβίδ, υί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  
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데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